MAXIM
KOREA

19 BIKINI
COLLECTION

작년엔 언더붑, 올해는 마이크로?
현역 미스맥심과 미맥 지망생까지
19명의 비키니 미녀로 꽉 채웠다

SPORTS

직관의 계절, 야구 VS. 축구
축알못도 푹 빠질 축구 영드

A.I. HELL GATE

이거... 잘하는 짓일까?
6월 27일 맥심이 여는
가상 미녀 사생대회
maxim korea.net

NOTICE
이 표지 모델은
A.I 그림이 아닙니다

JULY 8TH 5PM
MAXIM PLUS SIZE
MODEL CONTEST
@OLYMPIC PARKTEL

JULY 15TH 7PM
MAXIM ROOFTOP
BIKINI POOL PARTY
@DRAGON CITY
SKY BEACH

MISS MAXIM CONTEST 2023

14강 결정 투표 6/29부터

NO. 242
'현실도피'편

THEME of the month

- 기분 좋게 정신줄 놓아 주는 여름 술
- 가성비X, 가'심'비 따지는 MZ 현실도피
- 직장인 MBTI 유형별 퇴사 시나리오
- 여행지에서 여자들이 원나잇하는 이유
- 도망쳐도 돼.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면
- 빠른 쾌락. 섹스로 현실도피하는 그녀
- 모쏠이 더 외모 따지는 현실도피 심리
- 현실 연애보다 중독적인 가상 섹스
- 여행 마렵니? 가면 반드시 죽는 여행지

COVER MODEL 미스맥심 이소윤

2023년 7월호

MAXIM
KOREA

19 BIKINI COLLECTION
작년엔 언더붑, 올해는 마이크로?
현역 미스맥심과 미맥 지망생까지
19명의 비키니 미녀로 한 권 꽉 채웠다

GENDER
"가부장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HOT CHICKS
알고 먹자. 복날의 닭닭닭

MAXIMKOREA.NET
6/24 플러스사이즈 모델 투표
6/27 맥심 A.I 모델 사생대회
6/29 미맥콘 TOP14 결정 투표

NO. 242
'현실도피'편

THEME of the month
- 직장인 MBTI 유형별 퇴사 시나리오
- 여행지에선 그녀들의 원나잇 허들이 낮아진다
- 도망쳐도 돼. 중요한 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
- 이 여름에 기분 좋게 정신줄 놓아 주는 술
- 빠르게 얻는 쾌락. 섹스로 현실도피하는 그녀
- 가성비보다 가'심'비 따지는 MZ식 현실도피
- 모쏠 기간 길수록 더 외모 따지는 현실도피 심리
- 여행 뽐뿌 한방에 날린다! 가면 백퍼 죽는 여행지
- 현실에서 자꾸 도망치면 뇌에서 벌어지는 일

JULY 8TH 5PM
MAXIM PLUS SIZE MODEL CONTEST @OLYMPIC PARKTEL

JULY 15TH 7PM
MAXIM ROOFTOP BIKINI POOL PARTY @DRAGON CITY SKY BEACH

SEX ON THE BEACH
가상섹스 어디까지 왔나 에디터가 직접 싸봤...
목소리 좋은 남자에게 대책 없이 끌려요
충격, 몸짱이라고 여자 꼬이지 않더라

2023년 7월호

COVER MODEL 미스맥심 이소윤

MAXIM
KOREA

JULY 8TH 5PM
MAXIM PLUS SIZE
MODEL CONTEST
@올림픽파크텔 서울

JULY 15TH 7PM
MAXIM ROOFTOP
BIKINI POOL PARTY
@드래곤시티 서울

A.I. HELL GATE

이 표지 모델은 실제 인간일까
A.I.가 그린 가상의 미녀일까

6/27 맥심이 여는 가상 모델 사생대회
회사의 만행에 맞서는 미스맥심의 자세

LINE UP

미스맥심 이소윤
한지나 은유화
양혜원 청아

VOTE

6/24 플러스사이즈 모델 투표
6/29 미맥콘 TOP14 결정 투표
www.maximkorea.net

NO. **242** **S** type

SUBSCRIBER ONLY LIMITED EDITION

'현실도피'편

19 BIKINI SPECIAL

언더붑 가고 마이크로 비키니 온다
열아홉 미녀의 비키니 융단 폭격

THEME of the month

- 직장인 MBTI 유형별 퇴사 시나리오
- 여행지에선 그녀들의 원나잇 허들이 낮아진다
- 도망쳐도 돼. 중요한 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
- 이 여름에 기분 좋게 정신줄 놓아 주는 술
- 빠르게 얻는 쾌락. 섹스로 현실도피하는 그녀
- 가성비보다 가'심'비 따지는 MZ식 현실도피
- 모쏠기간 길수록 더 외모 따지는 현실도피 심리

SEX ON THE BEACH

가상섹스 어디까지 왔나 에디터가 싸봤다
목소리 좋은 남자에게 대책 없이 끌려요
충격, 몸짱이라고 여자 꼬이지 않더라

COVER MODEL 미스맥심 이소윤

2023년 7월호

울지 마! 도망치지 마!
이달의 주제: 현실 도피

모솔 기간 길고 외로울수록
미녀만 쫓는 현실 도피 심리

이왕 도망갈 거 지리는
곳으로! 이세계로
향하는 이색호텔

가장 먼저 회사 때려칠
놈은? 직장인 MBTI
유형별 퇴사 시나리오

계산기 핥고 샹들리에를
삽입해? 사물을
사랑한 미친 사람들

모기한테 잘 물리는
혈액형이 따로 있다!?
모기 알쓸신잡

일상 탈출하려다 인생
탈주하는 호러물 속
휴양지 TOP10

축알못도 푹 빠진다!
축구 전문 기자가 엄선한
축구 OTT 콘텐츠

<진격의
거인>
야동 본 적
있냐?
원작 초월
패러디 AV

평생 진 적이 없다니까?
궁극의 정신승리 필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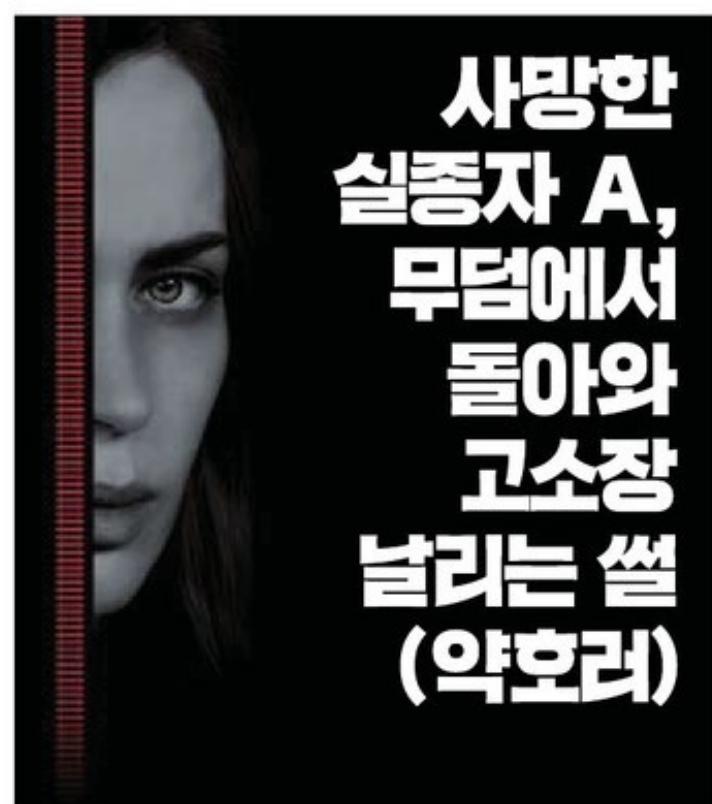
키보드 배틀
무조건
이기는 기술,
반박 시
내 말이
다 맞음

배보다 배꼽이 존나 커!
몇천만 원 넘는 세계
최고가 게임템 TOP10

드라마 <허준>이 구라였다?
너무 미화된 위인들
(역사 왜곡 꿀잼♥)

현실 도피엔
술이 직방!
여름에
취하기
좋은 술

COVER STORY

늘씬한 비키니
미녀와의 바캉스
망상, 미스맥심
이소윤과 현실
도피하실?

스포츠 직관의 계절!
야구장 vs. 축구장,
뭐가 더 재밌게?

KAL기 폭파부터 천안함,
세월호까지 대한민국을
흔든 위험한 K음모론

도망쳐도 돼,
더 중요한 건
제자리로 잘
돌아오는 것

오늘 밤은 이거다! 촉촉한 상상
대리만족 유발하는 웹소설

#영끌
#갓생
가성비보다
가'심'비 따지는
#MZ식_
현실도피

냠냠냠 알고 먹자!
복날의 닭

미스맥심 소원성취
은유화 편: 꽃보다
예쁘게 찍어줘?
이미 꽃인데?

올여름
이거
없으면
X됨~
장마철
개꿀템

트레이너
이린의
육체미
구락부!
남성호르몬
펌핑하는
스쾃

휴가는 소인배나 쓰는 법,
이달의 근성론: 현실 도피 지랄 마

사망한
실종자 A,
무덤에서
돌아와
고소장
날리는 썰
(약호러)

뇌파 읽고 관심법
쓰는 미륵불
인공지능 등장,
인간은 아아…
망하나요?

침대 밖은 위험해! 올여름
강타할 게임 속 이벤트

가상 섹스
어디까지 왔나,
에디터가 직접
싸고 왔습니다

단독! 헬스부
장관 김재섭
충격 고백,
"몸짱이라고
여자
안 꼬여"

지나 씨가
있어야
비로소
맥심의
여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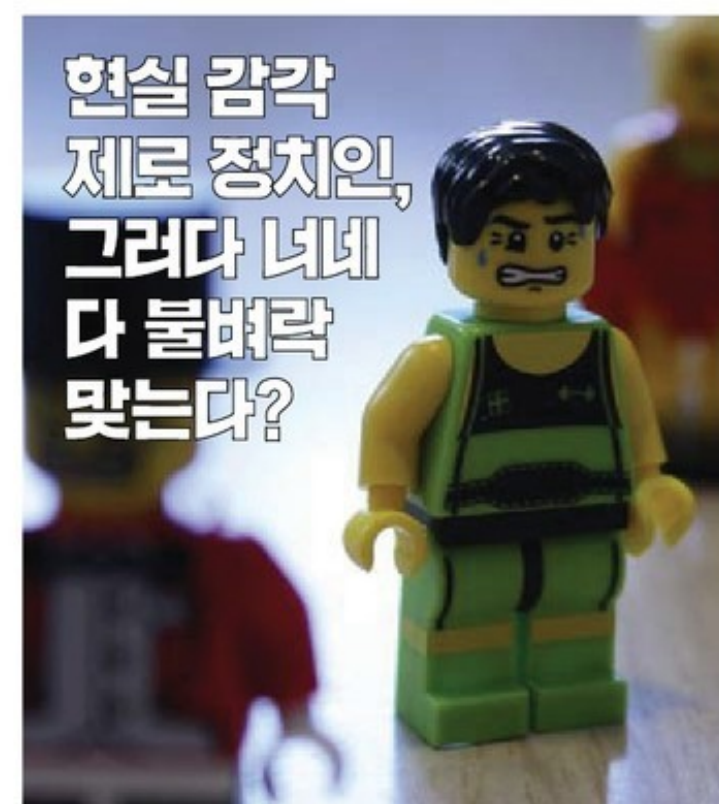
Cool
Summer
Bikini

미친놈 만나서 미치도록
사랑하고 미친년이
되어버린 미친 사랑 이야기

이승에서의 마지막
여행지, 지금 가면
개털리는 무서운 나라들

여름 특집
단판 승부!
미스맥심
양혜원
vs. 청아
당신의
선택은?

원나잇
허들이
낮아진다!
그녀들의
과감한
여행
로맨스
판타지

목소리 좋은 남자에게 대책
없이 여자가 끌리는 이유

현실 감각
제로 정치인,
그러다 너네
다 불벼락
맞는다?

가부장제는
너네 말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예비
미스맥심
28인의 비키니 전쟁,
3R 투표 6월 29일부터

현실 도피 망상 마니아
에디터의 마감 비화
"이번 달도 망할 뻔"

하루만 니 개가 되고파,
애견인 미스맥심들과의
특급 데이트 현장

마감 중독자의 현실도피

나: 작업의 원동력은 어디서 얻나요?
양: 역시... 마감이죠. 다른 아티스트들도 다 그렇게 말할걸?

2011년 2월호 맥심에서 크로스오버 뮤지션 양방언을 인터뷰했다. 자기 분야에서 획을 그은 이 예술가의 한 마디에 순간 나는 감히 동질감을 느껴버렸다. 당신도 마감러였군요?

십여 년간 매월 맥심을 마감했다. 그동안 봐온, 나를 포함한 여러 에디터 새끼들은 마감 없으면 답도 없는 놈들이었다. 데드라인까지 똥줄을 태우는 피곤하고 곤란한 사람. "거 미리 미리 하면 안 돼?" 어, 나도 알아. 그런데 잘 안 된다. 자신이 짠 시간표대로 뭔가를 척척 해내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나는 나에게 시간표를 맞추는 편이다(=엉망진창이란 얘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마감 없는 생활은 상상이 안 된다. 마감이 없으면 나는 아무 것도 세상에 내놓지 못할 거다.

변명하자면 우리가 늘 게으르고 빈둥대느라 늦어진 건 아니다. 집요해서, 생각이 많아서, 완벽주의자라 그런 경우가 많다. 더 많은 자료를 보고 더 빈틈없이 구성해야 하니까, 더 재밌고 예뻐야 하니까 등등의 이유. 이해는 하지만 이쪽 일은 개인 능력만큼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따위 조막만한 자기만족보다는 전체 일정이 우선이다. '그 따위 조막만한'이라고 낮춰 말한 이유는, 자기가 만족할 만큼의 수준이라는 게 꼭 우수한 결과물을 낳는 것도 아니거든. 이곳에선 내 손에서는 미완성된 상태일지라도 이후 다른 사람이 작업할 수 있게 적당히 반죽을 만들어 넘겨야 한다. 그래야 빵틀이 준비되고 빵을 구울 불이 가마에 지펴진다. 중요한 건, 내 입에 맞는 빵을 굽는 게 아니다. 손님이 원하는 시간에 내놓을, 약속된 품질의 빵을 만드는 거다. 반죽 쭈물대다 내 맘에 안 든다고 버리고 새로 만들었다가 또 버리고 할 여유가 없다. 반죽이 반죽하는 인간 입맛에 맞아봐야 상품으로서 뭔 가치가 있느냔 말이지.

우리는 누가 아파도 "죽어도 마감 끝나고 죽자"라는 말을 농담 반으로 주고받는다. 진담이 절반이란 소리다. 그게 함께 일을 하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자 약속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람인지라 가끔은 도저히 시간 안에 완성 못 할 기사가 나온다. 그럴 때는 빨리 포기해야 한다(듣고 있지, 중우 씨). 포기도 기한이 있다. 최소한 편집장이 잡지 한 권의 배열표, 즉 전체 지면 순서를 담은 일종의 설계도를 짜기 전에 포기해야 욕을 덜 먹는다. 안 그러면 내 기사 하나로 잡지 한 권의 배열 대부분이 바뀌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모두가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나 하나 때문에 모두의 마감 일정을 지옥으로 만든다? 와, 나 지금 타이핑만 했는데도 닭살 돋았어. 상상 할복 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다 지웠다 되살렸다를 반복하며 손, 눈깔, 모가지를 혹사시킨다. 뭔가 부족해, 더 재미있게, 예쁘게. 마치 성형 중독자가 얼굴을 갈아엎듯 지면을 갈아엎는다. 내가 무슨 가우디도 아니고, 맥심 한 권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도 아닌데 매월 이러고 산다. 생각해보니 그 성당도 마감 기한이 없으니까 141년 넘게 성당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어허, 가우디 이 친구 안 되겠네(엄밀히 따지면 가우디 탓은 아님).

*1882년 착공해 지금까지 공사 중인 스페인 성당.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

그래도 나는 마감러 인생이 싫지 않다. 오늘처럼 기사 수정이 쏟아져서 (물론 대부분은 내가 쏟았지) 일정이 무한정 길어지는 날엔 가끔 이런 생각도 한다. 이왕 격무할 팔자면, 대대손손 김일성처럼 후대에 물려줄, 예를 들면, 선관위 같은 티타늄 밥통을 꿰찼어야 하는데. 그래도, 잡지 마감엔 나름 낭만이랄까. 그런 게 있다. 마침표를 개운하게 찍을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마감은 제작자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주간이지만, 창의력과 집중력도 폭발하는 시간이다. 문제는 그래서 쓰잘데기 없이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자꾸 딴 길로 빠져 허우적대다 겨우 현실로 돌아오는데, 나 같은 경우는 괜히 의욕 충만해 신규 프로젝트를 짜거나 미팅 같은 걸 생각 없이 잔뜩 잡아버리곤 한다. 마감 끝나고 나를 기다리는 것은 과거의 내가 선물한 새로운 스케줄 지옥. "마감 끝나면 좀 한가하지?" 예, 그래도 잠은 집에서 누워 자니까요. 그리고 마감의 가장 큰 부작용. 시험 기간 책상 정리처럼 마감 외의 모든 일이 너무 좋고 즐겁다. 못생긴 박중우도 예뻐 보이고, 골치 아픈 사장놈 잔소리가 고양이 고로롱 소리처럼 들린다. 일과가 빠듯하니 그 외의 지저분한 단점들이 마치 뽀샤시 필터 입힌 것처럼 보인달까. 세상엔 재밌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까탈스럽게 휙휙 넘기던 넷플릭스 개노잼 추천작이 마구 땡긴다. '어찌 이런 명작을 내가 놓쳤지?' 병신아, 그거 전에 본 거잖아.

그렇게 도처에 깔린 현실도피 함정을 피해 무사히 마감을 치고 이번 달도 한 권의 잡지를 냈다.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시간 맞춰 독자 여러분 손에 책이 도착할 거란 사실이 감사하다. 팍팍하고 대체로 무채색인 우리 대부분의 일상. 먹고 살기 바쁜 어른들은 그냥 숨만 쉬어도 피곤하다. 나는 그래서 매달 마감 쳇바퀴에 올라 페달을 밟는다. 독자의 일상에 총천연색 판타지로 가득한 이 맥심 한 권이 '현실도피처' 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게 내가 맥심을 십여 년 동안 꽤나 즐겁게 마감할 수 있는 이유다.

적어도 이 안에서는 응원받고 사랑하고 망상에 푹 빠져도 된다. 팍팍한 일상이 침투하지 못하는 일종의 '소도'로서의 존재 가치를 맥심이 잃지 않길 바라며, 이번 호에도 무차별 비키니 화보 폭격을 때려 부었다. 당신의 촉촉하고 달콤한 현실도피처, 맥심이 세상에 없는 천국을 보여드리겠다. 당신은 눈만 크게 뜨시라.

2023년 7월호
편집장 이영비

Editor in Chief
YOUNG BEE LEE

MODEL
2023 미맥콘 TOP28 진출자
회사원 권수진

미맥콘 2023

독자 참여형
리얼 서바이벌 투표 예능
미스맥심 콘테스트!

맥심 12월호 표지 모델이 당신의 투표로 결정된다!

언제 올라와?
6/25 일요일 (17화)
6/29 목요일 (18화)

어디서 보는데?
유튜브 'MISS MAXIM CONTEST' 채널

어떻게 참여해?
채널 구독 후
〈미맥콘 2023〉 시리즈를
정주행! 투표도 잊지 말고!

제3회 MAXIM

PLUS SIZE MODEL CONTEST

공동 주최·주관사:
KMA(한국 모델 협회),
MAXIM KOREA
일정: 2023.7.8 오후 5시 (입장: 오후 4시 30분)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송파구 올림픽로 448)

"육덕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다"

섹시함은 마른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건강함이 발산하는
진정한 관능미에 관하여
고정관념을 깨고 미의 기준을
새로 쓰는 세 번째 걸음

TICKETING FOR EARLY BIRD

맥심의 현직 모델들과 셀러브리티가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

- **정기구독자 우선 예매:** 2023년 5월 10일(0시) ~ 5월 14일까지
  (정기구독자 등급 M 이상 회원만 가능, 최대 할인 적용)
- **일반 대상 얼리버드 할인 예매:** 2023년 5월 15일 ~ 5월 31일까지
  (얼리버드 기간 중 전 좌석 매진될 경우, 6월에는 예매를 진행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예매처:** 맥심 홈페이지(maximkorea.net) '쇼핑' 메뉴 ▶ 티켓 예매

READER'S Letter

이런 동네 친구 하나쯤
다 있는 거 아녔어?

맥심 239호 표지모델
치어리더 안지현

Q. 역시 커버 사진이 중요해! 지난번에 미스맥심 노지혜, 박수민 님의 커버 사진을 보고 홀린 듯 서점으로 향했는데, 4월호 표지는 무려 치어리더 안지현씨라니... 게다가 타이틀이 "동네 친구" 라고요? 남자들의 로망을 제대로 저격하셨네요. 오늘도 전 퇴근 길에 서점에 들러야겠습니다.

김광수[홈페이지 일반회원]

에디터 박중우: 거짓말... '예쁜' 동네 친구가 로망이면서...

PD 이준예: 동네에 이런 처자가 있으면 동네 집값이 들썩일 것 같다.

맥심 사장: 지현씨, 다음에 이사가면 어느 동네로 갈 건지 미리 좀 알려줘요. 땅 좀 사놓게. 이제 친구만 되면 되겠...네

편집장 이영비: 안지현의 미모로 황학동 골목길(촬영지)을 마비시킨 보람이 있군요. 그 로망을 제대로 담은 B타입은 진작에 품절됐죠. 정기구독용 S타입도 정말 예쁘니 이 참에 한 번...

Q. 저는 축구공인가 봐요. 고백한 횟수가 50번이 넘습니다(성공 없음). 왜 고백만 하면 뻥뻥 차이냐고요! 100번까지만 고백해 보고 100번 다 차이면 마음을 비우고 맥심 잡지나 보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100번까지 차이겠어요? 하하하하하

바니티[홈페이지 일반회원]

에디터 김한솔: 그렇게 일퀘 깨듯 고백을 하니까 매번 차이죠. 별로 진심도 아니란 게 여자도 느껴지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에디터 배주영: 그렇게 혼쭐 당한 카페 알바생 50명이 그만두었다고 한다... 설마 한 명한테 50번 고백한 건 아니죠?

에디터 윤정도: 탐난다... 차인 상황와 대사만 모아도 일년치 연재 쌉가능인데...

편집장 이영비: 실례지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몇 살인데 고백 횟수가 50번이 넘지? 얼굴 마주치면 바로 고백을 갈기는겨? 마치 100번을 채우는 게 목표인 사람 같네요. 본인이 차인 이유를 잘 모르겠으면 맥심 헛보신 겁니다. 사진만 보지 말고 글을 읽어주세요. 섹스 넘치는 삶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건만... 정 시간이 없으면 지금까지 맥심에 실린 김성모 화백의 '근성상담소'만이라도 모아서 보세요. 비루한 X구멍에도 꿈과 희망의 찬란한 광명이

READER'S LETTER

넥스트레벨같은
소리하네

맥심 187호
미스맥심 이아윤

비추어 내릴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맥심 사장: 저는 소위 '고백'이라는 것이 통하는 경우가 과연 있긴 있나 싶을 정도로 성공률이 낮은 행위인 것 같아요. 남녀 간의 호감도가 올라가면 보통은 자연스레 썸으로 이어지지, '고백'이라는 건 대개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 혼자 좋아할 때 떠올리는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고백을 갈기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보는... 이상 고백 반대주의자였습니다.

Q. 마음만으로 사랑한 사람 있습니까.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내재된 모든 욕구가 채워진 느낌. 나를 조직한 모든 세포가 부푼 느낌.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모든 욕망이 채워지니 섹스도 이미 한 느낌입니다. 욕망의 넥스트 레벨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미 싼 느낌? 아니 그냥 주구장창 싸고만 있는 느낌? 그녀 옆에서 잠을 자도 고추가 안 섭니다. 진짭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녀요. 형님들 이게 첫사랑인건가요? 동백나무[APP사연 *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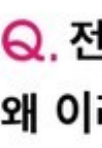
편집장 이영비: 첫사랑이고 나발이고 그녀에게 독자님은 줘도 못 먹는 놈입니다. 아디오스

에디터 김한솔: 발기부전의 합리화

에디터 배주영: 주구장창 싸고 있는 느낌이면 요실금 아닌가요. 독자님 고추에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디터 박중우: 사랑은 모르겠고, 여자는 자기한테 주구장창 싸고 싶다는 놈이랑 섹스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칼럼니스트 삼도: 그러니까 지금 다키마쿠라랑 매일 밤 동침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스맥심 김나정: 그냥 약을 쓰세요. 저희 집 약국해요. 참, 처방전은 받아오시고요.

Q. 전수진 디자이너 왜 이리 예쁨? 전에 미맥콘에서 점 보러 갔을 때 보니 되게 예쁘시던데 남친 없으면 전화번호 받고 싶네요. 그리고 채희진, 정도윤 형님 미친 언변 보고 매달 놀라고 있습니다. 편집장님, 이분들 월급올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배진영[홈페이지 일반회원]

편집장 이영비: 전수진 디자이너는 정말 금손입니다. 레이아웃 디자인뿐 아니라 포토샵도 거의 신급 레벨로 잘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에디터 윤정도: 정도윤이 누군진 모르겠고, 마지막 말은 동의합니다. 멀끔하게 생긴 데다 인사이트도 있는 독자시군요. 그리고 전수진 디자이너는... 저도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에디터 배주영: 전ㅅ...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사진은 왜 까셨나요?

디자이너 전수진: (비밀 댓글) 감사합니다. 요청대로 잘 써주셨네요. 이번 주 내로 입금 드리겠습니다.

Q. 맥심 가족 여러분 제 고민을 들어주세요. 여자 친구와 연애한지 4년 됐고, 올 9월에 결혼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천사같이 착하고 미스맥심 이하니 누나같이 예뻐요. 그런데 여친이 제 모든 걸 다 이해해도 맥심 만은 이해 못하겠다 합니다. 맥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파혼할 거래요. 전에도 이 문제로 여러 번 다퉜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맥심을 2002년 11월 창간호부터 2023년 최신호까지 단 한 권도 빠트림 없이 모을 정도로 애정이 깊습니다. 오랫동안 맥심은 제게 교양과 지식의 보고 역할을 했고, 군대와

READER'S LETTER

맥심 233호
미스맥심 김세화

직장에서 얻은 피로와 외로움을 달래주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풍납동키아누리브스 [VIP독자]

에디터 김한솔: 최대한 많이 대화 나눠보세요. 비단 맥심 뿐 아니라, 연예인 팬질이든, 낚시 같은 취미든 이런 문제는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편집장 이영비: 여친은 야한 모델 사진을 남친이 보는게 싫고, 독자님 정도면 아마 맥심을 모델 사진이나 보려고 읽는 게 아닐 겁니다. 왜 이걸 읽는지 잘 말해보세요. 맥심을 본 적은 없는데 들은 얘기 만으로 부정적 편견을 가진 분들 많아요. 그걸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여기 실린 좋은 글 중 여친도 좋아할 내용을 골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에디터 윤정도: 이제 앱으로 갈아타실 때가 됐군요! 그간 모은 맥심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마음 감사하지만 아내될 분만큼이야 소중하겠습니까~ 맥심 때문에 불화를 겪지 말고 처분하세요.

Q. 33살 남성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13살 때부터 사귄 여친이랑 13년을 사귀었고 26살에 병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여자친구를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고자인지 모르겠지만 이성을 보면 흥미가 없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은 먼저 간 여친 생각 때문이라는데 이러다가 박중우, 채희진 에디터처럼 평생 독수공방해야 할 것 같은데 이성에게 다시 흥미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김대웅[APP사연 *804]

에디터 박중우: 갑자기 뭐지ㅋ 너 싸움 잘하냐

에디터 채희진: 저 여자 만나요. 저희 집 청소기 여자 머리카락으로 가득해요. 심지어 박중우는 여친도 되게 예뻐요. 자, 이제 정신이 좀 드시나요? 흥미가 생기냐고?

편집장 이영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되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위로 같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살다보니 그렇더라고요. 옆에 없음 죽을 것 같아도 다 살아지고 그럽디다. 힘내고, 7년 수절했으면... 거의 막힌 하수구 수준이겠네. 일단 연락처 줘봐요. 연상 괜찮은가?

미스맥심 김나정: 이성에게 흥미가 없는데 맥심을 본다라... 열심히 도와드리곤 있습니다. 치료 의지가 굳건하시니 1년 더 처방해드리죠.

독자 사연 응모

*맥심홈페이지 [독자사연 게시판] 또는 맥심앱 [독자 사연 응모]를 클릭하셔서 바로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실린 독자 모두에게 증정!

이달의 독자 사연 선물

사연이 잡지에 실린 독자 모두에게 그달 맥심이 엄선한 상품을 배송한다!

*선물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M°C
ULTRA SOOBOON MIST

➔ 엠도씨 울트라 수분 미스트
수분 미스트는 건조한 겨울에나 쓴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라. 촉촉한 오빠 피부는 꾸준한 관리에서 나오는 법. 무심한 듯 수분 미스트 하나로 주름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까지 은근슬쩍 같이 누리기 바란다.

맥심의 전역 인증 1년 무료 구독 혜택

현역 군 간부까지 확대

"당신의 복무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 중인 한 독자가 맥심에 사연을 보냈다. 요지는 '왜 병사만 혜택을 주느냐, 더 오래 복무하는 간부에게도 달라!'는 것. 그래서 당장 시작한다. 이제 임관한 지 18개월 넘은 부사관 및 장교도 무료 구독의 혜택을 누린다!

- **신청 자격:** 임관한 지 18개월 이상 된 현역 군 간부
- **혜택:** 1년 무료 구독 + 2년째부터 평생 40% 할인
- **신청 방법:** 임관 사령장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접수처:** 맥심 홈페이지(maximkorea.net) 메뉴 '게시판(BOARD)' ▶ '전역인증'에서 신청서 작성

ILLUSTRATION 이승훈

김성모 화백의 근성 상담소

혈맹들의 고민에는 역시 효과 빠른 만병통치약! 근성이 답이다!

BY **근신**(근성의 신) **김성모**

Q. 다시 돌아온 자위하는 선생님입니다 ㅋㅋ 섹파 동친이들과는 바이바이 하고 다시 밤에 자위하는 여자로 컴백이요. 근데 홍콩까진 못 가네요. 손가락 스킬이 부족한가 봐요. 침대에서 뜨거워진 제 몸을 느껴 보고 싶은데, 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혼자서 하려니까 손 스킬이 조금 달리는 듯... (박선영)

모든 인간의 욕망은 다 똑같은 법이다! 남자인 내가 설명하기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손가락 스킬이 부족한 것보다도, 섹스는 원래 육체가 아닌 뇌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조금 더 집중해서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해봐라!

Q. 올해 고3.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공부하기도 싫고. 휴... 수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학벌 낮으면 살아가면서 불이익 있을까 봐 불안해서 그러지도 못함. 이런 이유로 재수 결심하면 백퍼 망하겠죠? 학벌 낮으면 살아가면서 어떤 불이익 있을는지, 이런 생각만 함. 나 공부 좀 하게 학벌 낮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줘요. 형님! (SKY)

내 학창 시절 때만 하더라도 대학 못 가면 사회에서 거의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았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학벌이나 성적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걱정하지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내 목표를 확실히 정해둬서 그랬던 것 같다! 그러니 너도 불이익을 먼저 따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오래 살아보니... 학벌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

Q.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아기 보는 게 무척 힘드네요. 그래도 마누라랑 사랑은 나누고 싶습니다. 마누라는 첫째도 이리 힘든데... 라면서 눈치 줍니다. 여보!!! 나는 아직 사랑이 고프다! (임대민)

눈치고 뭐고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너의 사랑을 폭발적으로 보여줘라! 지금 첫째한테 연년생 동생도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살면 좋지, 뭘.

Q. 언제쯤 군대라는 주제로 여자랑 얘기할 때 쿨해질 수 있을까? 미쳐버릴 거 같음. 그냥 여자가 "야 군대나 다시 가 ㅋㅋ" 이런 드립 쳐도 존나 쿨하게 "미쳤냐? ㅋㅋ" 하면서 넘기고 싶음. 근데 군대에서 너무 고생하고 와서 아직도 피해의식이 심함. 속으로 내가 여자였으면 시발... 하면서 1년 반 있다가 나와서 그런지, 여자애들이 군대를 '남자니까 수행하는 벌칙'이라는 식으로 존나 가볍게 여기면 오만 정이 확 떨어지고 싸우고 싶을 정돈데 찌질해 보일까 봐 걍 대화를 회피하기 시작함. 여자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쿨하게 넘기기가 너무 어렵다... (남자라서죄송합니다)

소위 '라떼'에는 그런 일이 더더욱 많았었다! 군대도 안 다녀온 계집애가, 같은 말로 시작해서 술자리에서 격전장(?)도 심심치 않게 생겼는데 대부분 좋게 마무리되곤 했다. 서로 남자와 여자라는 태생적 한계를 서로 이해해주었기 때문이다! 남자만 군대 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평생 남자와 다르게 고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가 진정한 사나이라면 넓은 마음으로 남자답게 웃고 넘어가도록!

Q.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회사에서도 여자가 담배 피운다고 돌려서 뭐라 하는 사람 있고... 길 한쪽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모두 훈수 두고 가요. 여자는 담배 피우면 몸 상한다고. 근데 그건 남자도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들은 말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건 여자 흡연자 모두를 싸잡아서, 담배 피우는 여자 = 몸 파는 사람인 것처럼 쉬운 여자 취급하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비흡연자한테 피해준 적도 없고, 흡연구역에서 피거나 구석에 숨어서 피우거든요. 점심시간같이 사람 많을 땐 피우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 있으면 괜히 여자라고 인식 안 좋아질까 봐... 내가 내 돈 주고 피우겠다는데, 훈수질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하면 제 속이 좀 시원해질까요? (스니커즈)

사실 나 또한 같은 흡연자로서 그딴 말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누가 요즘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방식으로 훈수질을 하냐? 그리고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건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실이다. 세상에 더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훈수질하는 인간들은 신경 쓰지 말고 당당히 흡연해라!!!

김성모 PICK!
이달의 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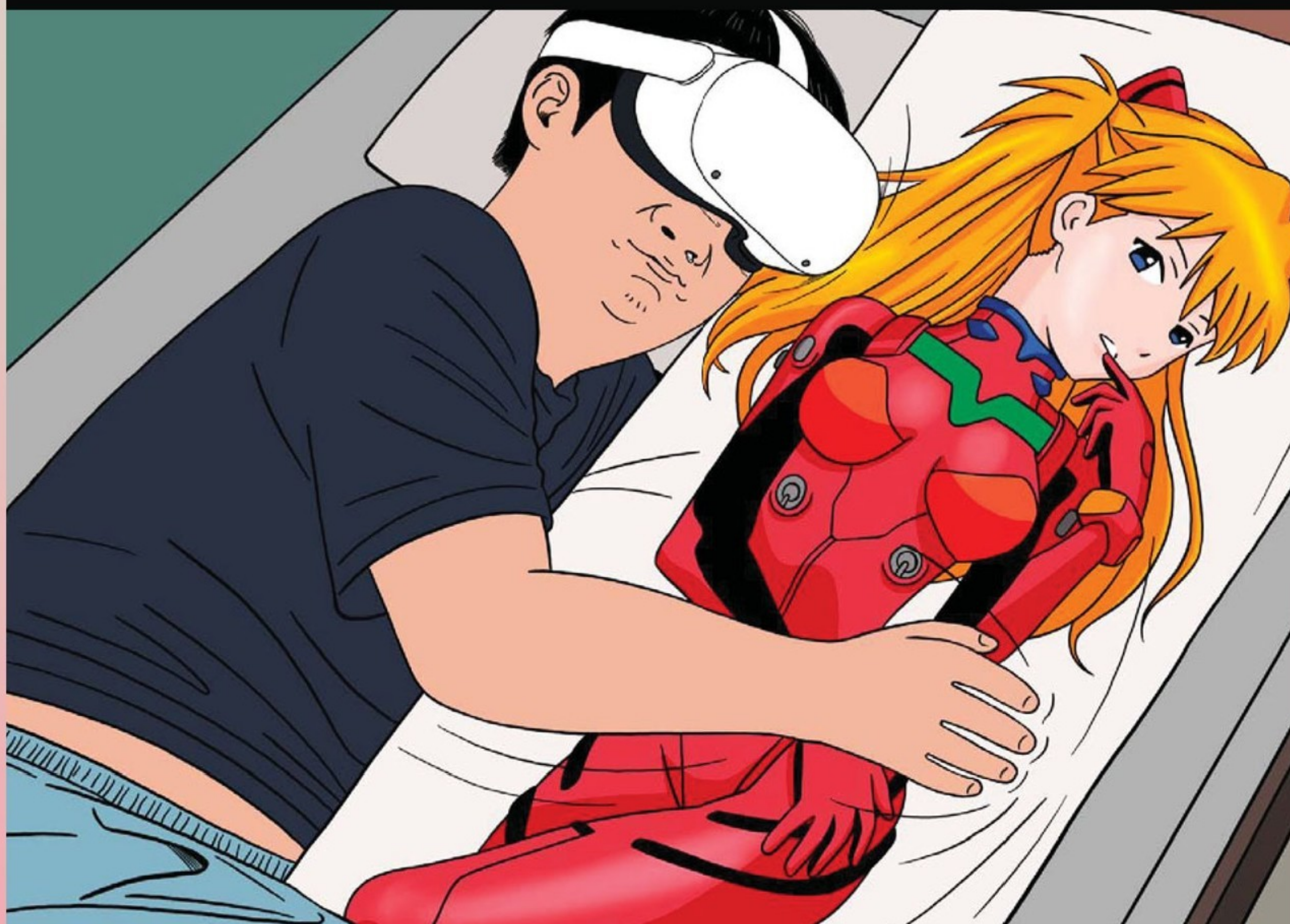
2D에 꼴리는 나, **정상인가요?**

Q. 전 만화책 읽을 때마다 꼴리는 여캐가 꼭 1명씩은 있더라고요. 제가 뭐 성인 만화를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만화책 보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근래에 들어서는 〈하이큐〉의 사에코라는 큰 가슴을 가진 기센 누나 (간간이 나옴)를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고추도 커져서 공공장소에서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정력도 오르는지 짱어나 추어탕 같은 스테미나 음식도 땡깁니다. 어젠 홈X러스 가서 짱어 2kg 짜리 세일하길래 혼자 왕창 꾸워 먹고, 사에코 누나와 상상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 여자들은 하나같이 못생긴 데다가 이기적인 애들이 태반같이 느껴지고... 현실 속 여자들한테 관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런 저, 정상인 건가요? (정상인듯정상아닌나)

당연히 정상이지! 남자들은 누구나 혈기 왕성할 때 2D에 꼴리든 3D에 꼴리든 한 번씩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물론 대부분 주제는 섹스 아니면 여자다(다만 현실에선 절대 이룰 수 없는 이성에 대한 로망을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화 속 인물과 실제 여성들이 다르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이큐〉의 사에코라고 했냐? 언제든지 마음껏 너의 현실도피처인 상상 속에서(만) 마음껏 유린하고 즐기길 바란다! 너의 피 끓는 청춘을 응원한다!!! 김성모

반응없는 무표정 그녀지만,
일단은 푹신한 제 여친입니다만?

엄마, 나 여친 생겼어. 아스카, 인사해. 우리 엄마야.

BY **일러스트레이터 이승훈**

내가 만든 A.I 모델, 맥심에 데뷔시키자!

MAXIM A.I MODEL CONTEST

OPEN 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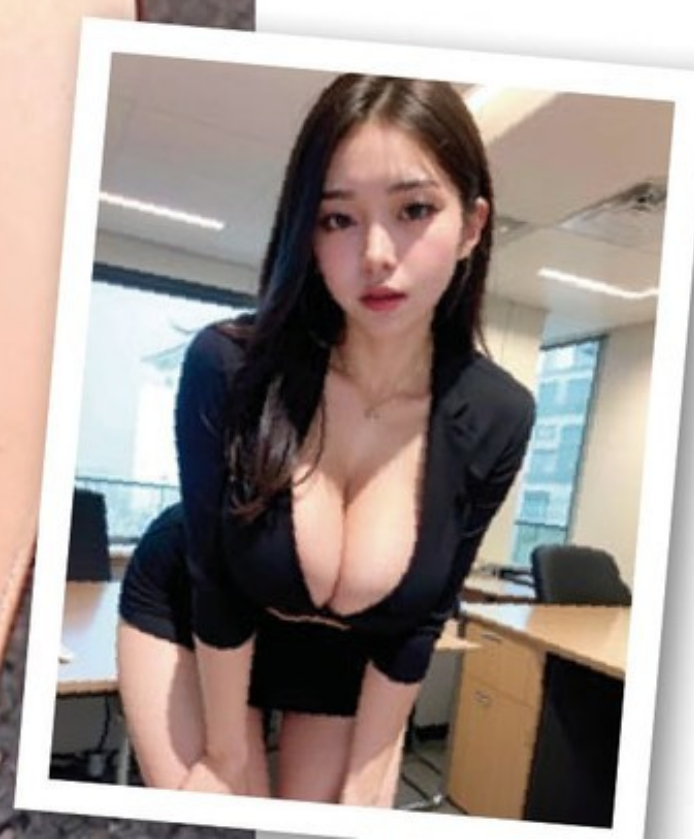
맥심에도 A.I 미녀가 몰려온다!

혹자는 A.I 기술이 미스맥심의 설 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실존하는 현실 미녀의 존재 가치가 아직은 굳건하다고 말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맥심이 '**A.I 맥심 모델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맥심 홈페이지에서 최다 추천을 받는 A.I 미녀는 맥심 9월호에 가상 인터뷰와 함께 실리며, 상금 100만 원을 가져간다. 내 손안에서 탄생한 A.I 모델을 맥심에 데뷔시키자! 지금 바로 도전.

A.I 맥심 모델 사생대회

- **참가 방법:**
  A.I 드로잉 툴로 본인이 직접 만든 캐릭터 이미지를 **맥심 홈페이지(maximkorea.net)** ▶ **'A.I 모델 게시판'**에 업로드. 자세한 방법은 곧 열릴 'A.I 모델 게시판' 참조.

- **게시판 오픈일:** 2023년 6월 27일
- **최다 추천 특전:** 맥심 9월호 게재 + 상금 100만 원
- **추천 순위 2~10위:** 상품 증정
- **최종 순위 발표:** 2023년 8월 12일

드루와 드루와

현실 도피의 심리학 : 라이선싱 효과

갈 땐 가더라도(현실), 담배 한 대(보상) 정도는 괜찮잖아?

BY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권상집**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칭했다. 인간은 대부분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철학자만의 생각도 아니다. 경제학의 메인 주류인 시장주의자들은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사고하기에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규정한 철학자, 그리고 시장주의 경제학자에 의하면 우리는 결코 현실 도피를 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현실 도피가 부르는 또 다른 세계

영화 〈범죄도시3〉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독자들이 맥심 7월호를 읽을 때면 1,000만 관객을 넘어섰을지 모르겠다. 이러한 영화가 열풍을 일으키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통쾌하고 유쾌하다'라는 것이다. 덕분에 1편에서 2편, 3편으로 갈수록 주인공은 현실을 넘어선 슈퍼 히어로의 모습으로 자꾸만 진화해 간다.

영화 속에서 마석도 형사는 야구방망이에 맞아 쓰러져도 벌떡 일어서고, 차에 부딪혀도 잠시 주춤할 뿐 이내 회복한다. 능숙하게 장검을 휘두르는 빌런의 칼춤 솜씨 또한 마석도 형사에겐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자타공인 국내 최정상급 파이터였던 김동현과 정찬성에 의하면 상대가 칼을 들고 덤비면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게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범죄도시3〉는 답답한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더불어 극악무도한 빌런에게 통쾌한 복수하길 원하는 대중의 심리가 담겨 있다. 이 영화 하나만의 얘기도 아니다. 올해 상반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드라마 〈모범택시2〉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택시 기사의 사적 복수 대행 행위는 현실을 가볍게 벗어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관심경제의 끝판은 늘 '유니버스(universe)'로 귀결된다고 얘기한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을 초월하는 이야기, 가상의 세계관에 몰입하며 아낌없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 현실은 이미 비현실에 열광한다.

현실 도피의 심리, 라이선싱 효과 (Licensing effect)

현실 도피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동일까? 아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다수는 모두 현실 도피를 선호한다. 누군가는 게임이나 가상현실에 빠지고, 누군가는 인터넷 BJ에 빠져들고, 누군가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다. 영화, 드라마, 가수, 아이돌 팬덤 또한 현실 도피 심리가 초래한 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째서 일탈하고 싶어할까? 이와 관련하여 2006년 마이애미 대학의 칸(Khan) 교수가 마케팅 학술지에 '라이선싱 효과'라는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한다. 그녀에 의하면 사람들은 기부 및 봉사와 같은 도덕적 행위를 하고 나서 사치품 구매, 비 계획적 구매 등의 일탈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얘기한다.

어떤 목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잠깐 틈을 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권(라이선스)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쉽게 말해 어떤 일을 완수한 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라이선싱 효과의 일환이다. 몇 시간 동안 공부한 학생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경우, 피곤한 훈련을 마친 후 군인이 맥심을 펼쳐 모델들의 사진을 감상하는 경우, 힘들게 알바하며 얻어낸 소중한 알바비로 값비싼 BTS 콘서트를 가는 경우 모두 라이선싱 효과의 대표적 사례다.

그러므로 현실 도피를 하는 사람들의 행위, 그 심리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다. 현실에서 지쳐버린 나에게 잠깐 현실 밖에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에게 일탈할 자격을 부여하는 게 무슨 잘못이겠는가? 문제라면 이를 간파해서 소비자와 대중을 안 좋은 길로 유도하는 일부 상술의 적극적인 현혹 미끼에 있다.

텍사스 A&M 대학의 윌콕스(Wilconx) 교수는 2009년 라이선싱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를 논문으로 발표, 화제를 모았다. 해당 실험에선 메뉴판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1가지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다른 메뉴의 판매가 더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실험 결과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3가지 음식(건강에 해로운 감자튀김,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치킨 너깃, 해롭지 않은 구운 감자)에 별도의 사이드 메뉴로 샐러드를 추가해둘 경우 소비자들은 건강에 가장 해롭다고 알려진 감자튀김을 쉽게 선택한다는 점을 결과로 제시했다. 샐러드라는 긍정적인 미끼가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면죄부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윌콕스 교수는 현실 도피를 이렇게 설명한다. 열심히 지낸 이가 자발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영화, 드라마, 공연 관람에 몰입하는 현실 도피는 괜찮다. 그러나 누군가가 긍정의 미끼를 투척한 후 잘못된 길로 유혹한다면(마약, 이단 종교 등) 절대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유형의 현실 도피는 때로는 더 지옥 같은 현실을 초래한다.

>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 자신에게 일탈 허가권을 부여한다.
>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 **바로 라이선싱 효과다.**

현실 도피에 깊이 빠져드는 인간의 유형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라는 것이다. 즉, 아무리 흔한 현실 도피 행위라도 적당히 빠져들어야 한다. 지나친 현실 도피는 피하고 싶었던 현실보다 더 지독한 현실을 부르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취약한지, 또 어떤 사람들이 현실 도피에 더 쉽게 빠져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11년 국내 학술지에 실린 〈소비자의 심리적 일탈〉이라는 논문을 함께 살펴보자.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연구팀은 대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라이선싱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험하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다. 첫째는 특정 과업, 즉 자기 계발을 위한 학습이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등 노력의 강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라이선싱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노력의 강도가 높으나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 즉 자기 통제력이 약한 사람들이 현실 속 일탈행위에 대한 욕구가 컸다. 반대로 노력의 강도가 낮지만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 역시 일탈행위에 대한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노력의 강도와 자기 통제력이 모두 높아야 현혹을 피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결국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처리한 한 뒤에는 현실 도피를 추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르지 못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면 굳이 이를 억제하거나 통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과업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고 자기 통제력까지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실에서 도피하자는 누군가의 달콤한 귓속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유불급, '적당한' 현실 도피를 취하라!

학술연구에 의하면 열심히 현생을 살아낸 사람일수록 적극적으로 일탈을 추구한다. 현실에만 집중하라는 꼰대 같은 조언은 필요 없다. 학계에서도 적당한 현실 도피를 권장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영화, 드라마 등에서 활용하던 도피성 현실이 이젠 기업들의 각종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유해한 유니버스로 손짓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현실 도피에 주의하자.

지치고 지겨운 일상은 우리에게 권태라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투척한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구분할 것 없이, 누구나 한 번은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 않겠는가. 본격적인 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권태로운 현실에서 잠시 눈을 돌려,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멋진 휴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PHOTOGRAPH BY ZINHO MODEL 미스맥심 이소윤 LAYOUT 전수진

궁극의 현실 도피처

혹시 여기가 이세계로 가는 입구 아닐까? 현실 도피를 꿈꾸는 자여, 세상과 단절된 기분을 만끽하라! BY **채희진**

탄자니아 만타 리조트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동부 펨바섬에 위치한 만타 리조트. 여러 방 중에서 단연 원톱은 수중 룸. 3층 구조로 바다 한가운데에 섬처럼 떠 있다. 태닝 침대가 놓인 옥상, 욕실을 비롯한 거실 공간이 갖춰진 1층, 그 아래 물속 방은 침실이다. 이 완벽한 현실 도피처를 이용하려면 1박에 한화 약 230~29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최소 3박은 필수다. 태풍 오면 현실은커녕 인생이 단절될 수 있겠는데?

스위스 빌트키르힐리 에쉐 게스트하우스

해발 1,454m 절벽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워낙 험준한 산지에 있는 탓에 5~11월까지만 개장한다. 태초에 곰과 원시인, 도망자들이 지냈다는 숨숨 동굴도 있다. 입지만 봐도 현실 도피처로 손색없는 곳이지만, 진짜배기는 1박에 약 100만 원 정도 하는 숙박 프로그램이다. 이름하여 암벽 취침 코스. 독수리 둥지라 불리는 지붕 없고, 벽도 없는 절벽에서 침대를 걸고 하루를 보내는 거다. 똥, 오줌은… 그냥 막 싸지르면 되나?

오스트리아 다스 파크 호텔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으로 도피할 곳을 찾는다면 콘크리트 하수관을 활용한 이 호텔이 제격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세 지역에 설치된 룸들은 투박한 외관과 달리 더블 침대가 설치돼 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가격이다. 기부 형태라 자유롭게 지불하면 된다. 단, 선 예약제라 불금에 모텔방 잡는 것만큼 빡셀 수 있다. 룸서비스는 기대하지 말 것. 화장실, 샤워실도 외부에 따로 있다. 취객이 건물 외벽에 오줌이나 안 싸면 다행이겠다.

캐나다 세인틀로 오타와 제일 호스텔

현실 도피를 위해 사회와 단절된 감옥행은 어떨까? 진짜 죄 짓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캐나다에는 약 15만 원이면 하루를 독방에서 지내볼 수 있는 감옥 숙소가 있으니까. 체크인할 때 '감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반긴다는 이 호스텔은 실제로 1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감옥이었다. 그 시절의 형태와 구조를 비롯해 돌담, 철문 같은 요소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지하실에는 공개 교수형에 사용되었던 교수대까지 있다. 주차장 공사할 때는 시신 140구가 발견됐다는데… 나만 열심히 살고 싶어지나?

LAYOUT 전수진

➔ 스웨덴 살라 실버 마인 호텔

지하 155m 깊이에 위치한 호텔. 깊은 곳에 짱박혀 있어서 휴대폰도 안 터진다. 이곳은 15세기부터 지역 경제 중심 역할을 했던 은 광산이었지만, 1908년 채광이 중단되며 지금의 호텔로 변신했다. 아쉽게도 현재 지하 숙박은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인근 건물에서만 잘 수 있다. 아직 땅속에는 호텔 방이 있다고 하니 진짜 현실 도피를 원한다면 잠입 고고.

➔ 칠레 매직 마운틴 호텔

엘프가 튀어나와 사주경계할 것 같은 이곳은 안데스산맥 남부의 마법의 산이란 이름을 가진 호텔이다. 총 13개의 룸이 있고, 방 안에 들어서면 대자연과 하나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대자연에 들어선 만큼 각종 벌레의 기습도 인내해야 한다. 지붕에서는 캐리비안 베이 해골바가지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폭포가 흘러내린다. 공짜 워터파크 개꿀!

➔ 케냐 로이사바 호텔

로이사바는 케냐 북부 라이키피아에서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각종 캠페인을 펼치는 단체다. 캠핑장과 호텔도 몇 개 운영 중인데, 그중 현실 도피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로이사바 스타 베드룸이 있다. 사방이 뻥 뚫린 방에 침대만 달랑 있어서 도피인지 낙오된 건지 헷갈리지만. 하루 묵는데 약 150만 원이다. 그냥 사무실에서 쪽잠 자고 말지, 퉷!

➔ 프랑스 아뜨라프레브 버블 호텔

프랑스 건축 디자이너 피에르 스테판 뒤마가 설계한 버블 텐트로 구성된 호텔이다. 양평 빠지에서 타고 노는 투명 볼이랑 뭐가 다르냐고? 일단 안에 킹 사이즈 침대가 놓여있다. 평범한 비닐 천막 같지만 자외선 차단도 되고, 화재 방지 소재로 설계됐다. 하루 숙박료가 약 700만 원으로 좀 깡패 같긴 하다. 프랑스까지 여행 가서 이딴 데 묵는 건 싫은데 궁금은 하다면 하나 사보던가. 설치 가격은 약 1,200만이다. 난 오피스텔 살아서 놓을 곳이 없으니까 패스!

MBTI 현실도피 시나리오 직장인 ver.

INTJ

퇴사 마려운 순간: 무능력한 직장 상사 밑에서 열심히 똥꼬 빨던 입사 동기가 자기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최고의 동료: ISTJ
최악의 동료: ESFJ

입사 첫날부터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재빨리 숙지한다. 얘네가 가만히 있을 땐 몰라서가 아니라 굳이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뜻. 괜히 "INTJ 씨가 모르는 것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라며 조언했다간 영원히 멍청이 취급받을 수 있다.

INTP

퇴사 마려운 순간: 사람들이 자꾸 사내 메신저로 하면 될 말을 굳이 자리까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최고의 동료: ISFJ
최악의 동료: ESFP

회사에서 투명 인간 취급받을수록 편안해할 놈들이다. 얘네한테 손절 당하고 싶으면 월요일에 자리로 찾아가서 "INTP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저 어제 완전 어이없는 일 있었잖아욬ㅋㅋ!!"라고 말하면서 모두의 이목을 끌어보자.

ENTJ

퇴사 마려운 순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
최고의 동료: ENFJ
최악의 동료: ISFJ

얘네 인생에 포기라는 게 있을까?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무능력한 직원을 발견하면 존나게 채찍질해서라도 '이달의 우수 사원'으로 만든 뒤 흐뭇해할 녀석들이다. 회사에 발전 가능성이 보이면 사장보다 더 애사심 갖고 일한다.

ENTP

퇴사 마려운 순간: 출근길에 주식(또는 코인)으로 인생 대박난 청년의 뉴스 기사를 읽다가 '인생은 역시 한 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최고의 동료: ESTP
최악의 동료: ISFP

자신감 빼면 시체다.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지만,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굳게 믿음). 무엇이든 일단 하고 보는 추진력은 있으나 끈기가 부족해서 찔러보고 다니는 만큼 성과를 얻진 못한다.

INFJ

퇴사 마려운 순간: (퇴사하기 전까지) 매일
최고의 동료: INTP
최악의 동료: ESTJ

한 달 간격으로 번아웃이 온다.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어도 옴) 그냥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사람들이랑 점심 먹고, 퇴근 지옥철에 몸 맡기는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오기 때문.

INFP

퇴사 마려운 순간: 사무실에서 물 먹다가 사레 들렸을 때
최고의 동료: ISFJ
최악의 동료: ESTP

늘 현실도피를 꿈꾸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이기 때문. 누구보다 근면 성실해 보이지만, 단지 남들에게 피해 끼치기 싫어서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혼자 있을 땐 누구보다 게으를 자신 있다고!

ENFJ

퇴사 마려운 순간: 내가 가장 잘 챙겨줬던 직장 동료가 어느샌가 나 말고 다른 팀원이랑 더 친하게 지낼 때(심지어 주말에 둘이서 놀러 간 사실을 인스타로 알게 됨)
최고의 동료: ISFP
최악의 동료: ISTJ

이들에게 직장 만족도를 결정하는 1순위는 직장 동료다. 신입 사원이 보기에 회사 NPC 같은 사람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ENFJ임.

ENFP

퇴사 마려운 순간: <생생정보통>에 월 매출 3천 찍는 카페 청년 사장을 보고 '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
최고의 동료: ESFP
최악의 동료: ISTP

'만약 내가 OO가 된다면?'으로 망상하는 게 취미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청년 CEO가 되어 마침내 업계 1위의 성공 신화까지 써줘야 현실로 복귀할 수 있다.

365일 퇴사를 꿈꾸는 직장인(에디터 포함)들의
MBTI 유형별 '회사' 도피 시나리오! BY **배주영**

ISTJ

퇴사 마려운 순간: 옆자리 직원이 맨날 자기 물건 빌려 쓰고, 먼저 물어보기 전까지 안 돌려줄 때
최고의 동료: ISFJ
최악의 동료: ENFJ

시키는 대로 하기 전문이다. 출근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업무를 체크한다(근데 얘네 머릿속에 진작 다 입력되어 있었음). 만약 회사에서 잘 모르는 일이 생겼다면 얘네들한테 물어봐라. 네가 듣고 싶은 '정답'만 딱 알려줄 거니까.

ISFJ

퇴사 마려운 순간: 직장 상사라서 비위 맞춰줬을 뿐인데, 내 앞에서만 눈치 안 보고 싫은 소리 할 때
최고의 동료: INFJ
최악의 동료: ENTJ

사회생활 잘한다는 얘길 많이 듣는 유형이다. 정해진 대로 따르는 걸 좋아하는 데다가 융통성까지 있기 때문. 만약 이들 말에 영혼이 사라졌을 경우, 싸우기 싫어서 한발 물러나 있는 것이니 괜히 심기 건드리지 말고 냅둬라.

ESTJ

퇴사 마려운 순간: 사람들이(회의 시간에) 어제 본 연애 예능 프로 얘기하면서 과몰입하고 있을 때
최고의 동료: ISFJ
최악의 동료: ISTP

애인한테 차여도 다음 날 멀쩡하게 출근할 놈들이다. 감정이 행동에 드러나는 걸 극혐하거든. 일 못 하는 동료를 발견하면 독려보단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라고 잔소리한다. 근데 정작 상대방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주진 않음...

ESFJ

퇴사 마려운 순간: 이미 입사하기 전부터 이 무렵에 퇴사하려고 다 계획 짜 둠
최고의 동료: INTP
최악의 동료: ESTP

회사 생활에 현타 올 때마다 퇴사 후 떠나기로 다짐했던 여행지를 떠올리며 버틴다. 이들은 입사 전부터 언제 퇴사할지, 그 다음엔 뭐하면서 쉴지, 이직은 언제쯤 할지 등에 대한 플랜을 대충 다 짜놔서 충동적으로 퇴사할 일은 거의 없다.

ISTP

퇴사 마려운 순간: 직장 상사가 말끝마다 교회 다니라며 전도하고 다닐 때
최고의 동료: INTJ
최악의 동료: ESTJ

직장 내에서 이 양반 싫어하는 사람 찾기 힘들걸?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다. 무관심이 디폴트거든. 매사 힘들고 귀찮지만, 그걸로 스트레스받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현실에 빠르게 순응하곤 한다.

ISFP

퇴사 마려운 순간: 친한 직장 동료들이 다 퇴사하는 분위기일 때
최고의 동료: INFP
최악의 동료: INTP

누가 봐도 착하지만, 정작 남한테 맞추느라 자기 의견은 없다. "너 좀 답답하다", "줏대 없어 보인다"라는 말을 들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 잠적해 버린다. 만약 얘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연차를 쓸 경우 어디서 상처받고 왔을 확률 99%.

ESTP

퇴사 마려운 순간: 그냥 노잼일 때
최고의 동료: ENTP
최악의 동료: INFJ

뭐 하는 덴지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시시해지면 바로 나간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면서 지금 당장 꼴리는 걸 못 하면 미쳐버리는 놈들이거든. 궁금한 게 생기면 찍먹이라도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으로, 남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얘네는 행동부터 한 다음에 생각한다.

ESFP

퇴사 마려운 순간: 회사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자기 할 일만 할 때
최고의 동료: ESFJ
최악의 동료: INTJ

"우리 옆 부서 OO 대리, 어제 소개팅했다며?" 같은 말을 달고 사는 타입이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뚫고 있기 때문. 혹시 다른 층 여직원에게 관심이 생겼다면 얘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걸 추천한다.

현실 초월 사랑꾼 총집합

당신의 X는 인간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해 초월적인 사랑을 실현한 세기의 사랑꾼들. 〈환승 연애〉 제작진이 이 기사를 좋아합니다. BY **채희진**

반할 수밖에 없는 뇌섹남의 비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레인 고든. 그녀의 남편은 서류 가방이다. 그들(?)의 첫 만남은 201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품 구매차 철물점에 방문한 레인. 그곳에서 가방을 마주친 그녀는 첫인상을 이렇게 회상했다. "처음에는 그저 '멋진 외모구나'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레인은 가방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잠도 못 이룰 정도였다고. 이후 가방을 구매해 연애를 시작했고, 그에게 '기디언'이란 애칭까지 붙여줬다. 주변의 반대 속에서도 레인은 2020년 세기의 결혼식에 골인한다. 첫날밤에는 꼭 껴안고 키스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단다. 그녀는 남편의 가장 큰 매력으로 철학적인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을 뽑았다. 솔로들이여 철학책을 읽자. 주둥이도 없는 가방에게 질 수 없잖아?

남의 여자를 빼앗은 비결? 포근해야지!

영국에서 활동하던 예술가 파스칼 셀릭은 2019년 밸런타인데이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동시에 결혼식 드레스 코드도 공개했다. 잠옷에 슬리퍼 등 침실 복장일 것. 사람들은 그녀가 오랫동안 만나온 남자친구 조니와 드디어 결실을 본다는 사실에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결혼식에 등장한 건 그가 아니었다. 바로 이불이었다. 전 연인이던 조니 역시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하며 결혼식에 참석했다. 파스칼은 이후 인터뷰에서 그의 성적 매력보다는 편안함과 포근함에 끌려 첫눈에 반했다고 밝혔다. 역시 사랑받는 이불... 아니, 남자가 되려면 포근해야 하는 건가.

역대급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사랑꾼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고 했다. 영국 리즈에 살던 아만다 리버티도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서른다섯이었던 그녀의 결혼 상대는 무려 57살 연상인 독일 출신 루미에르였으니까. 두 사람은 웹사이트인 이베이에서 처음 만났다. 먼저 반한 것은 아만다였다. 그의 몸매에 1차, 뿜어내는 에너지에 2차로 반하게 되었다고. 이베이에서 몸짱 남자도 판매하냐고? 사람이 아니다. 샹들리에다. 아만다는 한화 약 65만 원을 지불하고 샹들리에와 연애를 시작한 끝에 결혼식까지 올렸다. 물론 결혼반지도 맞췄다. 그녀는 식 당일 그가 가장 돋보이도록 매일 밤 광택을 내주기까지 했다고. 이 둘의 빛나는 결혼 소식을 듣고 눈물을 훔친 이가 있으니, 구남친 자유의 여신상이다. 거리가 멀어져 차버렸... 역시 장거리 연애는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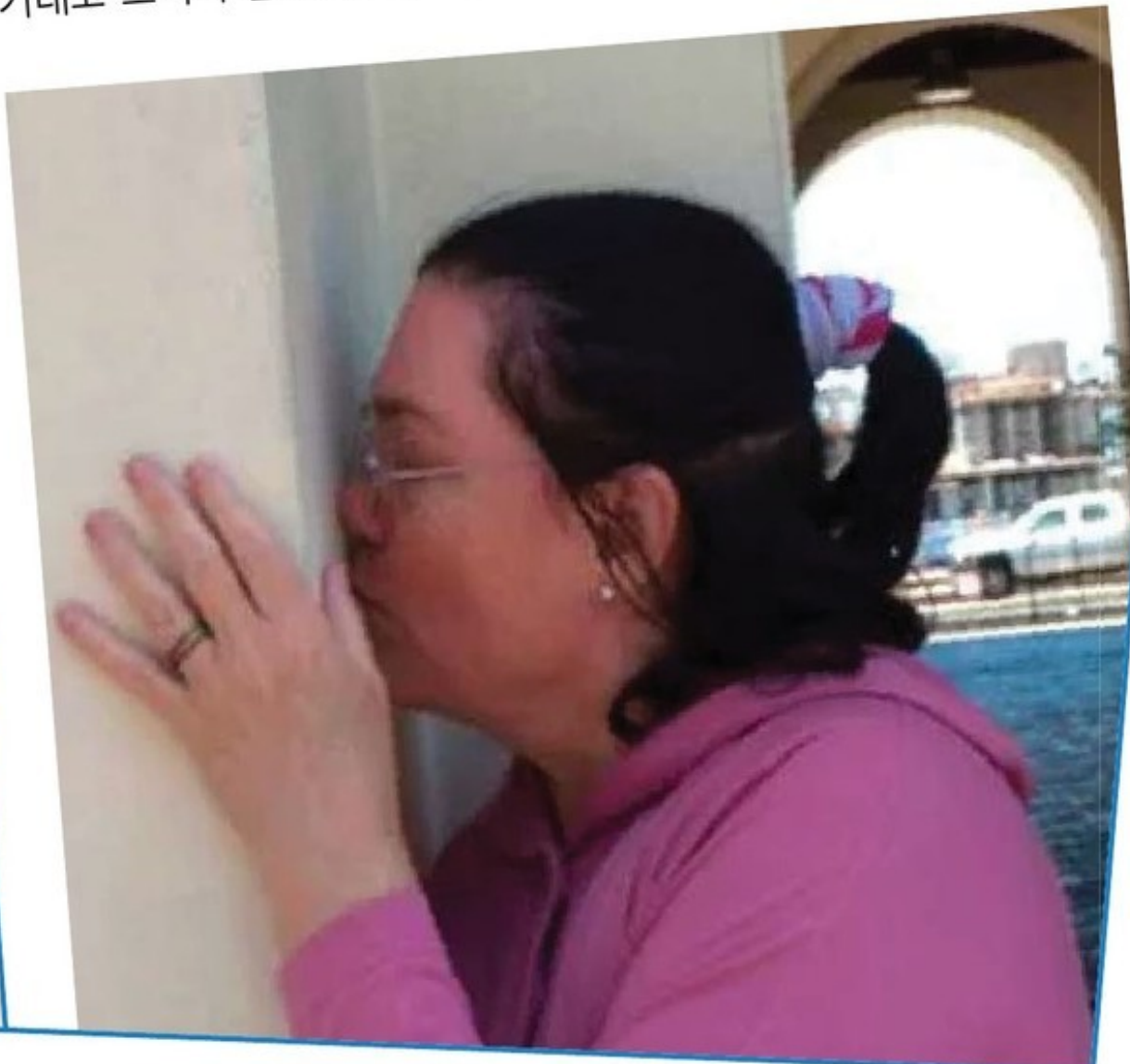
내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해

프랑스 파리의 상징적인 조형물인 에펠탑도 짝이 있었다. 2007년 4월 결혼식을 올렸다는 그(?)의 신부는 에리카 라 뚜르 에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에리카 라프리에는 2004년에 에펠탑을 만난 순간 첫눈에 반했다. 3년 동안 에펠탑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던 에리카는 결혼식을 치르며 남편의 성을 따라 개명까지 했다. 그녀는 결혼 소식과 함께 전 연인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에펠탑에 비교하면 훨씬 작은 체구를 가졌던 구 연인의 이름은 '랜스'였다. 그와 교제하며 양궁 솜씨가 늘어 선수로도 활동하게 됐었다고. 참고로 랜스는 활이었다. 또, 금문교 역시 전 남친이었다나.

사랑받는 남자는 길고 장엄한 법

36년간 사랑한 연인과 결혼에 골인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캐럴 산타페는 아홉 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사랑에 눈을 떴다. 상대는 동네 훈남 오빠도, 친구도, 삼촌 그 누구도 아니었다. 바로 동네에 있는 산타페 기차역이다. 그녀는 45살이 되던 2015년 크리스마스에 긴 연애 끝에 싼타페와 결혼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기차역에 차가운 매력에 반한 것이었을까? 캐럴은 되려 '벽을 만질 때 벽이 나를 안고 키스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라고 전했다. 사랑을 위해 매일 집에서 버스로 45분 떨어진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랑꾼 캐럴. 앞으로 기차역 가서 벽에 함부로 손 집고 기대고 그러지 말자. 남의 짝일 수도 있어 인마!

결혼식이 야외라며? 신혼집도 야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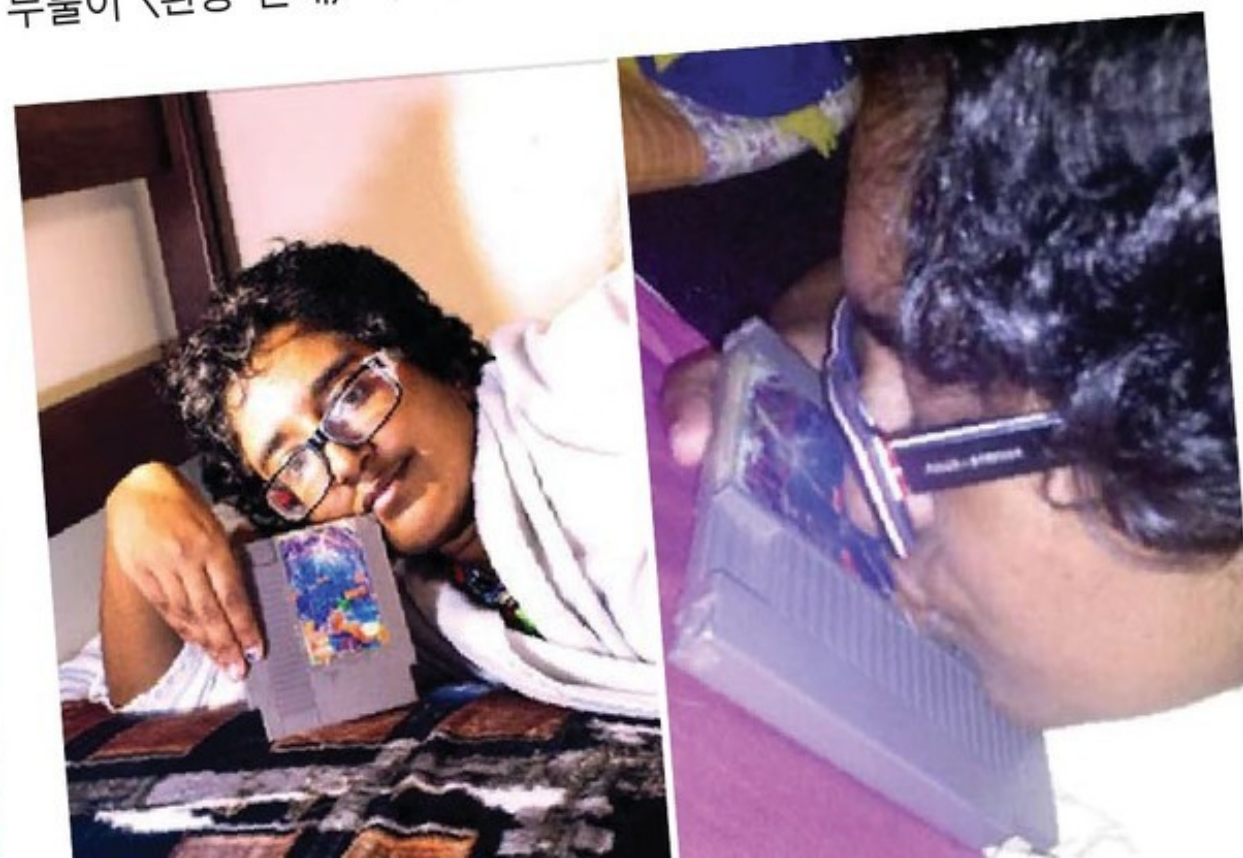
2019년, 영국 림로즈 밸리 컨트리 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이 열렸다. 이날의 신부는 케이트 커닝햄. 그녀의 생애 두 번째 결혼식이었다. 놀랍게도 이 결혼식에는 첫 번째 남편과 함께 두 자녀도 참석을 했다. 그녀가 용기 내어 자신의 이전 가족 앞에서 현재의 사랑을 맹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그녀의 결혼 상대는 나무였다. 이유인즉슨 고속도로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나무가 손상될 것을 우려해 결혼식으로 퍼포먼스를 펼친 것. 하나, 그녀는 나무 이름을 따라서 성을 엘더로 바꿨고, 주 5회 이상 교감하며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고 만다. 나무와 포옹과 키스, 스킨십도 나눈다는데... 나무랑 이혼하면 위자료는 열매로 주려나, 이파리로 주려나?

부서지는 날까지 사랑한 그대

스웨덴 북부 라이덴에 살던 54세 여성 에이야 리타 베를린 마우어의 남편은 사람이 아닌 '베를린 장벽'이다. 참고로 그녀의 이름인 '베를린 마우어'는 스페인어로 베를린 장벽을 의미한다. 1961년, 일곱 살이었던 에이야는 TV에서 처음으로 베를린 장벽을 본 후 사랑에 빠졌다고. 이후 꾸준히 그와 교제하며 추억을 위해 사진까지 모으던 그녀는 1979년에 그와의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얼마 못 가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만 것. 남편의 사별 이후 그녀는 마음에 드는 담장을 찾아 이사 갔으며, 10년 후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 상대는 정원 울타리였다. 에이야는 남편 베를린 장벽의 매력으로 길고 가늘어서 섹시하다는 점을 뽑았다. 만리장성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굵고 거대해 매력있지만 자신의 취향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랑은 역시 끼우는 맛이지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던 누룰 마흐자빈 하산은 2018년, 스무 살의 나이에 결혼을 결심한다. 상대의 이름은 테트리스. 당신이 아는 그 게임 테트리스 맞다. 그녀는 2016년부터 테트리스와 사랑에 빠졌다. 12시간 넘게 게임 아니, 데이트를 즐길 정도로 깊은 사랑이었다. 그 애정이 어찌나 깊은지 테트리스 게임을 담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조각 모양 쿠션으로 애무하는 것까지 즐기게 됐다고. 가족과 지인들의 반대는 여전히 극심하지만 그녀의 꿈은 한결같다. 테트리스와 법적 혼인 신고를 마치고, 미세스 테트리스로 불리는 것. 그녀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에르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고로 피에르는 계산기 이름이다. 하산은 혀로 계산기의 버튼을 핥는 애무를 즐겼다. 누룰이 〈환승 연애〉 나오면 역대급 시청률 찍겠는데?

LAYOUT 진수진

2023학년도 모기 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모기고사

지구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물이라는 모기(a.k.a. 좆기). 무려 1년에 72만 5천 명이나 골로 보낸 모기 새끼를 퇴치하려면, 그 방법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지? BY **배주영**

1.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모기 이름은?

아무 모기나 때려잡으면 안 된다! 인간 대신 자라나는 좆기 새끼들을 잡아 씨를 말리는 착한 모기도 있거든. 한국의 토종 모기이자 국내에 서식하는 모기 중 유일한 익충이라는 이 녀석의 이름은?

① 빨간집모기 ② 서울숲모기
③ 흰줄숲모기 ④ 광릉왕모기

이름만큼 우람한 덩치를 자랑하며 날갯소리마저 웅장하다는 광릉왕모기. 피 많이 빨아먹게 생겼다고 냅다 때려잡으면 후회할걸! 광릉왕모기가 속해있는 왕모기속의 모기 유충들은 다른 모기들의 유충을 잡아먹고 자라거든. 어렸을 땐 사람 피 빨아먹는 좆기 새끼들 싹을 자르고, 다 크면 꽃의 꿀과 수액만 빨아먹는단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기 중 유일무이하게 인간에게 도움 주는 녀석이니 절대 지켜!

정답: ④

2. 후식으로 많이 찾는 이 음료가 모기들한텐 몸에 닿기만 해도 뒤질 정도로 치명적이란다. 과연 이 음료는 뭘까?

① 수정과 ② 커피
③ 녹차 ④ 미숫가루

오늘 밤 모기한테 따먹히기 싫다면 속는 셈 치고 자기 전에 수정과 원샷 때려봐라. 수정과의 주재료인 계피가 모기들한텐 아주 치명적이거든. 심지어 몸에 닿기만 해도 뒤져버릴 정돈데, 계피에 있는 '쿠마린'이란 성분이 독성을 띠고 있어서라고. 다만 인간도 많이 먹으면 간 썩는다니까 무리해서 먹진 말아야겠다. 알코올에 계핏가루를 섞어 모기 퇴치제처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네.

정답: ①

3. 천연 모기 기피제로 쓰일 정도로 모기들이 극도로 싫어한다는 이것. 하지만 인간들 몸엔 슈퍼푸드로 꼽힐 만큼 건강에 좋다는 이 음식은?

① 마늘 ② 토마토
③ 꿀 ④ 양파

토마토에는 천연 모기 기피제 역할을 하는 'IBI246'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게 해충 퇴치제에 쓰이는 'DEET'라는 화학물질만큼 효과적이란다. 집안 곳곳에 토마토 잎을 놔두거나 몸에 토마토즙을 바르기만 해도 모기 퇴치에 도움이 된다고. DEET는 플라스틱을 녹일 만큼 독한 화학 성분이라 간혹 인간에게도 피부 질환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토마토는 그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모기를 무찌를 수 있겠다. 좋았어, 이번 여름은 스페인 토마토 축제로 떠나는 거야!

정답: ②

4. 고양이 키우는 사람에겐 일석이조! 이거 키우면 자연스레 모기도 쫓고, 고양이가 좋다고 뒹구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고양이에겐 마약, 모기에겐 쥐약이라는 이 식물은?

① 스투키　　② 바질

③ 캣닙　　④ 로즈마리

고양이는 좋아서 정신 못 차리고 모기는 싫어서 정신 못 차린다는 이것. 일명 '고양이 마약'이라 불리는 캣닙이다. 미국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캣닙에는 곤충의 자극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네페탈락톤' 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모기퇴치에 효과적이란다. 반면 고양이에게는 네페탈락톤이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비슷한 쾌락을 줘서 캣닙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고. 일단 캣닙보다 고양이를 먼저 키워야겠다!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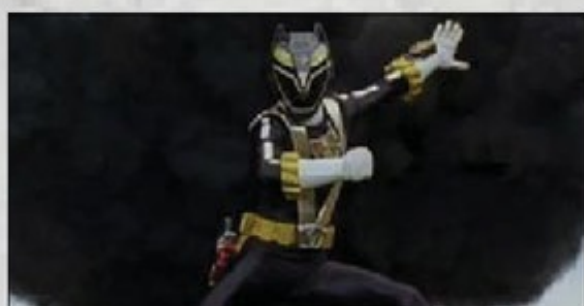
---

5. □□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답은?

> 야행성인 모기. 시력이 나쁜 데다가 눈부신 걸 싫어해서 어두운 곳만 찾아다닌다. 그래서 □□**색** 옷 입은 사람을 만나면 좋아서 눈깔 돌아간다는데... 이번 여름 □□**색**만큼은 피해야겠다!

① 검정　　② 노랑

③ 파랑　　④ 하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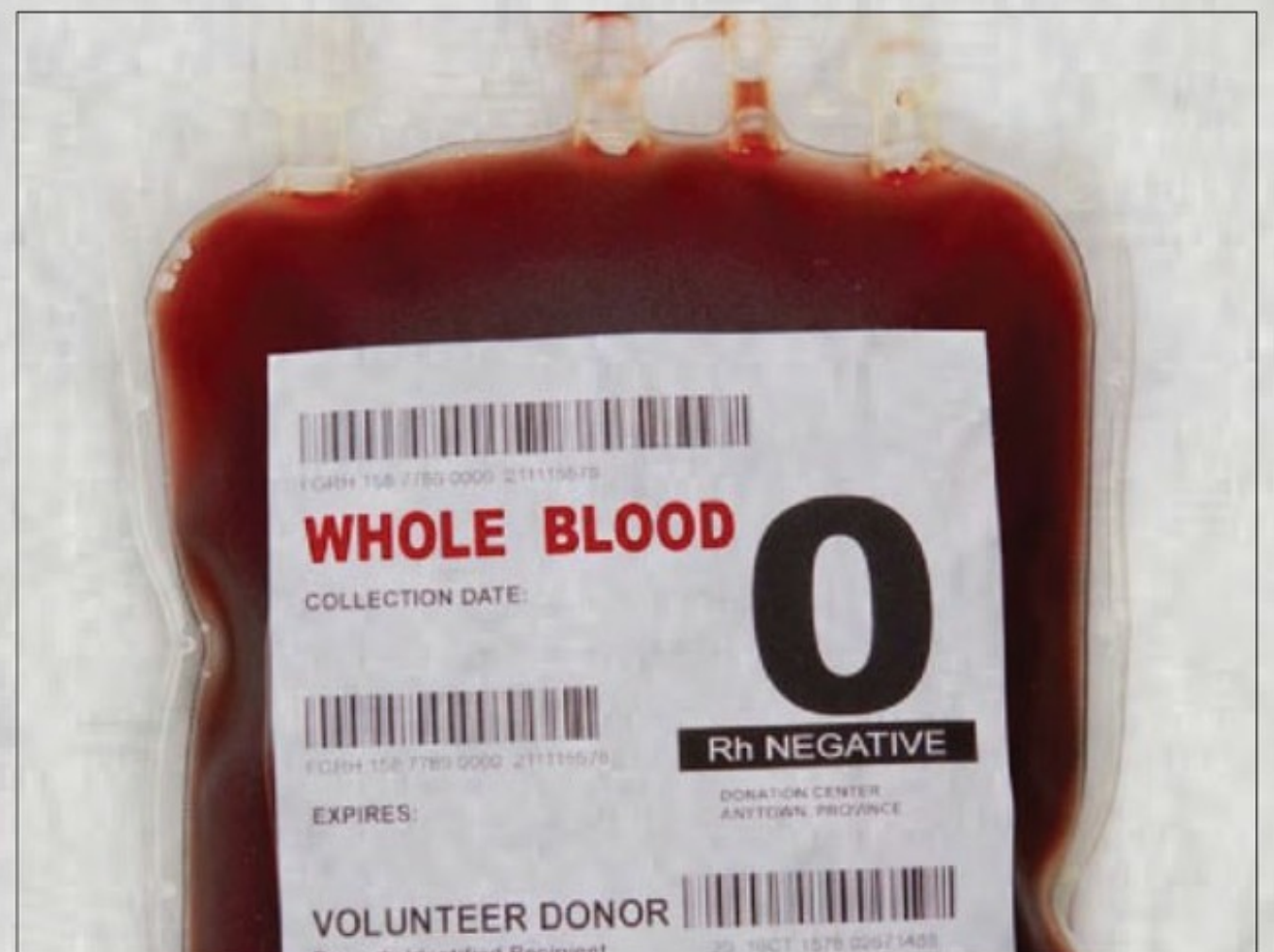
IMAGE 영화 〈매트릭스〉

모기는 눈깔이 장식인 수준이다. 색맹이라 모든 색을 흑백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 데다가, 주위가 갑자기 환해지면 순간 눈이 멀 정도로 빛에 대한 적응력 또한 형편없거든. 얘네가 유독 밤마다 윙윙거리면서 설치는 이유가 있었구나... 암튼 밝은 빛이나 색깔은 전부 흰색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화려한 색의 옷을 입은 사람보단 검은 옷을 입은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쉽다고. OK. 이번 여름은 색동저고리로 나야겠다.

정답: ①

---

6. 늬들이 피 맛을 알아!? 모기들 사이에서 유독 맛있기로 소문난 혈액형의 피가 있단다. 과연 누구의 피일까?

① A형　　② B형

③ O형　　④ AB형

O형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건넨다.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피가 O형 피라는 게 루머가 아니었다. 인간 피 뽑아먹는 주제에 영양성분까지 따지는 좆기 새끼들은 평소엔 꿀이나 이슬을 먹고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동물이나 사람 피를 통해 단백질을 보충한다. 제 새끼 건강하게 낳고 싶은 건 모기도 같은 거지. 피에 영양분인 지방이 많을수록 모기들의 침샘을 자극하는데, 대체로 O형 피에 지방이 많다네? 그래서 다른 혈액형에 비해 O형이 모기한테 뜯기기 쉽단다. 쌍... 어쩐지 사무실에서 맨날 나만 물리더라.

정답: ③

납량특집 여기... 어때?

일상이 지겨워? 지겨우면 죽어야지. 번아웃 싹 고쳐주는 호러 영화 속 휴가지 TOP 10. BY **윤정도**

10

브라질 북동부 해변 IN **〈투리스터스〉**

장점: 풍경이 환상적이고 웃음이 끊이질 않음
단점: 장기매매범이 준 환각제를 먹었네?

브라질의 시골 버스 투어. 하지만 낡은 버스가 고장나는 순간 장기밀매 조직의 타깃이 된다. 현지 청년이 가이드를 자처하기도 하는데, 그를 따라 정글에 들어가면 생존율이 급감한다. 청년도 한 패냐고? 걔도 피해자다. 밀매범들은 국적 안 가리고 꺼내고 보거든.

9

호주 북부 숲속 동굴
IN **〈블랙 워터: 어비스〉**

장점: 계곡물이 마치 바다처럼 넓고 아름다움
단점: 그래서 바다악어가 출몰

탐험가들만 찾는다는 호주의 오지 동굴. 평소엔 대자연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지만, 비가 오면 순식간에 출입로가 사라져버린다. 물이 빠질 때까지 구석에서 존버하면 되긴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인근에 거대 바다악어가 산다는 것... 저게 뭐여? 하는 순간 일행이 한 명씩 사라진다.

8

영국 드빌 가문의 대저택
IN **〈인비테이션〉**

장점: 저택 주인이 아주 젠틀함
단점: 피도 젠틀하게 빨아 마심

족보 있는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프라이빗 파티. 그렇다고 금수저만 있는 건 아니고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다면 겁나 먼 친척에게도 초대장을 준다. 월트라는 엄친아가 저택 주인인데, 알고 보니 여자에 미친 뱀파이어다. 어쩐지 웃는 게 쎄하더라니.

7

호주 호숫가 캠핑 IN **〈킬링 그라운드〉**

장점: 사냥꾼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줌
단점: 인간사냥꾼임

조금만 도심을 벗어나도 인적을 찾을 수 없는 노지가 나오는 호주. 사방이 천혜의 자연이니 캠핑족에게는 발길 닿는 모든 곳이 최고의 캠핑 스팟이지만, 그만큼 위험에 처해질 확률도 높다. 그러니 극중 주인공처럼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총까지 든 낯선 사람을 졸졸 따라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가급적 자제할 것.

6

카리브 해의 비밀 해변 IN **〈올드〉**

장점: 시간 가는 줄을 모름
단점: 진짜 몰라서 늙어 죽음

어느 한적한 해변. 이곳에 입장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흐르는데, 이 해변에서의 30분이 실제로는 1년이다. 즉 이곳에서 1분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약 12일 치의 신체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폭삭 늙은 몰골이 된다는 점에서 맥심 편집장실과 비슷하네.

5

미국 해안가 별장 IN 〈비치 하우스〉

장점: 야광 미생물 덕에 밤바다가 예쁨
단점: 몸에 닿으면 좀비 됨

친구 아빠의 별장이 있는 해변. 근데 막상 가보니 친구 아빠의 친구 부부가 죽치고 살고 있다. 다행히 부부가 친절해서 함께 밥도 먹고 약도 빨며 노는데, 창밖을 보니 온 바다가 시퍼렇게 빛난다. 지구 온난화로 수면으로 올라온 미생물 때문이라고. 몸에 닿는 순간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결국 죽인다는데... 끓여 먹으면 괜찮겠지? 쿰척쿰척.

4

칠레 발파라이소 IN 〈애프터 쇼크〉

장점: 지상 낙원 그 자체
단점: 지진 나면 개 지옥

칠레의 발파라이소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실제 도시이지만, 한번 지진이 나면 사촌 동생 앞 피규어처럼 속수무책으로 쑥대밭이 되고 만다. 심지어 지진으로 인해 감옥을 탈출한 흉악범들이 사람들을 약탈하기 시작하는데... 칠레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 영화 촬영을 허가한 거야?

3

스웨덴 하지 축제 IN 〈미드소마〉

장점: 현지 미녀와 눈 맞으면 섹스 가능
단점: 섹스 끝나면 화형

"우리 고향 축제 존잼인데 갈래?" 친구를 따라간 곳은 스웨덴 깡시골 마을의 축제. 하얀 옷을 입은 주민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반긴다. 하루에 한 명씩 친구들이 사라지지만 기분 탓이겠지? 아무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망치로 노인 머리도 깨고, 즐거운 나날을... 응?

2

미국 숲속 오두막 IN 〈캐빈 인 더 우즈〉

장점: 현존하는(?) 모든 귀신을 볼 수 있음
단점: 귀신도 우릴 볼 수 있음

공포 영화의 클리셰를 모조리 때려 넣은 산속 별장. 이곳의 지하에는 인신공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대 연구소가 숨겨져 있다. 전문 호러 단체답게 이들은 전 세계의 모든 귀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특정 행동에 따라 출동시키는 귀신도 매번 달라진다. 예를 들면 "야 저 새끼 존다, 편집장(마녀) 출동!" 이런 식.

1

피지 인근해 무인도 IN 〈스위트하트〉

장점: 물고기가 파도에 떠밀려 옴
단점: 시체도 떠밀려 옴

선상 파티를 즐기다가 배가 좌초되어 오게 된 한적한 무인도. 물고기가 하도 많아 굶어 죽을 걱정은 없지만,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끔찍한 괴물이 나타나 해변을 어슬렁거린다. 섬을 수색해 보니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있는데, 그들은 이미 괴물에게 당한 것일까? 먹혀줄 테니 제발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콧구멍인지만 알려줘!

LAYOUT 전수진 IMAGE 각 영화 스틸컷

축잘알, 축알못 모두 빠져드는 축구 이야기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사전지식 없이 볼 수 있고, 축구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게 해 주는 두 OTT 콘텐츠를 소개한다. BY **축구 전문 매체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리얼로 축구팀 경영하기 〈웰컴 투 렉섬〉

데드풀이 영국 축구팀 구단주라고? 근데 이거 실화임.

〈데드풀〉의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는 조금 덜 유명한 배우 롭 매킬헤니와 공동으로 영국 축구팀을 인수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프리미어리그 말고, 프로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한 5부 리그 구단이다. 이들이 고른 팀은 그중에서도 렉섬. 웨일스 구단이지만 잉글랜드 축구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렉섬은 역사가 무려 159년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팀이다. 두 셀럽 구단주는 축구를 통해 웨일스 소도시 렉섬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놀랍게도 이건 드라마도 페이크 다큐도 아닌, 실화다.
그 과정을 그린 유쾌한 다큐멘터리 〈웰컴 투 렉섬〉은 현재 디즈니플러스와 애플티비에서 볼 수 있다. 두 미국인이 생소한 도전에 뛰어들어야 하는 계기는 솔직히 다큐 촬영을 위해서였던 것 같다. 다큐는 이 점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대신 일단 일을 벌인 뒤에는 진지하게 일한다는 걸 보여준다. 렉섬 구단의 쇠퇴는 곧 지역경제의 몰락과도 밀접하기에, 시민들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는 수단으로 축구팀을 활용하는 것이다.
팀 성적이 좋아지면서 관중들은 데드풀 코스프레를 하고 경기를 보며, 그냥 시내에서 데드풀 코스프레를 하고 돌아다니기도 한다. 레이놀즈는 실제로 몇 번 영국을 방문해 렉섬의 경기를 관전했다. 5부 구단치고는 꽤 부자인 데다 유명한 구단주를 받아들인 덕분에 렉섬은 좋은 경영자와 감독을 찾았고, 선수 영입도 꽤 잘했다. 최근 마무리된 2022~2023시즌, 오랫동안 처박혀 있던 5부 리그에서 마침내 4부 리그로 승격하는 데 성공했다. 그 현장에 빠지지 않은 두 구단주가 샴페인을 뒤집어썼다. 잉글랜드는 프리미어리그 아래 2~4부가 '풋볼리그'로 분류되기 때문에 4부 진입은 의미가 크다. 시즌 1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지난 2021~2022시즌 승격에 실패하는 모습으로 끝나는데, 시즌 2는 승격 스토리라는 환상적인 이야기로 채워질 예정이다. 렉섬 경기 뉴스는 곧 이 다큐멘터리의 스포일 셈.
구단주를 잘 만난 덕에 렉섬 선수들은 전례 없는 모험을 즐기고 있다. 올여름에는 미국 전지훈련을 간다. 아마 시즌 3에 쓸 영상을 담기 위해서인 듯하다. 미국 현지에서는 렉섬이 강팀 맨유, 첼시를 상대하는 친선경기까지 예정돼 있다. 경기 광고를 위해 맨유의 전설적인 감독 알렉스 퍼거슨이 직접 출연해 레이놀즈와 영상통화를 하는 내용의 콩트를 찍기도 했다.

이 풋볼은 그 풋볼이 아니지만 <테드 래소>

미식축구 코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팀 감독이 된다면?

미국인과 영국인의 괴리는 우리 같은 이방인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특히 미국인들이 프리미어리그를 접하려면 우선 승강제라는 미국 스포츠에 없는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팀명을 읽는 방식도 다르다. 미국인들은 영국인이 Tottenham을 왜 '톳은엄'으로, 특히 Leicester를 왜 '레스터'로 발음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0'을 의미하는 'nil' 역시 영국 축구 방송이나 테니스 방송에서는 수시로 나오지만, 미국에서 이 표현은 낯설기만 하다.
이 괴리를 코미디에 활용하기로 한 사람이 〈SNL〉과 〈30 rock〉으로 유명한 코미디언 제이슨 수데이키스였다. 2014년, 미국 방송사 NBC가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면서 내놓은 광고 영상이 그 시작이었다(An American Coach in London). 수데이키스가 '런던에 뚝 떨어진 미식 축구 감독' 역할을 맡아 빵빵 터지는 개그를 연발하는데, 축알못 헛소리를 남발하는 이 감독 캐릭터가 꽤 화제를 모았다(실제 토트넘 훈련장에서 촬영됨). 이 캐릭터를 발전시켜 아예 시트콤으로 만든 것이 바로 2020년부터 방영된 〈테드 래소〉다. 현재 애플TV에서 방영 중이다.
우선 축구를 모르는 미국인이 프리미어리그 감독을 맡게 되는 첫 에피소드부터 꽤 그럴싸하고 재미있다. 프리미어리그 팀 AFC 리치먼드(가상)의 구단주가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구단을 아내에게 넘긴다. 아내는 전남편이 사랑하던 팀을 일부러 파멸시키려고 미식축구 코치를 프리미어리그에 데려온다.
그 감독이 테드 래소다. 테드는 축구는커녕 시니컬한 영국식 비아냥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축구는 몰라도 늘 낙천적인 자세와 긍정 리더십으로 선수, 구단주, 팬들의 신뢰를 얻으며 점차 성공적인 감독 경력을 꾸려가게 된다.
프리미어리그와 계약을 맺고 실제 팀이 대거 등장하지만(다만 토트넘 7번이 손흥민은 아니다. 유니폼을 입은 배우들일 뿐), 그렇다고 해서 축구에 대한 묘사가 마니아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치밀하진 않다. 딱 축구팬들이 보기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다. 실제 축구계에 빗댔을 때 얼마나 말이 되는지 속으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 매 신이 30점 이하겠지만, 축구로 설득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드라마의 설득력이다.
대책 없이 긍정적이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테드의 캐릭터는 시대상과 잘 맞아떨어졌다. 드라마가 공개된 2020년은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기분에 젖어 있던 시기였다. 역경이 다가와도 긍정적인 자세로 헤쳐 나가면 된다는 드라마의 메시지는 특히 미국 시청자들을 열광시켰고, 에미상 코미디 부문을 2년 연속 수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 스포츠에서 리더십은 중요한 요소고, 테드의 성격이 아무튼 리더십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축구를 모르는 자의 성공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테드는 구단에 숨어 있던 축잘알 직원을 허드렛일에서 꺼내 전문성을 발휘하게 해 주고, 향수병에 시달리던 선수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전술 못지않게 중요한 감독의 역량이니까. 어쩌면 테드 래소는 전국의 조기축구회 총무를 비롯해 회사의 부장, 팀장, 사장님들이 필수로 시청해야 할 리더십 교육 드라마인지도 모르겠다.

LAYOUT 이동림 IMAGE Apple TV+

波多野結衣
道化師の女

원작초월 패러디 AV

옳게 된 실사화라고 생각합니다. BY 박중우

어릿광대의 여자
하타노 유이
원작: 〈조커〉
도리: BDA-00111

폭력적인 광기에 젖어가는 조커를 표현한 원작과 달리, 푹 젖어버리는 조커를 3회차 조져주는 이야기다. 연약한 알바생이 포악한 점주의 횡포에 덜덜덜 경련해버리는 첫 플레이를 마친 그녀. 이내 조커로 분장하더니 사디스트로 각성! 점주를 매우 혼내버리는 강력한 미녀… 같은 걸 연기하는 듯했다. 그러나 남자가 손만 대면 앙앙 울어대는 바람에 콘셉트 포기. 끝내는 밧줄에 묶여서 온몸을 덜덜거리는 나약한 경련 조커 엔딩을 맞이한다.
한줄평: 상상 그 이상의 경련.

君の縄。
your rope
まだ結ったことのない縄を、探している。
涼川絢音

너의 밧줄은
스즈카나 아야네
원작: 〈너의 이름은〉
도리: XRW-320

소녀가 무녀들의 의식을 수련하는 장면을 패러디했다. 애니에선 남녀의 사랑을 뜻하던 '무스비(몸속으로 들어간 것과 영혼의 매듭)'가 '밧줄로 묶임 & 몸속으로 들어감'으로 성인물 장르 보정을 받았다. 스토리까지 짜기는 귀찮았는지 러닝타임 대부분을 무스비 파티로 채워놨다. 더불어 '하얀 뭔가를 꼭꼭 씹고 뱉어서 만든 술'을 목구멍에 쉐킷(?) 하는 변주가 기가 막혔음.
한줄평: 인생은 무스비, 그것은 섹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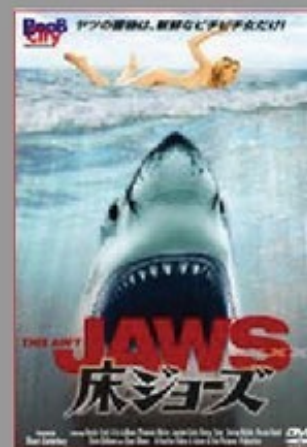
딸카데미 패러디상 아카데미상 수상작을 패러디로 능욕하는 방법.

FUCK TO THE FUTURE

퍽 투 더 퓨처 소년의 꿈과 상상력, 무엇보다 성적인 자기 효능감을 한꺼번에 자극해버림. 누나, 이게 막 자라나요!

パイパニック

파이-패닉 사랑은 백허그가 아니라, 운명적인 거유와 교성의 하모니로 완성된다는 진실을 알려줌. 백허그로는 아이를 못 낳아요.

JAWS 床ジョーズ

마루 죠스 음란한 상어가 해변에서 미녀들만 골라서 강간함. 어찌 교미가 가능한지 설명을 안 해줘서 온갖 상상력 동원 가능.

ヌード・オブ・ザ・リング

누드 오브 더 링: 왕의 사타구니 왕의 사타구니, 아름답고 험준한 봉우리를 가장 빠르게 초월하는 존재는 누가 될 것인가.

近親相姦 パラサイト

기생충 근친들이 물고 빠는 내용으로 끝. 제목이 원작이랑 똑같다. 너네 일부러 이랬구나? 영화 검색하면 AV도 같이 나오라고?

진격의 애인~ 카렌을 위해, 2014

타치바나 히나타(주인공)
아베노 미쿠(거인)
원작: 〈진격의 거인〉
도리: STAK-06

애니 실사화에 미쳐있는 일본답게 미니어처 세트장, CG 기술까지 활용해 원작 디테일 고증에 힘썼다. 최선을 다할수록 병신이 되는 실사화의 저주까지 알차게 챙겼다. 영상 전반에 B급 아마추어 감성이 낭낭하다. '아마추어 = 일반인'으로 본다면 야동 입장에선 오히려 좋아. 주인공보다 여자 거인에게 시선이 꽂힌다. 오늘은 너로구나 마음먹고 한참을 돌려봐도 거인녀 야스 장면은 나오질 않았고, AV 배우로서 직무유기라고도 생각했다. 한국에 정발 되었으나, 30분 정도 가위질 당한 듯.

한줄평: 반찬 맛집.

전복의 승리

이름을 써주기엔
너무 많은 그녀들
원작: 〈오징어 게임〉
도리: CUS-0xx

오징어 홀릭에 빠진 야동은 일본산 작품이 둘, 대만산 작품이 하나 있더라. 일본 것들은 지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숨도 안 쉬고 떠드는 모습만 인상적. 아무래도 노가리 게임을 패러디한 듯했고, 반대로 대만 작품 퀄리티에는 크게 놀랐다. 제군. 우리의 미래가 대만에 있었다. 세트장 자체도 크고 정교한데, 배우들 연기부터 촬영, 편집까지 진짜 잘해놨더라. 스토리 쭉쭉 밀면서 야스 모먼트로 넘나드는 타이밍이 예술이었고, 총 5화짜리 장편 기획물이란다. 작년에 '세계 중화 AV 대상'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았다니까? 뭐 하는 대회인지는 나도 모르니까 대충 패스한다. 근데 진짜 재밌으니까 일단 한번 보시겠어요?

한줄평: 대만이 미래다.

혐한류 SM 습격사건

SM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단 한 건의 고소도 하지 않았다.

미각전설 / 2010년,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콘셉트 도용
"AV계 미각(각선미) 모델 5명 크로스! 다리를 뽐내는 댄스 맹특훈!"을 외치며 등장. 한국 언론에서 "영상 보니까 맹특훈 시간에 빤쓰부터 내리던데, 감당할 수 있겠니?" 따졌더니 끝까지 사칭한 것은 아니라고 박박 우겼다.

키라 / 2011년, 카라 일본 싱글 '미스터' 콘셉트 도용
"AV계 아이돌 데뷔! 엉덩이 댄스 맹특훈!" 슬로건으로 등장. 한국 언론이 "매니저가 멤버 엉덩이에 뭐를 막 비비고 꼽던데 그게 맹특훈이니?" 따지니까 "니들도 야동 찍을 거면서, 겨우 콘셉트 갖고 난리..."라며 짜증을 냈단다.

보아 / 2005년, 보아 'Best of Soul' 콘셉트 도용
앞선 둘보다 5년 먼저 선빵을 맞았다. 심지어 이름을 교묘하게 바꾸는 노력도 없이 진짜 보아가 출연한 것처럼 포장해 출시했다. 관계자 왈, "일본 대중은 이미 보아에게 질렸어. 어른의 개성을 선물한 거다!"라며 되려 당당했다고.

ALWAYS
게임 즐겁게 하는 법

샷건 쳐서 키보드 그만 부수고 즐겁게 게임 하자. BY **성문경**

★☆★☆유의할 점: 어떤 게임이든 같은 상대와 리겜하지 않아야 함.★☆★☆

좋은 팀×좋은 선수

스포츠 게임

주로 피파 시리즈나 PES 시리즈 같은 축구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이 좋은 선수가 즐비한 팀을 선택했거나, 팀은 별로지만 좋은 선수 캐릭터가 하나라도 있다면 안성맞춤이다. '그 팀 고르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못 이기지~'나 '쟤 능력치 개 사기라 뭐 아무것도 못 하겠네~'처럼 상대방이 사용한 팀이나 선수의 능력치 탓을 하면 된다. 상대방이 약한 팀으로 한 번 더 하자고 하면 '아, 능력치 빨이랑 재미없어서 안 함ㅋ'으로 응수하자. 능력치 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기회를 못 얻은 상대는 이겼는데 빡치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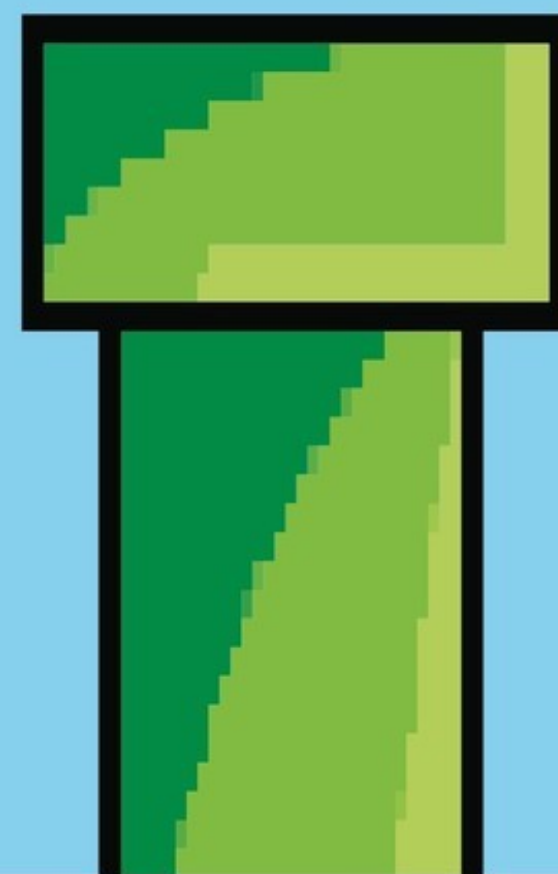
내 피지컬과 장비는 한 몸

RTS 게임

대한민국 전통놀이로 자리매김한 스타크래프트에서 딱이다. 화면을 이곳저곳 빠르게 전환하며 집중해야 할 곳이 많은 RTS 특성상 2-3판만 몰입하면 눈이 따갑거나 손목 통증 등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10분 안에 패배해도 '아, 오늘 너무 많이 해서 막겜이라 생각하고 대충 했더니 바로 지네ㅋ' 하나면 즐거움과 다음 판을 안 해도 되는 보너스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키보드나 마우스 등 개인 장비가 중요한 RTS의 특성을 활용해 '내 걸로 안 하니까 뭐 눌리질 않네ㅋ'라며 장비 탓하는 것도 방법이다. 처음부터 노트북으로 플레이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니 참고.

새로운 챔피언 언제 나옴?

AOS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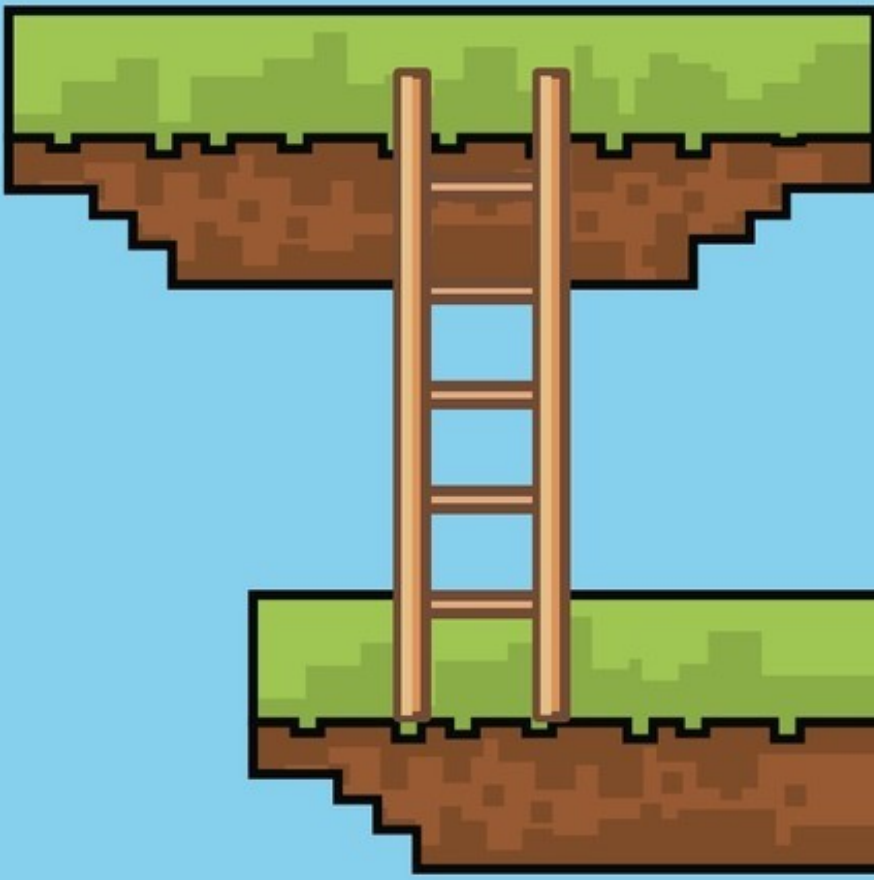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로 대표되는 AOS 게임에는 스킬 쿨타임이 덜 찼다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지만, 사실 그런 절묘한 타이밍으로 승패가 나뉘는 게 AOS 게임의 맛이라 크게 소용이 없다. 하지만 AOS는 꾸준히 추가되는 캐릭터가 매력이니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새롭게 출시된 캐릭터는 움직임이나 궁의 효과 같은 여러 요소를 손에 익히려면 시간이 걸리는 탓에 '아, 나 얘 처음 해보는 거라 이기는 게 말이 안 됨ㅋ'이면 딱이다. 통신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와일드 리프트나 브롤스타즈 같은 모바일 AOS는 '아, 렉 걸려서 못 움직인 건데 그걸 죽이네ㅋ' 같은 궁극기를 쓰자.

게임도 실제 상황처럼

FPS 게임

나온 지 십수 년도 더 된 서든어택뿐 아니라 오버워치 등 FPS는 사실상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한 장르다. 1인칭 시점이라 볼 수 있는 시야가 제한적이고, 중간중간 재장전도 해야 하기 때문. 게다가 민첩하게 움직이며 공격해야하는 이유로 모니터 주사율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덕분에 '아, 딱 재장전 중인데 왔네ㅋ'라든지 '올 헤드샷~'처럼 상대방의 실력보다 운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 당연히 '역시 주사율 딸리는 모니터 쓰니까 못 하겠네~' 같은 소소한 장비 탓도 가능. 여럿에게 둘러싸였을 땐 '나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몰려왔네~'라며 고생한 상대방을 추켜세워줄 수도 있다. 사실상 가장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장르.

단 두 가지면 언제나 즐거운

대전 격투 게임

철권이나 킹 오브 파이터즈는 어차피 여러 캐릭터 중 몇 가지 골라서 조이스틱 돌리는 게 전부라 즐겜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 우선 두 게임 모두 캐릭터가 수십 가지에 달하는 덕에, 본인이 주로 선택하지 않는 캐릭터를 고르자. 당신에게 이겨서 잠깐 즐거워도 '역시 주력 캐가 아니라서 아무데나 눌렀어~'를 시전하면 만사형통. 잘 안 하는 캐릭터로 이기기라도 하면 '야, 이 캐릭터 거의 처음 하는데 지냐. 걍 접으셈ㅋ'이라는 치명타를 날릴 수도 있다. 사실 주력 캐릭터를 골랐다고 해도 진짜 주력인지를 완전히 파악할 순 없으니 크게 상관없다. 추가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오락실은 조이스틱이 온전치 않은 경우가 있으니, 그 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게임은 즐기는 것

레이싱 게임

실제 자동차 경주처럼 레이싱 게임 역시 차종마다 능력치가 달라 어떤 차로 경기에 임하는지에 따라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사실 과금으로 해결되는 문제라, 이 얘기를 꺼냈다간 상대에게 내 통장 사정을 알리는 제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으니 금물이다. 대신 실제 운전처럼 레이싱 게임도 계속하다 보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서 고인 물이 판을 치는데, 이 점을 이용하면 된다. 언제나 이겨 신난다는 듯 으스대는 상대방에게 '어휴, 이 게임 진짜 오래 하셨나 봐요! 맨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라며 별다른 취미 없이 게임에만 절어 사는 낙오자로 만들자. 이것 하나면 본인은 그저 여가 생활 중 하나로 게임을 즐기는 근사한 청년이 될 수 있다.

LAYOUT 전수진

키보드 배틀 동귀어진 정신 승리법

상대와 나의 논리가 부딪히는 진검승부, 속전속결로 상대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 BY 박중우

상대의 반박 자체를 틀어막는

1. '원천봉쇄'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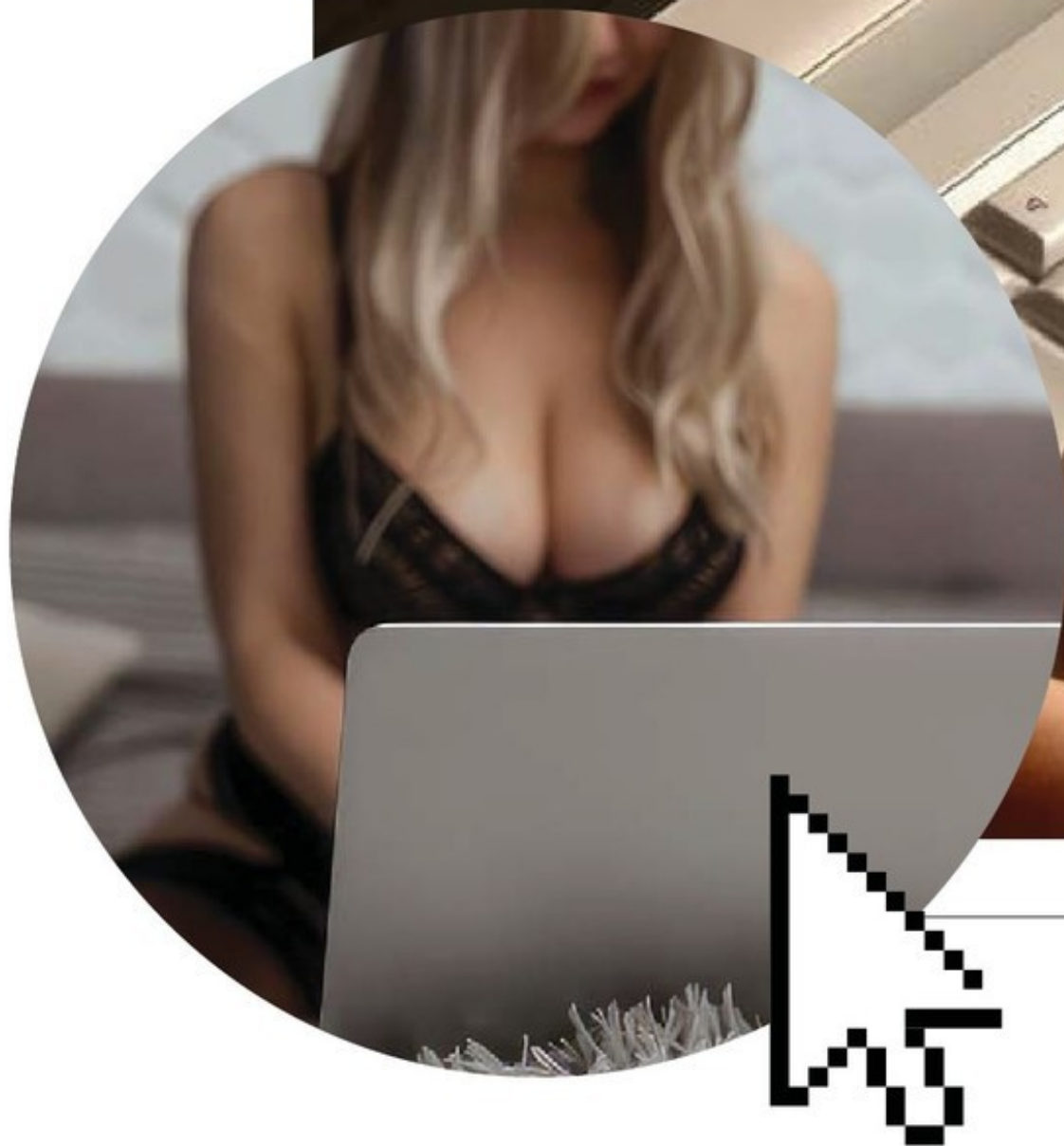
A: 평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B: ①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A: 어째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B: ② **당신 말이 옳습니다.**

위 예시에서 A는 어떤 말을 하든 바보가 되는 가불기에 걸렸다. 이때 B가 사용한 기술이 원천봉쇄다. 원리는 간단하다. 상대가 반박할 수 없도록 **①선제적으로 비난**해두면(함정을 깔아두면) 준비가 끝난다. 이후 상대가 어떤 말로 반박해오든 느긋하게 **②함정을 발동**하면 된다. 상대에게서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매일같이 병림픽이 열리는 각종 커뮤니티에선 원천봉쇄 키워드를 숨 쉬듯 사용하는데, 다음의 기출 변형을 자주 사용한다.

ⓐ **소인배새끼ㅋㅋ:** 선제적으로 상대를 소인배라고 비난한다. 이후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당신이 소인배라서 그렇다고 돌려깎으면 된다. 만약 소인배가 아니라며 부정하면 대인배가 아니다. 그렇다고 소인배임을 부정하지 않아도 여전히 소인배다. 탈출구가 없는 거다. (= '네 다음 병신', 'XX 탈출은 지능순', 'ㅂㄷㅂㄷ거리네ㅋㅋ' 등)

ⓑ **불편한 진실:** 누군가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이 있다. 사실 당신은 병신이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병신이라는 사실이 불편할 것이므로, 당신이 병신인 것이 진실이 된다. 또한 불편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병신이다. 위 예시들과 다를 것이 없지만, 굳이 따로 빼어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요즘 '불편한 사실이지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등 선동 메시지를 사실 혹은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나 많아서 그렇다. 만약 누군가 불편한 진실을 알려준다며 다가온다면, 일단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다.

당신이 이겼는데요, 졌습니다.

원천봉쇄 비난은 근거가 없다. 근거 없는 비난으로 상대를 찍어 눌러야 할 만큼 벼랑에 몰려있었다고 항복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원천봉쇄는 상대와 논리로 맞붙을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때문에 이는 오직 나의 감정만을 위해 스스로 방어하고 변호하는, 말 그대로 정신승리만을 위한 기술임을 인지해야 한다. 반대로 누군가 당신에게 기술을 걸었다? 그가 당신에게 패배했다고 정신 승리해도 좋다.

상대의 논점 자체를 파괴하는

2. '매듭 자르기'의 장

A: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에 부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B: 힘들면 하지 마.

위 예시에서 해결책을 구하는 A의 논점에는 반응하지 않고, 논점의 근거에서 부정적인 꼬투리를 잡아 단칼에 잘라버리는 기술이다. 이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는 말도 완벽한 매듭 자르기의 예시다. 당신이 싫은 것을 내가 해결할 생각도, 관심도 없으니 꺼지라는 말이니까. 이 기술은 몇 가지 예시들만 더 보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A: 언냐들, 저출산이라는 단어 나만 불편해?
B: 불편해? 그럼 자세를 고쳐 앉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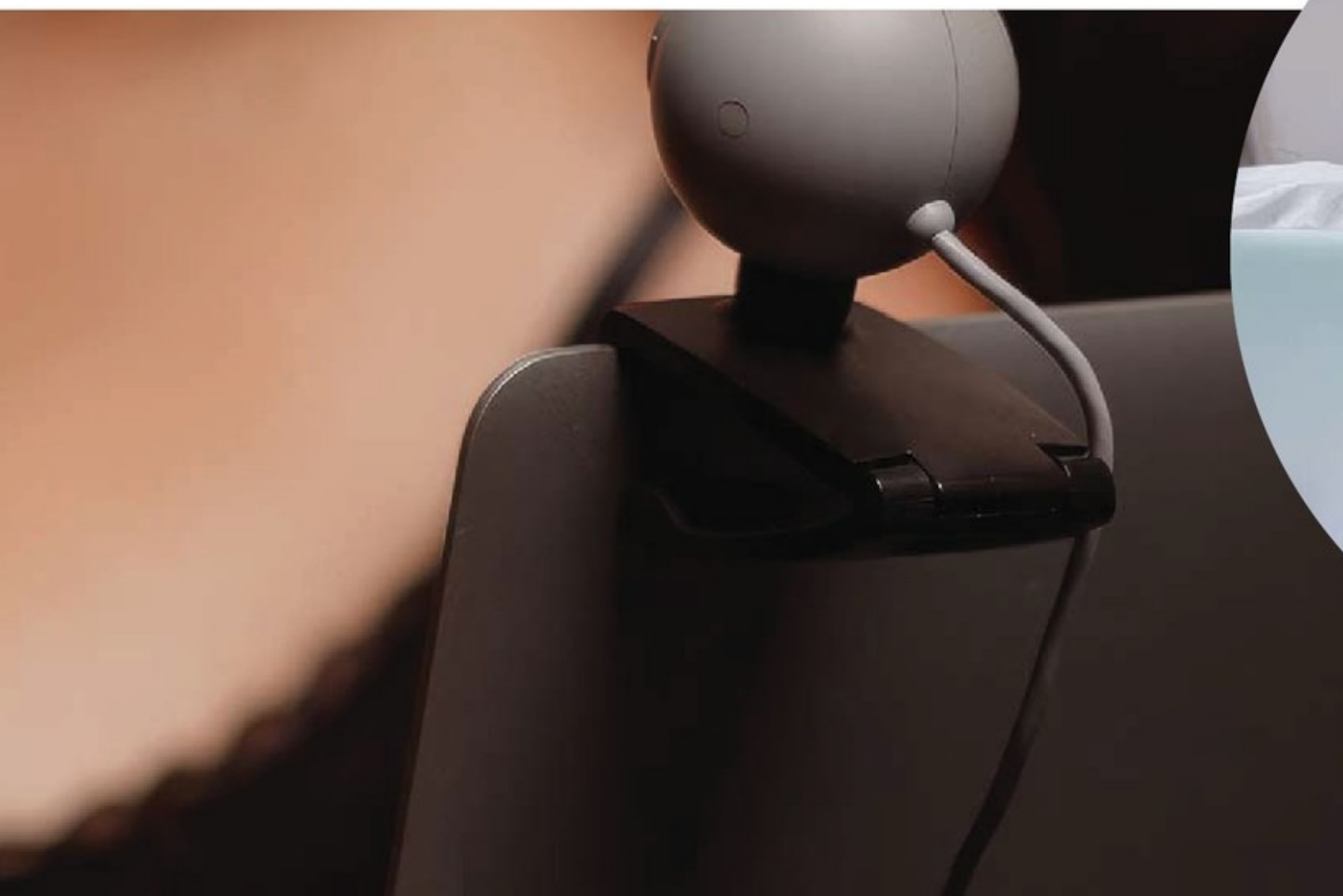
A: 자기야, 내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했다.
B: 그럼 연락하지 마.

A: 맥심아, 화보를 이렇게 찍으면 섹시한 맛이 없대도?
B: 그럼 니가 찍어.

대충 느낌이 좀 오는가? 매듭 자르기 스킬은 보통 상대의 논점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이거나 비난일 경우에 사용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꼬접(꼬우면 접든가)',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음?)', '알빠노(내가 알 바 아님)' 등의 기출 변형으로 많은 이가 숨 쉬듯 사용하는 중이다.

당신이 이겼는데요, 이미 졌습니다만?

매듭 자르기는 동문서답으로 자신의 논리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서 상대의 논점 자체를 파괴하기에,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오류에 해당한다. 성가시거나 듣기 싫은 상대의 논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논점 일탈의 오류로도 볼 수 있겠다.

이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상대와 나의 논리를 동귀어진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정신 승리법은 많다. 그러나 이토록 재미없고 긴 글을 읽느라 독자님이 몹시 피곤할 테니(반박해도 내 말이 맞음(이것도 원천봉쇄다)) 이만 줄인다.

GAME

순위 정하는 남자

다 사면 1,400만 원? **스팀 DLC 끝판왕** TOP 10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게임보다 비싼 DLC를 한데 모아봤다.

BY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DownLoadable Contents의 줄임말인 DLC. 게임에선 그 뜻 자체 보다는 추가 콘텐츠로 통용된다. 좋아하는 게임을 새롭게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DLC는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소개할 게임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다.

※ 본 기사는 게임 전문 온라인 매체이자 맥심의 오랜 칸부 〈게임메카〉에 동시에 게재되었습니다. 더 많은 게임 소식은 〈게임메카〉를 참조하세요.

393,200

시티즈: 스카이라인
(유료 DLC 53개, 총가격 393,200원)

〈심시티〉의 왕좌를 빼앗아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계의 1위로 등극한 〈시티즈: 스카이라인〉은 명성에 걸맞게 수많은 DLC를 냈다. 실존 도시, 자연, 특정 시대를 기반으로 한 맵이나 건물 등 53개의 유료 DLC가 출시됐다. DLC 구매 없이도 본편 자체가 충실하기에 큰 불만은 없다고. 한국에서 영향을 받은 '하트 오브 코리아' DLC의 경우 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587,400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
(유료 DLC 43개, 총가격 587,400원)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 역시 유료 DLC 수를 세어 보면 43개, 총가격은 58만 7,400원이다. 대다수가 추가 노래 DLC며, 일부 스킨이나 클리어 패스를 좀 더 빠르게 해 주는 기능적 DLC도 존재한다. 정가 기준으로는 부담이 꽤 큰 편이지만, 다행히 각종 세일 기간에 DLC들도 묶어서 80%까지 대폭 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를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다.

728,300

몬스터 헌터 월드 (유료 DLC 206개, 총가격 728,300원),
몬스터 헌터 라이즈 (유료 DLC 246개, 총가격 732,100원)

시리즈 최초, 스팀으로 출시되고 오픈월드식 맵 구성으로 시리즈의 제2전성기를 불러온 〈몬스터 헌터 월드〉 역시 DLC가 상당히 많다. 총 206개의 DLC를 냈는데, 가격은 72만 원이 넘는다. 그 뒤를 이어 출시된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246개의 DLC와 총가격 73만 2,100원을 달성했다. 다만, 대부분이 사운드와 꾸미기 등에 집중돼 있어 DLC를 구매하지 않은 유저가 더 많다.

732,100

765,800

아이돌마스터 스탈릿 시즌 (유료 DLC 36개, 총가격 76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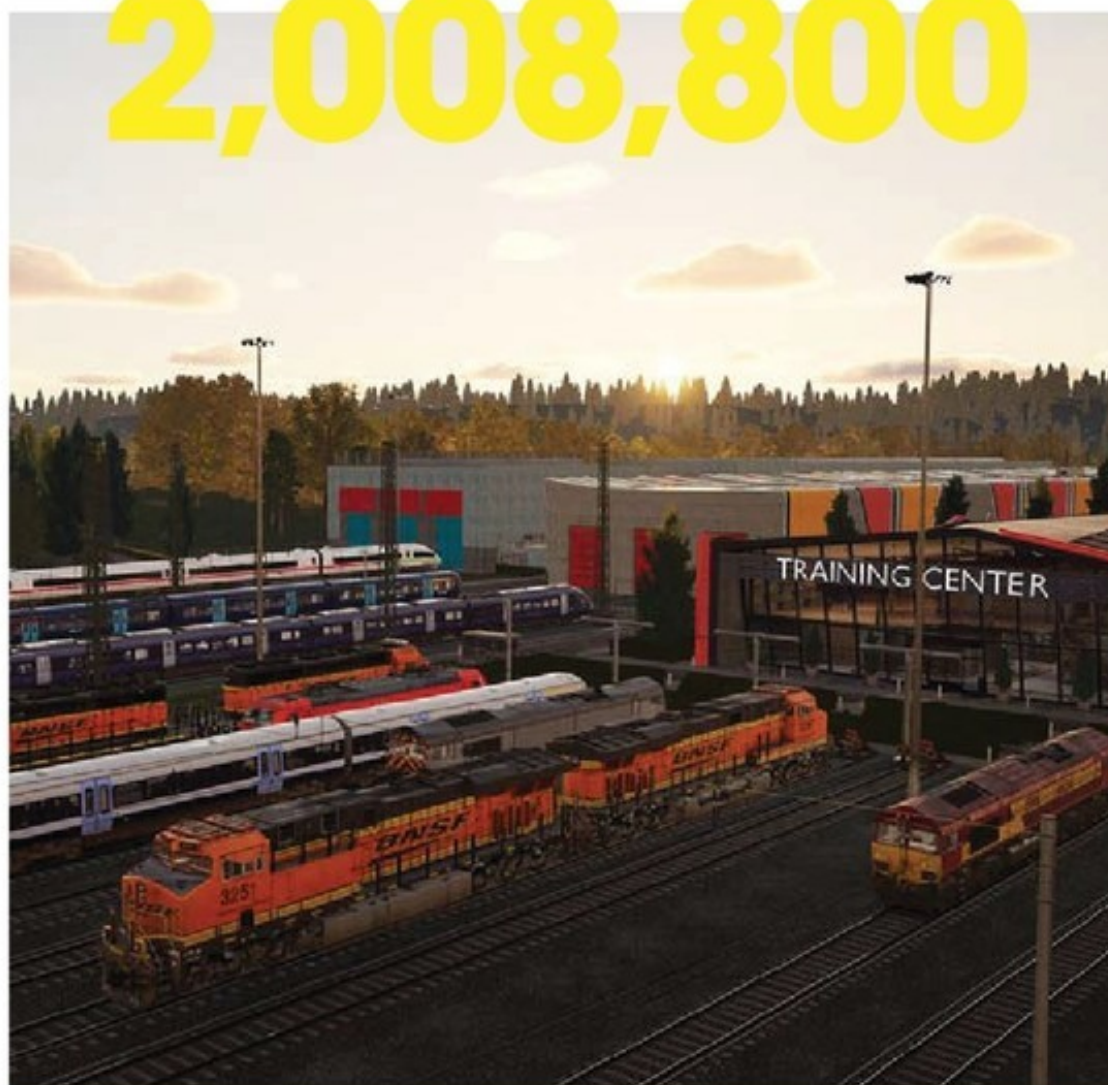
〈아이돌마스터〉 시리즈도 DLC 하면 빠질 수 없는 게임인데, 최초로 스팀에 올라온 스탈릿 시즌의 경우 유료 DLC가 총 36개로, 모두 구매 시 76만 5,800원에 달한다. 물론 DLC 총 수는 더 많긴 하지만, 일부 아이템들은 시즌 세트로 묶어 구매할 수 있어 수가 많이 줄었다. TOP 6에 들어갈 정도로 가격이 높지만, DLC 가격이 전작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와 함께 PC판 특유의 자유로운 모드 적용이 더해지며 DLC 장사에 대한 반발은 예전에 비해 덜한 편이다.

IMAGE 스팀

1,149,500

심즈 4 (유료 DLC 63개, 총가격 1,149,500원)
DLC 하면 빠질 수 없는 〈심즈 4〉가 5위다. 유료 DLC 총 수는 63개로, 모두 구매 시 정가 114만 9,500원에 달한다. 사실 〈심즈〉는 본편은 베이스고 DLC로 진짜 게임을 즐기게 된다는 말처럼 DLC 중요도가 높은데, 4편부터는 기존 확장팩에 덧붙여 게임팩, 아이템팩과 키트 등을 마구 내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는 평가다. 〈심즈 5〉가 아직까지 발표조차 안 된 데는 〈심즈 4〉의 DLC 장사가 잘 돼서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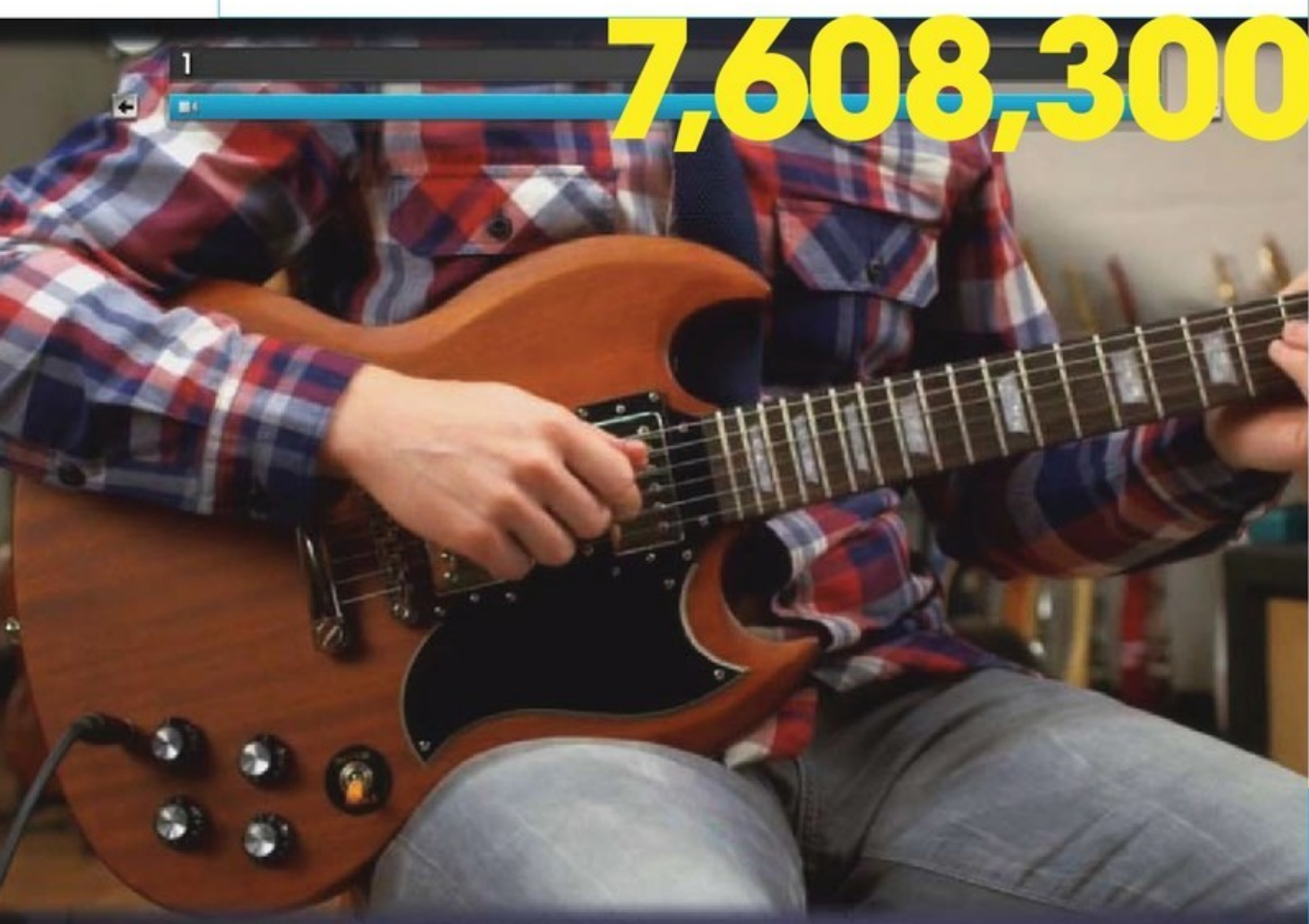
MS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X 스팀 에디션
(유료 DLC 234개, 총가격 4,932,500원)
2위는 〈MS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X 스팀 에디션〉이다. 스팀 기준 234개의 유료 DLC가 등록돼 있으며, 총가격은 493만 원에 달한다. 공항, 도시, 부가 기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의 DLC는 추가 기체에 집중돼 있다. 기체마다 비행 감각과 조종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고 그에 맞춰 공급이 지속된 판이다.

4,932,500

2,008,800

트레인 심 월드 3 (유료 DLC 78개, 총가격 2,008,800원)
사실적 묘사를 중시한 게임일수록 DLC를 통해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그 중 하나인 〈트레인 심 월드 3〉은 2022년 9월 출시된 신작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 상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DLC들을 출시했다. 유료 DLC는 총 78개며, 모두 구매 시 200만 원을 약간 넘긴다. 대부분의 DLC는 지역, 기차 등인데, DLC 구매 시마다 새로운 지역에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DLC는 고증 면에서 혹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1,495,800

데드 오어 얼라이브 6
(유료 DLC 세트 아이템 기준 48개, 총가격 1,495,800원)
거의 모든 DLC가 캐릭터, 코스튬에 특화되어 있는 〈DOA 6〉. 전체 DLC 수는 462개, 총가격은 262만 원에 달한다. 사실 이대로면 3위보다도 총가격이 높은데, 코스튬을 묶어 판매하는 세트 아이템이 다수 있어 이를 통해 구매 시 총가격은 150만 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

락스미스 2014 (유료 DLC 1,555개, 총가격 7,608,300원)
실제 기타를 연결해서 즐길 수 있는, 리듬게임과 기타 교습 프로그램 사이에 있는 〈락스미스〉. 그 두 번째 작품인 〈락스미스 2014〉는 게임 본편은 툴 역할을 하고, DLC 형태의 곡을 추가로 구매해 게임을 즐기는 형태다. 그러다 보니 다른 리듬게임보다 DLC 판매에 더욱 집중하는데, 현재 스팀에는 무려 1,555개의 DLC가 올라와 있다. 모든 곡을 다 즐길 용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총가격은 무려 760만 원이 넘는다.

7,608,300

14,121,400

트레인 시뮬레이터 클래식 (유료 DLC 807개, 총가격 14,121,400원)
사실 1위에 놔도 될 것을, 굳이 0위까지 만들어 가며 강조한 데는 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금액에 경의를 표하고 싶어서이다. 앞서 〈트레인 심 월드 3〉와 같은 철도 시뮬레이터 게임인데, DLC 수는 807개에 평균 가격이 1만 8,000원이 넘는 고가 팩들로 이루어져 있어 모두 구매 시 무려 1,412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온다. 심지어 이쪽 업계에서는 모든 DLC를 다 구매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니, 철덕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저 신기할 뿐이다.

조상님, 이미지 세탁하셨어요?

드라마, 영화로 이미지 확 바뀐 그들의 실체. 역사 왜곡 개꿀? BY 성문경

백성을 도와줬다고? 내가?
홍길동

<홍길동전>에서 탐관오리를 조져 백성들을 도와주는 조선 슈퍼히어로로서 그려지는 인물. 가상인물인 줄 알았겠지만 연산군 대에 활동했던 실존 인물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의적' 같은 거 아니고 그냥 조폭이다. 정확히 무슨 짓을 했다고 나와있지는 않지만, <연산군일기>에 우리가 아는 그 복장으로 무관인 척 관청을 드나들며 뻘짓거리를 하고 다녔다는 기록이 나온다. 홍길동이 잡히고 13년 후 즈음인 <중종실록>에도 '홍길동이 충청도를 어찌나 털었는지 떠돌이 백성이 많아 세금 걷기도 빡세다'라는 기록도 있다. 홍길동 조카가 성종의 후궁 숙의 홍 씨인데다 집안 자체도 소설 속 내용처럼 개 쩌는 수준이라, 빽 믿고 패악질을 잘도 치고 다녔다고.

이게 다 미화였다니…
연산군

이미 각종 미디어에서 온갖 사람을 황천길 보내던 폭군으로 그려지긴 했다. 칼로 찔러 죽이고 철퇴로 내려쳐서 죽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킬 수를 늘렸지만, 놀랍게도 미디어에서 보여준 연산군은 오히려 순화된 버전이다. 실제로 <연산군일기>에 <쏘우>의 직쏘도 고개를 내저을 만큼 잔혹한 짓들이 잔뜩 기록돼 있다. 어머니가 죽은 게 아버지 성종의 후궁 탓이라며 그녀들의 아들을 불러다 후궁을 때려죽이게 했고, 시체는 갈기갈기 찢어 젓갈을 담갔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19금 영화 <간신>에서도 문제의 젓갈은 나오지 않을 정도. 실록엔 성균관을 사냥터로 만들었다든가 신하들의 아내를 불러다 겁탈하는 등 자잘(?)한 기행도 잔뜩 있으니 찾아봐.

조선 최고 성공의 아이콘
허준

드라마 <허준>이 국내 드라마 역대 3위 시청률을 기록하며 레전드로 등극한 허준. 드라마에선 서자인 탓에 집안에서 멸시를 받다가 스승 유의태를 만나 치명적인 전염병 속에서도 어려운 백성을 치료하며 의술을 익히고, 스승의 시신을 해부하여 의술을 완성했으며, 침 한 방으로 온갖 난치병을 해치우는 침술의 달인으로도 그려진다. 하지만 서자인 것을 제외하면 전부 구라. 차별은 무슨 과거 시험 합격 후 고관대작 빽으로 내의원에 들어가며 그야말로 출세 가도를 달렸다. 선조가 허준을 너무 예뻐해서 고속 승진시키는 바람에 다른 관료들이 난리를 칠 정도. 침술도 의관 치고는 별로였단다. 그래도 <동의보감> 편찬은 레전드 맞으니까 너무 후려치진 말자.

백성을 위하기는 무슨
광해군

천만 돌파 흥행작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선 백성을 위해 노력한 성군으로 그려진 광해군. 근데 왜 '세종'이나 '정조'처럼 묘호가 아니라 광해'군'이겠는가. 영화처럼 백성의 공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인 '대동법'을 발 벗고 나서서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거짓이다. 백성을 위하기는 무슨. 오히려 대동법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고, 심지어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등 궁궐만 무려 5개나 지으며 국가 재정을 파탄 냈다. 그 유명한 중립 외교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태. 심지어 본인의 지지 세력도 골로 보내는 자폭을 저지르다 왕위에서 쫓겨났다. 명대사 '그 꿈, 내가 이뤄드리리다'의 꿈을 '궁궐 짓는 꿈'으로 바꾸는 게 나을 듯.

내가! 조선의 무당마니아다!
명성황후

드라마 <명성황후>나 뮤지컬 등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일본에 맞서다 시해 당한 조선의 위대한 국모로 그려졌지만, 사실상 이 분야 최고 권위자. 뭐 개항해서 조선을 빨리 근대화 시키려 노력했고, 실제로 외국 선교사들에게 돈과 선물을 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은 좋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본인 집안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그들로 하여금 벼슬을 돈 주고 파는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나중엔 무당에 미쳐서 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진령군'이라는 왕실 종친에게나 주는 칭호를 하사한 데다, 그 무당말을 철썩 같이 믿으며 비선 실세로 앉혀 놓고 돈과 쌀을 퍼주기까지. 이외에도 훨씬 많지만... 그만 알아보자.

주먹으로 독립운동? ㅋ
김두한

드라마 <야인시대> 덕에 그 시절 꼬마들의 우상이었던 인물. 드라마에선 '주먹으로 독립운동 하겠다'는 일념으로 거리에서 일본과 싸우고, 김영철 아저씨로 바뀐 후에도 노동자를 위해 미국에 맞선 의인으로 그려지지만, <야인시대>는 사실상 김두한이 멋대로 주장한 내용으로 만든 '신화'다. 실은 그냥 깡패였고,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근사한 그의 일화들은 팩트 체크가 불가능해 '염라대왕 목을 땄다'라는 무용담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수준. 항일 주먹이라더니 해방 직전엔 친일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해방 후엔 정치 깡패가 되어 좌익을 때려잡는다는 명목으로 라이벌 조직을 몰살시키는 등 살인 테러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주먹으로 독립운동?ㅋ

LAYOUT 전수진

한여름 밤의 술

현실 도피에는 역시 술만 한 게 없지! 여름에 마시면 더 맛 좋은 우리 술 대령이오~ BY **배주영**

짬에서 우러나오는 단맛

경성 과하주

여름을 나는 술이라는 뜻의 과하주. 여러 과하주 중에서도 이 '경성 과하주'는 제법 스페셜한 구석이 있다. 옛 문헌의 기록을 충실하게 복원해냈기 때문. 여주 햇찹쌀로 빚은 약주와 경기미 증류 원액을 블렌딩 해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한 만큼 깊은 맛이 일품이란다. 찹쌀의 당도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단맛이 강하고, 은은한 꽃과 사과 향도 느껴져 도수가 높아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조상님들의 짬과 지혜가 느껴지는 맛이로구나~

도수: 20% | **용량:** 375ml
가격: 30,000원

이게 주스야? 술이야?

고도리 복숭아와인

물복파와 딱복파를 대통합으로 이끌 술. 황도와 백도를 1:1 비율로 섞은 '고도리 복숭아와인'이다. 과일을 동결시킨 뒤 과즙의 당분을 농축·발효해 만드는 아이스와인 스타일로 원래도 달콤한 제철 복숭아가 더 달게 느껴질 거라고. 자기주장 강한 복숭아의 새콤달콤한 맛에 낮은 도수 덕분에 웬만한 알콜쓰레기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겠다. 특히 여자들 취향 저격하는 맛이라니까 여자랑 뜨거운 여름밤 보내고 싶은 녀석들 있으면 참고하고.(찡긋)

도수: 6.5% | **용량:** 750ml
가격: 40,000원

윙크 유발! 새콤한 자두 와인

샤토미소 웨딩 자두와인

달콤한 와인에 신물 나기 일보 직전이라면 산미 가득 '샤토미소 웨딩 자두와인' 함 잡솨봐! 첫맛부터 새콤한 자두 맛에 정신 확 들 테니까. 씨를 제거한 자두를 저온에서 발효·숙성하여 만든 자두 와인으로, 혀를 자극하는 새콤한 맛 뒤에 단맛과 적당한 씁쓸한 맛이 치고 올라와 황금 밸런스를 자랑한다고. 먹고 나면 입안이 개운해져서 기름진 안주와도 어울리고 입맛 돋구기 위한 식전주로도 안성맞춤!

도수: 12% | **용량:** 750ml
가격: 36,000원

키위로 만든 술은 처음이지?

7004S 키위와인

이제는 하다 하다 키위로도 술을 만드는군요? '7004S 키위와인'은 K-키위인 참다래로 만든 와인이다. 국내산 참다래를 저온 발효한 뒤 1년 이상 숙성해 키위의 상큼한 향에 부드러운 맛까지 더했다고. 뚜껑만 열어도 새콤달콤한 키위 향이 콧구멍 점막을 마구 자극하지만, 맛보면 그 향이 더 강할 거란다. 혓바닥을 자극하는 산미가 입안 가득 침 고이게 만들고, 찌릿찌릿한 목 넘김에 자꾸만 찾게 될 거라네. 어우, 벌써 군침이 싹 도네!

도수: 8% | **용량:** 750ml
가격: 24,000원

Rainy Summer

촬영하는 날 비가 잠깐 왔거든.
그게 하늘이 **이소윤** 예쁜 거
딱 보고 힘 풀려서
그-냥 울어버린 거라니까.
진짜 예술이래도?

BY **박중우**
PHOTOGRAPH BY **ZINHO**

미스맥심 이소윤

인스타그램 : soyun_eeee
유튜브: 소네퀸

항상 섹시한 여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맥심 모델도 진짜 하고 싶었거든?
뭔가 섹시한 여자들의 워너비잖아.

속옷 모델도 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지원서를 많이 넣었는데,
전부 떨어졌거든.

그래도 나름 허리 라인도
괜찮은 것 같고,
다리 예쁘다는 말도 자주 들었는데...
뭔가 섹시한 매력이 없나?

아이돌 시절에
야외 촬영 경험이 있기는 한데,
비키니 입고 촬영하는 건
진짜 난생처음이야.

많이 기대하고 왔습니다!(웃음)

맥심 표지를 드디어 해보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해본 촬영을 경험하고 싶어.
새로운 게 재밌는 것 같아.

맥심 덕에 섹시한 란제리도
자꾸 사서 모으게 된다?
뭔지 궁금하지?

내 첫 표지 촬영인데
하필 갑자기 비가 오네?
너무해...

다음에 화창할 때
또 찍자! 불러줘.

근데 말이야...

비 와도 예쁘지 않아?

더 촉촉해서.

와아... 나 진짜 맥심 표지 하는 거구나.
마지막 컷 찍을 때 되니까 실감이 나네.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맥심 표지를 장식하게 됐어요.
지금도 약간 얼떨떨한 기분이 들고...

아, 오늘 현장 날씨가 조금 흐려서
잘 나왔을지 걱정이네요.

그래도 진짜 열심히 촬영 했으니까,
네!(웃음) 열심히 했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HAIR&MAKEUP 지안 VIDEO 이준혜 이원재

가서 보자! **직관잼**

14년 차 스포츠 기자가 전수하는 프로 스포츠 관람 꿀팁 대방출.

BY **강산 스포츠동아 스포츠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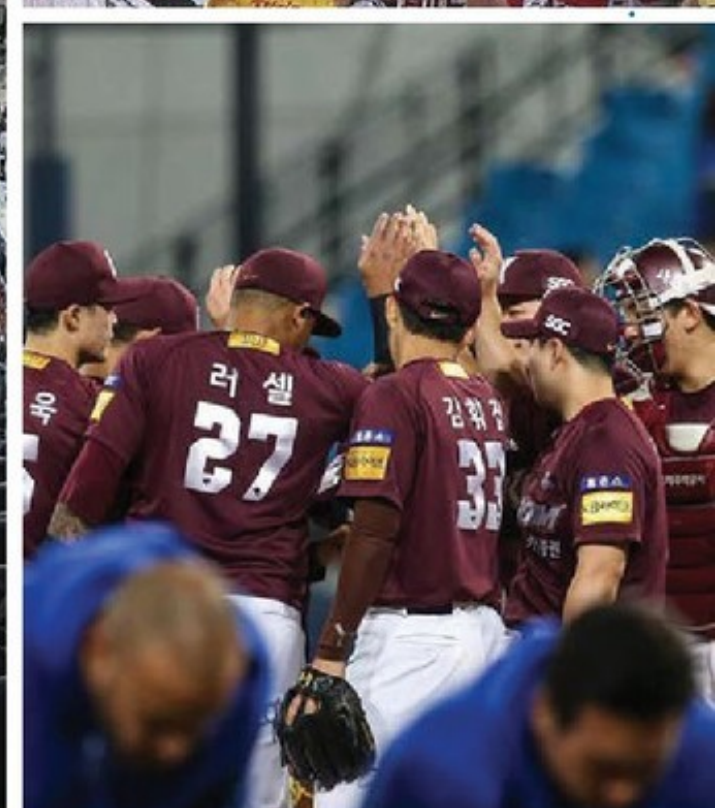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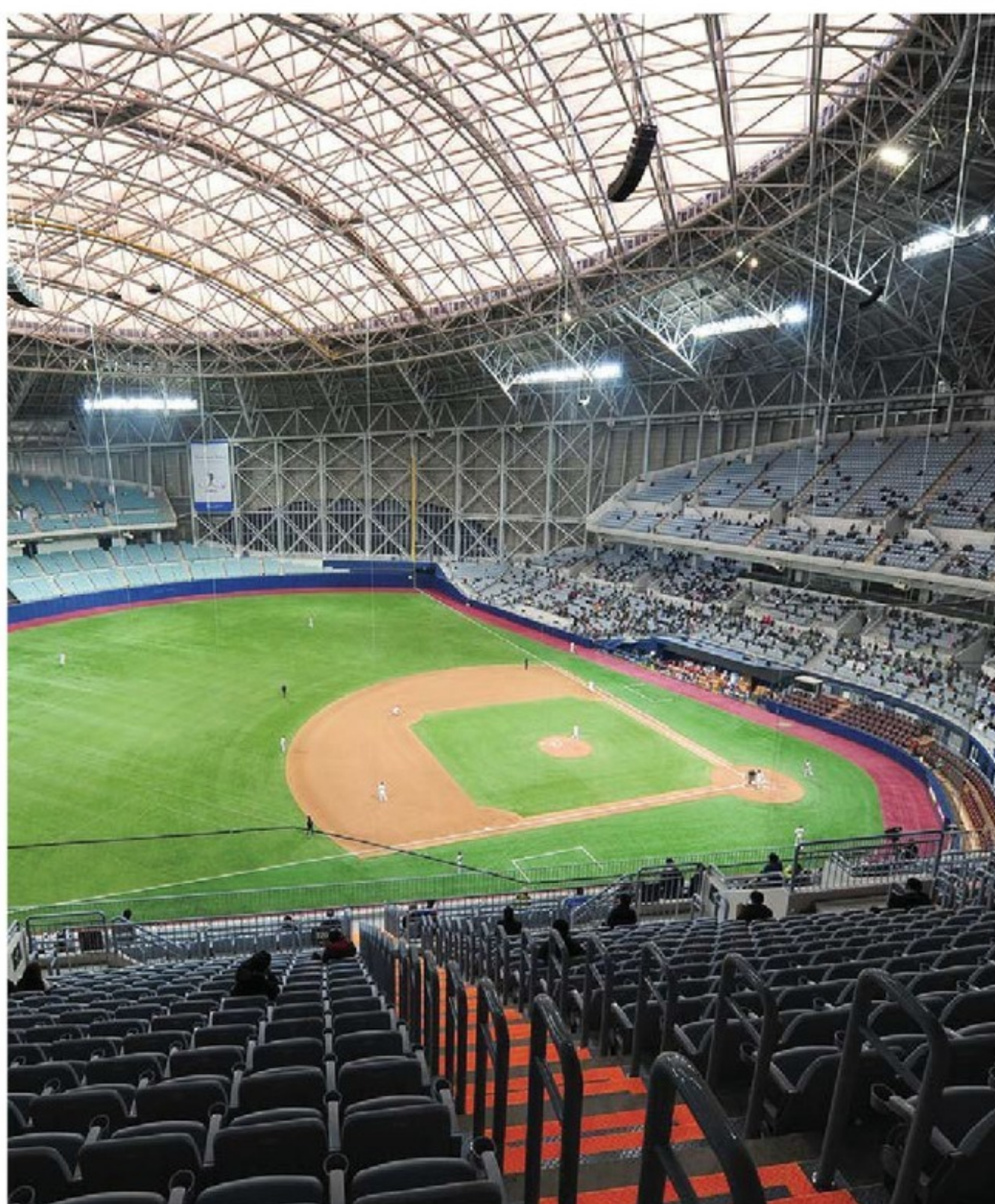
여름 직관의 대표 스포츠, 야구와 축구

바야흐로 직관의 계절인 여름이다. 시원한 복장으로 햇살 아래서 차디찬 맥주 한 잔을 들이켜며 야외스포츠를 즐기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선크림과 선글라스로 무장하면 뙤약볕도 두렵지 않다. 한여름에도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 이유다.

여름 직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는 단연 야구와 축구다. 필자는 2011년부터 야구 종목을 담당했던 터라 야구장 관중석에서 KBO리그를 볼 일은 없었다. 기자실에 노트북을 깔아놓고 기사를 쓰는 데 집중해야 하니까. 게다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자의 특성상 특정팀을 응원할 일도 없으니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번 달엔 특별히! 맥심 콘텐츠를 위해! 현장 취재 중에 직접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곳곳을 관찰했다. 지금은 필자가 한창 야구장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던 2000년대 후반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기에, 각 좌석이 가진 매력을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했다. 더불어 야구기자로만 14년째 일하고 있는 필자가 축구장 관중석까지 잠입해 야구와는 또 다른 분위기인 '축구 직관'의 재미까지 잡아왔으니 기대하시라.

스트레스 풀고 싶은 당신, 야구장으로 가라!

프로야구는 여전히 국내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프로 스포츠다.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관중동원에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직관'의 매력을 아는 팬들은 야구장을 떠나지 못한다. 응원하는 팀의 골수팬은물론 특정 선수의 팬, 분위기를 느끼고자 방문한 신규 팬들이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에 맞는 좌석이 다 준비돼 있다는 게 야구장의 가장 큰 매력이다. 특히 LG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홈구장인 잠실야구장에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한화 이글스 등 이른바 '전국구 인기구단'이 나타나면 구름 관중이 몰리니 미리미리 표를 사두는 게 좋다. 요즘은 인터넷 예매로 미리 자리까지 지정해 둘 수 있으니 선착순 오픈런까진 불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야구'를 보고 싶은데, 비가 온다? 키움 히어로즈의 홈구장인 고척스카이'돔'으로 달려가면 된다.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색 직관 관람석

강력 추천! 이왕 하는 직관,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엔씨다이노스, 1루 다이노스 매트리스

매트리스에 누워서 야구 관람을?

내외야 펜스에 설치된 보호 패드와 같은 재질의 매트리스를 사용한 관람석. 충격 흡수와 방수까지 갖춘 매트리스에 팝콘, 음료수까지 제공된다. *1인당 4만 원대.*

한화이글스, 스테이 인터뷰존

루프탑 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 브랜드와 협업까지?

카라반처럼 생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관람석. 침대, 탁자, 싱크대 등이 갖추어져 있어 더욱 편리하다. *1인당 3만 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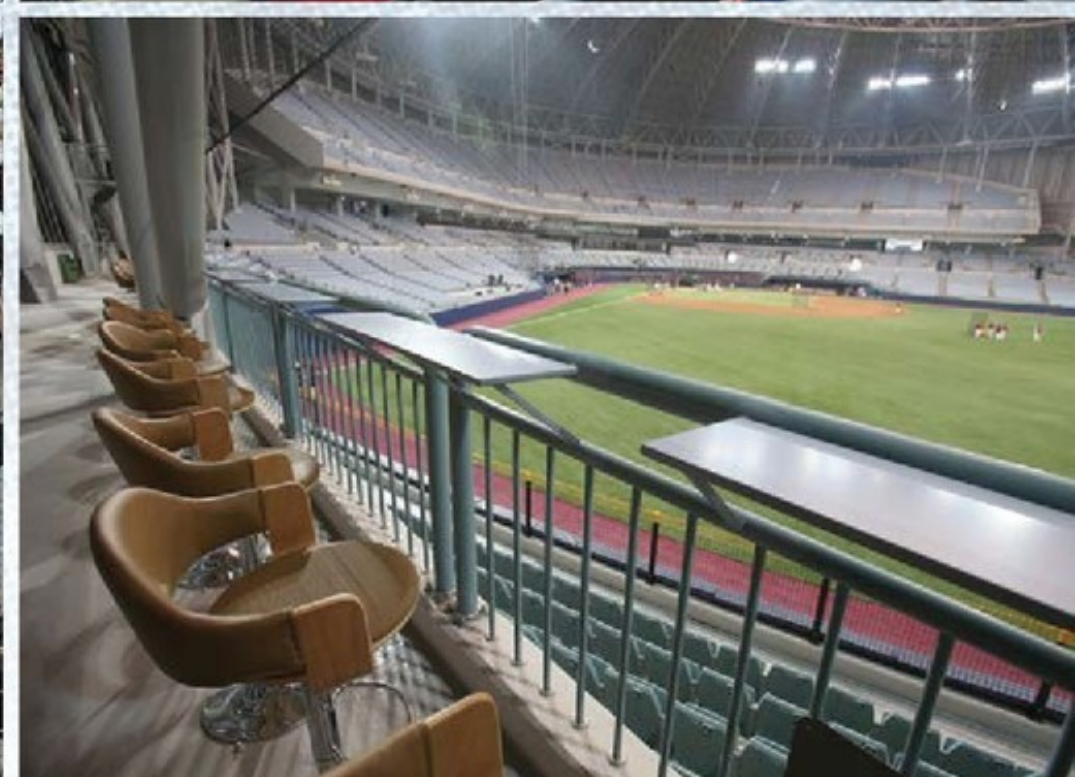
기아타이거즈, 스카이박스

푹신한 자동차 시트 좌석에서 즐기는 야구 경기

아늑하고 편안한 실내에 기아 자동차 K3의 시트를 그대로 가져다놓은 관람석이 특징인 프리미엄 좌석. *3루 14인실 시즌권 기준 약 6천만 원대부터.*

롯데자이언츠, 로케트 배터리존

야구 관람과 글램핑을 한꺼번에!

텐트와 캠핑 의자가 비치되어 있어, 마치 야외에서 글램핑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관람석. 데크 공간도 널찍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특히 인기라고 한다. *6인 기준 25만 원대.*

응원석

야구장의 꽃은 응원이다. 응원단장의 리드와 치어리더의 율동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사위를 펼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한때 안전상의 이유로 외야에서 응원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전 구단이 1루와 3루 내야 관중석으로 응원석을 통일했다. 경기 진행 과정도 잘 보이니 응원단상 인근의 좌석은 삽시간에 티켓 예매가 끝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앞쪽 응원석(오렌지석)의 가격은 잠실구장 기준 18,000원, 뒤쪽(네이비석)은 13,000원이다. 응원단을 중심으로 한 응원은 공격 때 진행되는데, 이때는 모두가 일어서서 응원을 하는 게 기본이다. 앞 사람이 일어서 있다고 "안 보여요. 앉아요" 하면 이상한 사람 된다. 단, 파울타구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파울볼이 날아오면 잡을 생각 말고 피할 생각부터 해야 한다. 즐겁게 야구 보러 가서 다치면 본인만 손해잖아?

프리미엄석, 테이블석

먹는 재미도 야구장을 찾는 이유 중 하나다. 치킨과 맥주가 대표적이었던 야구장 음식은 이제 피자, 삼겹살, 초밥, 회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포수 뒤에 위치한 프리미엄석의 경우 주문한 음식을 자리로 배달해 주기도 한다. 기자석에서 한눈에 보이는 자리인데, 각종 음식들이 펼쳐진 것을 보면서 배가 고파질 때도 많다. 프리미엄석은 포수 바로 뒤의 좌석을 기준으로 배정된다. 그물 뒷자리라 안전하고, 경기의 흐름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테이블이 있어 음식을 먹으면서 경기를 보기에도 편하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 잠실구장 기준 티켓 가격은 1인당 80,000원이다. 고척스카이돔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 등 일부 구장의 프리미엄석은 경기 내내 TV 중계 화면에 본인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이왕 찍힐 거 이쁘게 하고 가자. 참고로 포수 뒷좌석이 처음 생겼을 때 어린 팬들이 투수에게 '상대 주자 도루한다'고 손짓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안 통한다. 한편, 테이블석은 프리미엄석 양옆으로 날개를 펼친 듯 배치된 좌석이다. 구단마다 다르나 프리미엄석보다 좀 더 높은 위치까지 자리가 펼쳐진 게 특징. 프리미엄석과 다른 점이라면 테이블이 더 작고 중앙에서 멀다는 것뿐이다. 역시 굉장한 인기 좌석이다. 잠실구장 기준으로 평일 47,000원, 주말 53,000원.

외야석 및 내야 중앙석

외야석은 마운드와 거리가 멀지만, 여러 매력이 숨어있다. 우선 좌석 가격이 잠실구장 기준 8,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포수가 어떤 위치에서 투구를 받아내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특히 좌익수나 우익수에 좋아하는 선수가 배치된다면, 바로 앞에서 그 선수의 움직임을 볼 수도 있다. '홈런볼'을 잡을 수 있는 특권도 외야석에만 주어지니 1만 원 이하의 가격에 이만한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여가생활도 없다.

탁 트인 구장, 아드레날린 뿜뿜! 매력 가득 축구장 직관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의 매력에 빠졌다면, 직접 경기장에 가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보는 것을 추천한다. 축구장도 야구장처럼 사방이 탁 트여있어 맑은 하늘 아래서 뛰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다 보면 아드레날린이 분출된다. 참고로 필자는 축구장에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 TV로 보는 게 훨씬 잘 보이지 않겠느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일단 직접 가보시라.

서포터석

축구장의 좌석은 크게 둘로 나뉜다. 사이드라인 쪽 좌석과 골라인 쪽 좌석이다. 구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에 관계없이 골라인 뒤쪽 좌석은 서포터석이다. 서포터석에서는 서포터의 대표 격인 콜리더의 선창에 따라 신나게 응원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 된다.

신나게 소리 지르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점이 서포터석의 매력이다. 온갖 팬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 팬 비율이 늘면서 자중하는 분위기다. 경기 중에는 대부분 일어나서 관전하는 게 매너. 서포터석 맨 앞줄은 선수들의 사진을 찍으려는 팬들로 붐비기도 한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골 장면을 눈앞에서 볼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선수가 서포터들과 함께 기쁨을 느끼고자 관중석으로 침투하기도 한다.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이다.

여기서 한 가지 팁. 원정팬 좌석은 거의 대부분 골대 뒤쪽으로 한정되어 있다. 홈팀 서포터들의 반대편이다.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원정석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홈팀 팬들에게만 열려있다. 원정석이 아닌 구역에서 원정팀의 유니폼을 입거나 머플러 등을 걸고 있다가 적발되면 바로 퇴장 조치되니 쓸데없이 푯값 날리지 말자. 가격은 기본 16,000원 ~18,000원 선. 시즌티켓이나 회원 혜택이 잘 돼있으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꼼꼼히 알아보자.

사이드라인석

보통 E석(동측)과 W석(서측)으로 나뉜다. 그 안에서도 VIP석 등의 특석이 있으니 본인의 니즈에 맞게 티켓을 구매하면 된다. E석에는 치어리더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서포터석처럼 경기 내내 일어서서 점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또 W석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관전하는 분위기라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그냥 서포터석으로 가면 된다. 또 하나의 꿀팁으로 E석과 W석의 상단 좌석은 그라운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흡사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축구를 보고 싶다면 강력 추천한다. 평균 가격은 E석이 18,000원 ~20,000원, W석은 24,000원 선이다. K리그의 모든 구장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면 된다.

좌석 선택 변수: 시야

축구장은 야구장과 달리 운동장의 형태에 따른 변수가 존재한다. 축구전용으로 지어진 구장과 트랙이 설치된 종합운동장의 시야 차이가 상당하다. FC서울의 홈구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수원 삼성의 홈구장인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축구전용 구장이다. 동서남북 어디에 자리를 잡든 시야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한국과 이란의 A매치 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2층에서 경기를 봤는데도 상황을 확인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반면 트랙이 설치된 종합운동장의 경우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홈팀의 경우 대부분 골대 뒤쪽 트랙에 가변석을 설치해 최적의 시야에서 경기를 관전할 수 있지만, 원정석의 시야는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E석과 W석도 축구전용 구장만큼 시야가 좋진 않다. 필자의 경험에 따른 분석인 만큼 골수 축구팬들의 생각과는 사뭇 다를 수도 있다. 선택은 역시 본인의 몫이다.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좌석수만 60,000석이 넘기 때문에, 국가대표 경기가 아닌 이상 매진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 한번쯤은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국가대표팀 A매치는 어떨까?

축구팬들의 로망 중 하나. 국가대표팀의 A매치 관전이다.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 등 대표 선수들의 플레이를 현장에서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축구팬들은 가슴이 뛸 것이다.

A매치의 경우 좌석 배치가 K리그와는 조금 다르다. 1~3등석과 응원석인 레드존 등으로 구분된다. 관심도가 높은 매치의 1~2등석 티켓은 예매를 시작하기 무섭게 팔려나간다. 필자가 관전했던 한국-이란전 좌석도 '3등석'이었다. 그나마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시야가 나쁘지 않았지만,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던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월드컵 예선 때는 2등석을 끊고도 트랙에 막혀 최악의 시야에서 경기를 봤다. 축구전용 구장과 종합운동장의 차이를 인지하고 예매를 하면 참사를 막을 수 있다.

LAYOUT 이동림 IMAGE 고척스카이돔, FC서울, 잠실야구장,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및 각 구단 공식홈페이지/SNS

[국] 음모론의 수북한 음모.txt

현실 부정, 사실 왜곡. 근현대부터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K음모론 흑막.

BY **박중우**

위기를 성공으로 이끈 선전
정치도 예술이다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북한의 대남 도발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바다 위에서 내부에서 터진 폭탄에 의해 폭발한 뒤 실종,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서울 88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 6·10 민주항쟁으로 얻어낸 제13대 대통령 직선제 선거를 보름 앞둔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비행기에 폭탄을 설치한 범인은 북한의 특수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 2인조였다. 두 사람은 체포 직후 청산가리 캡슐을 깨물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김현희는 남한 요원에게 알약을 빼앗겨 자살에 실패한다.

올림픽 & 선거를 일타쌍피 클리어

당시 북한은 남한이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는 것을 정신병 수준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했다. 대외적으로는 "야, 올림픽 그거 나랑 같이해야 의미가 있지. 너 지금 혼자 그러는 거 우리랑 통일 안 하겠다는 소리야?" 따위의 헛소리로 공갈을 일삼았고, 뒤에서는 크고 작은 테러 사건을 일으켜 무력 시위를 병행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이 철석같이 믿던 러시아와 북한이 서울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저지른 일이었다. 이 일로 '서울 올림픽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퍼트리려는 시커먼 속셈에서 비롯한 잔혹한 살인 테러였던 것이다.

한편, 전두환 정부는 체포한 김현희를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에 맞춰서 한국으로 압송했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당시 군부 세력이던 전두환 정부가 민간인 출신 후보자 김영삼과 김대중 후보를 제끼고 영혼의 깐부였던 노태우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려는 의도였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폭발했고, 그것이 북한 공작원의 테러이며, 115명이 잔혹하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국민의 반공 정서와 안보 불안감을 자극했다. 이는 북한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으리라 의심받던 김대중과 김영삼에게는 직격타로 작용, 결국 노태우가 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음모론 1. 전두환, 너가 비행기 일부러 터트렸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의 대응이 너무 느리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 제13대 대선 당시 전두환의 간첩 압송 어시스트가 노태우 당선에 강력한 한방을 만들어준 사실이 결합해 음모론이 탄생한다. 이 사건의 주체가 북한이 아닌 전두환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사는 물론, 16년 뒤인 참여정부의 재조사에서도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음모론 2. 얘들아, 이거 폭탄 터진 거 아닌데?

간첩도 체포하고, 비행기 추락 원인까지 조사가 끝나 사건이 대충 윤곽을 드러냈을 때 사고 비행기에 실렸던 구명보트가 발견됐다. 범인의 진술에 의하면 보트는 폭탄 설치 장소와 아주 가까운 위치였으나, 보트에선 아무런 폭파 흔적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리고 2년 뒤, 추락한 비행기의 기체 파편이 발견됐다. 이를 정밀하게 검사한 미국 MIT 항공우주학과 박사는 발견한 파편에 있는 상흔들이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가 연구한 자료들을 번개처럼 폐기하고 입을 다물면서 의혹만 남아있는 상태다.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일제풍수모략설(日帝風水謀略說)

역사 왜곡

음모론은 대중의 한(限)을 먹고 자라는 걸까? 한국은 유독 일본과 엮인 썰이 많은데, 개중 볼 만한 것이 풍수와 엮인 음모론이다. 경복궁 면전에 떡하니 조선 총독부를 지어둔 것은 조선 왕실의 기운을 차단하기 위함이요, 서울 상공에서 사진을 찍으면 건물의 옥상이 마치 大 / 日 / 本 (대 / 일 / 본) 모양으로 보인다는 썰, 일본 주술사들이 민족정기를 박살 내겠다며 기와 맥이 흐르는 풍수 자리마다 쇠말뚝을 수백 수천 개 박았다는 썰까지. 그럴듯하지만 풍수나 주술은 미신의 영역이라 '학교 운동장에서 세종대왕이 이순신 뺨을 때린다'와 다르지 않은, 다만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많을 뿐인 카더라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출동하면 어떨까?

김! 영! 삼!

군사독재 시대의 끝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군부 세력과 일제의 잔재 등 어두운 과거사를 깨끗하게 청산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리고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김영삼 대통령은 "일제가 설치한 쇠말뚝을 모두 찾아 제거하라"라고 명령한다. 전국의 공무원에게 비상이 걸렸다. 쇠말뚝의 존재는 말 그대로 루머고, 그 어떤 증거나 일말의 기록도 없었다. 한 마디로 좆된거지. 그렇다고 쇠말뚝 같은 건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대통령님이 쇠말뚝을 뽑아오랬으니 시발, 일단 나가서 야산 뒤지는 시늉이라도 해볼 수밖에.

공무원들은 전국에서 쇠말뚝 제보받았다. 관할 지역 야산을 헤집고 다니며 산삼보다 귀하다는 쇠말뚝을 찾았다. 힘들게 발견하더라도 그걸 뽑으면 끝이냐? 3가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1. *말뚝이 일제 강점기 시절 물건이 확실한가?*
2. *말뚝이 꽂힌 곳이 풍수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가?*
3. *주술이나 저주를 목적으로 사용한 말뚝인가?*

1번이야 과학적 방법이나 생김새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는 해도, 2번, 3번은 아주 지랄이다. 하여, 풍수와 주술이라는 미지의 힘에 맞서 공무원 친구들도 미신의 힘으로 맞불 작전을 펼쳤다. 동네에서 용하다는 풍수 전문가와 무당을 고용하기 시작한 것. 그들은 그렇게 말뚝을 찾을 때마다 무당을 찾아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오는지 감정을 받았다.

말뚝 제거 사업 기간 6개월, 총 439건의 제보가 있었다. 13개 지역에서 18개의 일제 쇠말뚝을 제거했다. 반년 동안 존나게 뺑이친 수천 명의 공무원, 심지어 군인 수백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까지 펼친 덕에 얻어낸 값진 결과, 십팔 개였다. '일제가 사용한 주술 말뚝이 맞다' 라고 감정한 전문가는 모두 인근 지역 무당과 풍수사였고, 그들이 진짜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 그나마도 한 개는 그거 내가 심었소 주장하는 노인의 의견도 있었는데, 해당 군청이 필사적으로 못 들은 척했다니 비밀로 해주자. 어쨌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십팔 개나 찾아냈다. 숫자도 딱 좋지 않은가. 십팔 개.

진짜 목적: 반일 선동?

정치하는 인간들이 반일! 종북! 몰아가며 표 장사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반일 정서에 열을 올렸다. 선동 포비아가 있는 나로서는 시발 또 뭐 하려고 저렇게 긁어놨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당시 그의 반일 정서 부풀리기가 오늘날 어떤 집단들이 써먹는 것처럼 단기간 폭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선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자기가 부풀린 국민의 반일 감정에 힘입어 비단 자신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많은 것을 해냈으니까.

가령 황국신민을 양성하던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꿨고,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다. 당시에 갖은 이유를 대가며 반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거셌으나 김영삼은 그대로 진행시켜!를 외쳤고, 지금 와 돌아봤을 때 이것들이 그의 업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거다. 그는 또한 일제가 세금 뜯으려고 만들었던 지번동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교체했다. 호불호는 있겠지만 적어도 개정 의도 자체는 좋지 않은가?

아쨌거나 쇠말뚝 사건은 김영삼을 공격하는 반대 진영에게는 아주 즐거운 해프닝이었다. 당시 칼럼 몇 개 읽어보니 아주 칼춤을 추더라. 여튼, 김영삼이 일제 쇠말뚝 카더라를 음모론으로 격상시킨 일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선동(전혀 없지는 않겠지만)보다는 일제를 청산하겠다는 목적의식이 그래도 크다고 생각하므로 이만 패스.

조선총독부 건물 완전 철거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은
완벽한 거짓말보다 강력하다

환단고기(桓檀古記) / 유사 역사학

고조선 이전의 환국부터 고려까지, 우리 한민족의 숨은 역사와 초인적인 기상을 모아둔 기적의 역사서 〈환단고기〉. 그에 따르면 우리 한민족은 호모사피엔스 종(種)의 근본,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인류가 뗀석기 들고 뛰던 시대에 유럽부터 아시아 대륙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던 초거대 문명을 이룩했다. 종교와 문화 등 소프트 파워는 어떤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공통 시조라는 아브라함은 한국인다. 유교 보이 공자와 일본 천황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다. 세계 최초로 철기와 글자를 발명한 것도 우리 한민족이다. 쩐다 싶으면 K가 붙어있는 짜릿한 국뽕 스파크에 불알이 촉촉하거늘, 어쩌다 이것이 대표 국산 음모론으로 불리고 있을까?

1979년, 사학자 이유립이라는 인간은 일찍부터 친일하는 쾌락에 맛을 들인 성골 매국노였다. 덕분에 그가 집필한 〈환단고기〉에는 '중국은 우리 영토 날치기한 날강도! 일본은 한민족의 칭규 ~♥'라는 세계관이 자리잡혔고, 이는 당시 일제가 밀던 '일선 동조론(일본과 조선은 같은 민족)', '대동아공영권(아시아 통일! 중국 공격!)'과 맥락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

조선 학자가 일제 똥꼬를 빨아준다는 소식에 발작 버튼이 눌린 조선 학자들이 〈환단고기〉를 '민족주의 탈을 쓴 친일 선동'이라며 바쁘게 물어뜯었지만, 대중은 막장 드라마에 열광하게 되어있는 법. '찐따 같은 빵셔틀(한민족)이 알고 보니 일진짱'이라는 막장 스토리로 빚어낸 국뽕 마취제는 강력했다. 이내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환단고기의 추종자, 일명 환빠들이 대거 생겨났다. 이들은 되려 쌍욕을 갈기던 진또배기 사학자들에게 '한민족의 참역사를 은폐하는 반민족 집단'이라며 역딜을 꽂았다.

음모론의 목적: 나는야 교주 될 거야!

이유립이 역사학계에 분란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뭘까. 그는 '고성 이씨' 가문이 한민족의 참역사를 대대로 지켜왔으며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 회복'이라는 사명을 위해 온 가족이 피똥을 지렸음을 강조한다. 이후 고성 이씨는 한민족의 히어로 타이틀을 획득했으나, 그의 진정한 목적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유립은 〈환단고기〉를 경전 삼아 태백교라는 종교를 창시한다. '홍익인간' 교리에 따라 조선을 넘어 일본인조차 이롭게 했으나 짱깨에겐 빠꾸가 없었다. 친일반중&애국보수 종교의 탄생이었다. 수천 년을 장수하겠다던 전능하신 교주는 1986년에 사망한다. 이후 환빠는 처참하게 공중분해...는 개뿔, 2011년에 느닷없이 환단고기를 경전으로 삼은 현대 종교로 부활! 그들은 지금도,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강연 & 독후감 대회 등을 앞세워 포교하는 일에 매진 중이다. 〈환단고기〉니까... 고기를 많이 멕여주나?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 & 세월호 침몰 사고
대형 참사

2010년 백령도 근처 바다에서 북한 잠수정 어뢰에 맞아 우리군 46명이 전사하고 침몰한 천안함 사건, 2014년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이 침몰해 승객 299명이 사망, 5명이 영구 실종된 세월호 사건. 두 사건 모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 말입니다...

1. 천안함 침몰,
어뢰는 누가 발사했는가?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당했다'라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문장이 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이 문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이해하기 싫은 집단도 있다. 이들이 천안함 사건에 태클을 걸 때 가장 자주 인용하는 근거는 폭발한 어뢰 내부에 쓰여있던 '1번'이라는 한글 표기가 '폭발했는데도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폭발했다면 검출될 리 없는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온 국제 전문가 조사단 24명이 만장일치로 '북한이 발사한 어뢰가 폭발한 것이 명백하다. 이 결론을 의심할 어떤 이유도 없다'라며 입을 모아도 소용없다. 음모론자의 눈에 이 전문가들은 사건 뒤에 가려진 흑막을 보지 못하는 우매한 인간들의 주장일 뿐이다.

사건 당일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음모론을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어뢰가 폭발하지 않았고, 다른 무언가로 인해 침몰했다는 결론까지 다다르면 이제는 파티다. 암초설, 모래톱 좌초설, 금속 피로설, 유실 기뢰설, 동맹국 잠수함 충돌설 등 각자의 결론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심지어 양립할 수 없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인간끼리도 서로 의견과 정보를 나누며 응원하기도 한다. 북한만 아니면, 북한이 발사한 어뢰만 아니라면 사실 침몰한 원인이 뭐든 상관없으니까.

2. 세월호 침몰, 진실을 은폐하는 세력

누군가 마이크를 잡는다. 그의 입에서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 배가 침몰한 것이 정부의 탓이라는 말일까? 그럼 대통령을 조지면, 배를 침몰로 몰고 간 선체의 기계적 결함이 밝혀지겠다.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선박 안전 규정의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알 수 있겠다. 오직 정권 교체만이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참된 애도이며, 다가올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겠구나.

정말 그런가? 배가 가라앉았고, 아이들이 죽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까. 배가 침몰한 원인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배를 잘못 증축했다거나, 과도한 선적이라던가 조타장치가 고장 났다는 등 침몰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기계적 결함이 무엇인지, 혹은 미흡한 선박 안전 규정 따위의 사회구조적 결함을 찾아서 개선해야 한다. 우리가 인양해야 할 모든 진실은 대통령이 아니라 세월호에 있을 텐데.

배를 바다에서 끄집어낸 뒤, 이들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라는 사건 규명 전담반을 꾸렸다. 세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은 모두 침몰의 원인이 배 안에 있을 것이라고, 침몰에는 그 어떤 외력도 작용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핸들은 사참위가 갖고 있었고, 이들은 언제나 외인설을 고집했다. 누군가 본 것 같다는 잠수함을, 그 흑막을 밝혀서 이 거대한 비극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가지의 자료와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들은 잠수함이 세월호처럼 큰 배에 타격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실험을 끝없이 반복하게 했다. 전문가들이 끝내 '잠수함이 없음'을 증명하면, 또 다른 잠수함 시나리오를 가져와 또다시 증명하게 만들었다. 이 뻘짓을 3년 반 동안, 570억 원의 예산을 써가며 반복했다. 그동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진상을 규명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이들은 "결국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라는 570억 짜리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기다렸다는 듯 전문가 측에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공개했다. 잠수함이냐고? 그럴 리가. 전문가들이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배의 결함,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얽혀 빚어진 '사고'였다.

지난 9년 간, 그들은 사고 원인을 빠르게 찾아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저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에 최대한 오래 분노하고, 잊지 않겠다는 슬픔을 정부에 대한 혐오로 바꿔 토해내기를 바랐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에서 도피하는 방법을 궁리했다. 이들은 세월호에서 '참사'가 집권 여당을 몰아세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강렬하게 학습했다. 이젠 어디서 '참사'라는 소리만 들려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달려가서, 함께 슬퍼하는 그림으로 대중의 분노를 불처럼 키워내고 기름을 붓겠지.

지난 이태원 참사는 어떤가. 그 슬픈 현장을 보고 민주당이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학생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했다"였다. 죽음을 보자마자 정치적으로 써먹을 궁리에만 빠진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다. 인파 사고 안전대책 부재? 재난관리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논의? 선동하길 즐기는 분들은 이런저런 자신들이 정치적 의도에 사망자들의 이름을 덕지덕지 발라서 전시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시끄럽더라. 미국 소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려서 처참하게 죽는다고 광화문 광장이 촛불로 반짝이던 날이 떠오른다. 15년 정도 지났는데, 광우병 뭐 있었는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 위험한 것에 경계하고 대비하는 태도는 백번 옳다. 하지만, 적어도 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날조해서 대중의 공포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써먹으려는 인간들에게 우리가 쉽게 당해 주지는 말자는 거다. 음모론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서 싹튼다. 당신의 감정을 누군가의 음모를 위한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

IMAGE PHOTOGRAPHERHAL

현실도피 잘(?)하는 법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BY 〈남자훈련소〉 대군사 스네이크
/ 인(기없는)남(자들의)모(임) 회장 이순근

본의 아니게 지난달 칼럼에서 이미 '현실도피'에 대해 쓰게 됐다

6월호 맥심 주제는 키스였다. 나는 주변인들에게 키스를 잘하는 법에 대한 칼럼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키스를 잘하고 싶어서 맥심을 사서 읽었다는 지인의 항의를 들어야 했다. 6월호에 실린 내 칼럼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키스를 잘하는 법이 아닌 키스를 잘 대체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으니 항의를 받아도 어쩔 수 없었다. 이번 달 주제를 예견한 듯이, 이미 저번 달 원고에 현실도피를 녹여냈던 것이다.

지난 글에는 '첫키스는 액정맛'이라는 인터넷상의 명언이 인용되어 있다. 연애 시장에서의 현실도피를 관통하는 명언이다. 아마 '빛이 있으라' 급에 필적하리라 본다.

'인기 없는 남자들 모임(인남모)'에서 6여 년간 연애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정신 승리와 현실도피를 목격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자는 연애를 하고 싶어서 눈을 낮췄다는 인없남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들어온 상담 신청에서 상담자는 눈을 낮췄더니 애인이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는 미소녀 그림을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더라. 눈이 아니라 차원을 낮춘 것이었다.

연애 시장에서의 현실도피는 이처럼 웃픈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고백 공격, 옷깃만 스쳐도 손주의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인없남들의 특성도 현실도피에서 비롯된 기출변형인 경우가 많다.

현실감각이 뛰어날수록 현실도피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현실도피를 하는 사람들을 나약하거나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오히려 이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주변을 빠르게 파악하는 사람들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나약한 자신의 멘탈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을 때 발생하는 것이 현실도피다.

말하자면 차원을 낮추고, 고백 공격을 꿈꾸는 남자들은 본인의 수준과, 외모와, 언변과 매력을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않냐'는 일말의 비양심을 품기 마련이다.

눈을 낮추면 뭐라도 생긴다길레 낮췄더니 정말 생겼습니다

이쁘죠

높인거 아닌가요?

차원을 낮췄습니다

인정합니다

언제든 무너질 현실도피처, SNS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이 활발해지면서 가상공간으로의 현실도피도 활발해지고 있다. 평범하거나 오히려 약간 못생긴 사람들도 온갖 필터와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내가 아닌 나의 계정을 운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실의 나는 직장도 없지만 SNS 속의 나는 완벽한 비키니 몸매에 특급호텔 수영장에서 여가를 즐긴다. 현실도피를 위해서라면 온라인상에서 가상의 인물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SNS 또한 결국은 현실에 존재하는 부산물일 뿐이다. SNS 셀럽들의 실제 모습을 공개하는 방송이 화제가 된 것처럼 그곳은 온전한 비현실이 아니라 언제든 무너져 내릴 도피처다. 일상을 완벽하게 꾸미고 허세 가득한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본인이 실제로 쭉쭉빵빵한 충격섹시 셀럽녀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자신이 지금은 조금 못나가더라도, 인스타의 가짜 모습을 목표로 자신을 디벨롭하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런 사람은 SNS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현실도피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현실의 나를 발전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싫으니까 하는 게 현실도피다.

이제는 AI까지 셀럽을 한다

현대사회는 이런 현실도피가 마냥 쓸모없지만은 않다. 온라인으로 망명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진짜 현실이야 어찌 됐든 온라인상의 이미지만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심지어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에서 노출되는 가슴, 화장품 등이 더 중요하고 그걸 타깃으로 광고도 계약한다. 그걸 광고하는 셀럽이나 셀럽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진짜 현실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어차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도피용 부캐에 돈을 그렇게 쏟아부을 거라면, 아예 무에서 창조된 캐릭터인들 아무 상관 없는 것 아니냐는 거다. 이제는 아예 사람도 아닌 AI로 만들어진 셀럽들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얘들은 허세샷을 찍기 위해 비싼 골프장 필드비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명품 가방을 무리해서 살 필요도 없으며, 보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완벽한 몸매를 자랑한다. 과연 이 경쟁의 승리자는 누가 될 것인가.

결국 우린 현실을 살아야 한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언제든 그곳은 다시 현실이 되고 그때는 그 공간에서조차 도망쳐야 한다. 아무리 현실이 팍팍하고 자신의 이상과 오만 광년쯤 떨어져 있다고 해도 아예 현실에 등 돌려서는 안 된다. 그게 연애 시장이건 SNS상에서건 결국 우리의 승부처는 현실이다.

아무리 온라인이 활발해졌다고 해도 액정맛 키스보다는 립밤맛 키스가 나은 거 아니냐 이거다. 아바타를 꾸미는 대신 옷을 사고 바버샵을 가자. 2D랑은 섹스 못하잖아.

현생 로그아웃은 우스갯소리일 뿐이다. 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낫다는 얘기는 그냥 현생은 누구에게나 똥밭이라는 이야기다. 나만 똥밭에 있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내 친구도, 부모님도, 유명인도 전부 열심히 구르고 있는 게 삶이다. 데스크 위로는 말끔한 정장이지만, 그 아래에는 사각팬티만 입고 있는 새벽 타임 아나운서처럼 화려한 온라인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서 개같이 구르는 게 정상이다.

힘들고 지칠 때는 가끔 SNS도 하고 문제를 뒤로 미뤄두고 재충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릴리트를 잡기 위해 성역으로 잠깐 현실도피를 했다가도, 편집장님의 부름에 성역에서 로그아웃을 했듯, 언제든 현실로 돌아오는 스위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나도 슬슬 현실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자본주의와 책임감 때문에 잠깐 현실을 떠나 생업을 처리해야 했다. 빨리 칼럼을 마무리 짓고 현실로 돌아가 고행 레벨의 성역을 탐험해야 한다. 오늘은 꼭 전설고유템 먹어야지.

LAYOUT 전수진 IMAGE 영화 〈Fabulous〉

현실도피? 인생역전!

시궁창 같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황홀하게 바뀐다면? 대리만족 쌉가능한 여섯 편의 웹소설 내용을 바탕으로 행복한 망상을 즐겨 보자. BY **윤정도**

상상 1.

4년차 공시생 ➔ 국내 원탑 아이돌
〈데뷔 못 하면 죽는 병 걸림〉 BY 백덕수

"흠… 이맘때 즈음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 하나가 대히트 쳤었지?"

몇 년 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어김없이 낙방한 당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난생 처음 보는 훈남 소년이 되어 모텔 침대에 누워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대박인데 날짜를 확인하니 심지어 수 년 전으로 타임 리프까지 했다! 거기다 친절하게도 스탯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눈 앞에 상태 화면까지 뜬다. 행운이 너무 디테일하게 찾아온 것 같아 황당하지만 어쨌든 신에게 감사하며 인생 2회차를 시작하려는데, 눈 앞에 "정해진 기간 내로 아이돌로 데뷔하지 못 할 시, 사망"이라는 경고 문구가 뜬다… 일단 살고 보자. 아무래도 프듀 나가는 게 빠르겠지? 조작 피해 안 당하려면 몇 등 해야 하더라?

상상 2.

배달 앱 라이더 ➔ 세계 최고의 IT 개발자
〈싱글 대디의 세컨드 라이프〉
BY 홈스탠바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이 현재 보고 있는 컴퓨터 화면도 띄울 수 있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가족의 빚 문제로 나이 서른에 애 딸린 이혼남이 된 당신. 생계를 위해 배달로 근근이 먹고 산다. 어느 날, 배달 중 번개를 맞고 기절한 뒤 일어나 보니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린다. 목소리의 정체는 먼 미래에 개발된 인공지능 생체컴퓨터 '알파'. 벼락을 통해 미래의 기술이 차원을 건너온 모양인데, 본인(알파) 말에 의하면 당신의 뇌 안에서 전 세계의 모든 프로그램을 순식간에 해킹할 수 있단다. 그게 말이 되냐 이 시리 새ㄲ… 어? 갑자기 통장에 10억이 입금? 이 미친한 육신은 이제 알파 님의 것입니다.

상상 3.

20억 빚 채무자
➔ 천재 외제차 딜러
〈영업 천재가 되었다〉 BY 댄킴

"잘 살아. 이번엔 후회하지 말고. 너 임마. 운 좋은 줄 알아."

외제차 영업 사원인 당신은 아버지가 남긴 20억의 빚을 14년 만에 모두 청산해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게 된다. 그때 짠! 하며 꽃미남 저승사자가 나타나 이번 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당신의 대답은?
1번,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븅신처럼 인생을 갈아 넣은 것.
2번,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실 수 있게 빚을 더 빨리 갚지 못한 것.
상식이 있다면 1번을 고르겠지만 놀랍게도 현답은 2번이었다. 슈퍼 파파보이의 효심에 감복한 저승사자가 2회차 인생을 선물한다. 과연 당신은 자동차 딜러로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상상 4.

10연패 아마추어 파이터
➜ 고대 전사가 빙의된 격투의 신
〈옥타곤의 빌런〉 BY 블루티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아드레날린 중독."**

당신은 10전 10패의 전적을 자랑(?)하는 아마추어 MMA 파이터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잠이 들었는데 뜬금없이 고대 그리스 팡크타리온의 노예 검투사가 되어 눈을 뜬다. 피 튀는 살육전과 대전쟁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뒤 5년 만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마치 생생한 꿈을 꾼 듯 현세의 시간은 불과 5시간이 지났을 뿐이다.
5년간 직접 체득한 거친 기술과 생존 본능이 몸과 마음에 깊이 남아있다 보니, 그날 이후 맞붙는 격투기 상대의 패턴과 기술이 잼민이들 장난처럼 귀엽고 느리게 느껴지는데... 이 정도면 UFC가 아니라 슈퍼히어로로 데뷔해도 되겠는데? 아니면 빌런이 되거나.

상상 5.

노가다판 말단 잡부 ➜ 거대 그룹 회장
〈전설의 건설 재벌〉 BY 손은눈보다

"그래, 어쩌면 직업의 신이 있어 나에게도 기회를 준 건지도 몰라."

변변찮은 기술 하나 없이 현장 일용직 잡부로 노가다판을 전전하는 당신. 그러다 타일공으로서 전국 열 손가락 안에 든다는 이희춘의 눈에 들어 그의 도제가 되는데, 막상 스킬을 배우려니 타일 한 장 붙이는 것조차 보기와 다르게 겁나 어렵다. 부족한 재능을 탓하며 좌절하려는 찰나,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상태창이 뜬다!
상태창에는 이름과 직업, 계승자의 정보는 물론이고 기프트 박스 등의 아이템까지도 표기가 된다. 졸지에 총 8만여 가지의 직업 스킬을 하나하나 계승 받을 수 있게 된 당신. 그래도 맥심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걸? 마감 땐 눈이 침침해져 상태창이 떠도 안 보일 거여.

상상 6.

삼류 무협지 작가 ➜ 베스트셀러 작가
〈빅 라이프〉 BY 우지호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건 편집장이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고. 이런 확신이 드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

당신은 동창들에게 늘 무시만 당하는 삼류 무협 소설 작가다. 길을 걷던 중 무덤가에 쓰러진 묘비를 일으켜 세웠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졸졸 따라오기 시작한다. 얼떨결에 냥줍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당신. 그날부터 갑자기 머릿속에 스토리가 미친 듯이 펼쳐지며, 몇 달에 한 권 쓸까 말까 하던 소설을 열흘 만에 일곱 권이나 휘갈겨 쓰기에 이른다. 알고 보니 며칠 전 마주했던 무덤의 주인이자 전설적인 소설가의 영혼이 당신의 몸에 일부 들어오게 된 것.
저기요, 유령 선생님... 실례지만 잡지 기사 같은 건 안 쓰시나요?

LAYOUT 전수진

MZ식 현실 도피 비용

MZ로 살기 너무 피곤하네 시발.
BY **배주영**

* 참고: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남녀 평균 소득은 각 229만 원, 212만 원. 그리고 30대 남녀 평균 소득은 각 362만 원, 294만 원이다.

RECEIPT

▶ TYPE 1. 오마카세

우리나라에 미식가가 이렇게 많았나? 2030 사이에서 안 가본 녀석 찾기가 더 어려운 그놈의 오마카세. 얼마나 많이들 가는 건지 '스'강 신청이라고 부를 만큼 사전 예약 경쟁부터 치열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개빡센 게 가격이다. 일본어로 '모든 메뉴를 주방장에게 맡긴다'라는 의미 그대로 식사 처음부터 끝까지 주방장의 정성과 노동력이 갈려 나가기 때문. 나름 가성비 좋다는 가게도 저녁 한 끼 먹는 데 1인 평균 11만 원이 나오고, 하이엔드급 오마카세는 평균 27만 원이 우습다. 여기에 못 해도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사케 한 병까지 깠다? 이보다 갓벽한 디너가 있겠냐고! 시발 나만 손가락 빨고 있었던 거구나...

MOTTO　맛집 뿌셔! 지구 뿌셔!

mz__2030
○○ Hotels & Resorts

좋아요 1,086개

mz__2030 생일 기념 오랜만에 온 #호캉스❣️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가구 호텔 안에서 완전 뽕 뽑았다 😂 ㅋㅋㅋ #애프터눈티세트 부터 #망고빙수 까지 부지런히 클리어!🔥 이렇게 또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 만들고 갑니다아아! 💗💗
.
.
그나저나 올해 첫 호캉스인 거 실화...? 😶
#호캉스 #HBD #생일주간 #생일 #OO호텔 #호텔수영장 #소확행 #힐링 #내일부터_다이어트

좋아요 622개

mz__2030 오랜만에 발견한 #나만알고싶은곳 🍣🙏🙏
.
가게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부터 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흠잡을 데 없는 갓벽한 #디너코스 에 2차 감동!😯 이렇게 괜찮은 곳 찾아낸 나 자신 칭찬해!!😯
다음에 나랑 같이 갈 사람~~?🙋
.
.
#스시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미슐랭 #미쉐린가이드 #청담 #디너 #먹스타그램 #청담맛집 #압구정맛집 #맛집 #도장깨기

RECEIPT

▶ TYPE 2. 호캉스

MZ세대 여성들의 우정 다지기 필수 코스 호캉스. 해외여행 대신 호텔 간다는 것도 옛말이다. 서울 5성급 호텔 기준, 숙박비 평균 금액이 무려 1박당 648,000원에 이르거든. 게다가 잠만 자고 올 순 없잖아...? 한 그릇에 10만 원 훌쩍 넘는 '#호텔_망고빙수'도 먹어야 하고, 귀족이 된 듯한 기분을 선사하는 '#애프터눈 티세트' 앞에서 사진까지 찍어줘야 진정 호캉스 기분을 누릴 수 있거든. 숙박비에 식비만 합쳐도 100만 원이 우습다만, 친구들과 N빵 하면 되니 다이죠부! 기념일, 생일주간(누가 시작했냐), 깜짝 특가, 성수기 패키지 이벤트 등등 가야 할 이유가 새고 샜는데 어떻게 안 가냐고요!!! 하지만 SNS가 없었다면 가지 않았겠지...

MOTTO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RECEIPT

▶ TYPE 3. 취미 골프

대한민국이 골프 강국이라는 증거요? SNS에 #골프 관련된 해시태그만 검색해도 고개 끄덕이게 된다! 40·50대 사이에서 유행하던 취미 골프가 이제는 MZ세대로 넘어왔기 때문. 실력 부족해도 연습장 생략하고 냅다 필드부터 나가 훗날 발전할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청춘들… 수도권 기준으로 골프장 시설을 한 번 이용하는 데 평균 20만 원이 들고 캐디와 카트 이용비까지 합치면 최소 30만 원은 깨진다. 거기에 여자들이 골프웨어를 한 번 사는 데 평균 28만 원이 든다고 하니, 나 같은 거지는 감히 흉내도 못 내겠네요…ㄷㄷ

MOTTO (재가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mz__2030
Seoul, Korea

좋아요 863개

mz__2030 주말에 심심해서 급 #서울_근교 #드라이브 🚘
.
(근데 혼자인 건 안 비밀… 🤫)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붕붕이 #세차 까지 하고 왔다!! 이 정도면 #혼자놀기 달인!? 😁 나도 이제 #베스트드라이버 😎 다음 주엔 어디로 가볼까~?🤔
.
.
#주말 #드라이브 #핫플 #나들이 #직장인 #현실도피 #혼자서도_잘해요

mz__2030
□□□CC

좋아요 2,379개

mz__2030 나는야 #날씨요정 😇✨
일기예보에 비 온다구 해서 시무룩 했었는데… 다행히 날씨 완전 짱짱이었다!💯
덕분에 #인생샷 까지 건짐📸
아직 마음만 앞서는 #골린이 지만 열씨미 연습해서 프로가 되는 그날까지❤️
뚝딱거리는 나 데리고 다녀준 @maxim_alist 고마워요 🙏🙆‍♀️🙆‍♀️
.
.
#골린이 #골프 #라운딩 #골린이성장일기 #명랑골프 #골프웨어 #골프룩 #라운딩룩 #golf #golfstagram #골플루언서

RECEIPT

▶ TYPE 4. 카푸어

빛내서 빛나는 인생을 살겠다는 녀석들이 있으니. 지갑 사정과 어울리지 않게 비싼 외제 차를 끌고 다니는 자, 이름하여 카푸어다. 월 차량 유지비가 월급의 30~40% 정도여야 현실적으로 탈 만한 차로 평가받는다고. 하지만 오로지 하차감만 보고 차 뽑는 카푸어들은 중고 외제 차라도 타줘야 직성이 풀린다.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차량 할부금까진 어찌어찌 돌려막기가 가능하겠다만, 사고나 고장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외제 차 수리비가 국산 차의 두세 배라던데(나는 차 없어서 모름, 헿)… 자칫하면 빛나는 인생에서 빛만 남은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다!

MOTTO 빛내서 빛나는 인생 살자

복날 제철 치킨 이야기

우리는 왜 복날에 닭을 잡을까? BY 김한솔

세계에서 사육 개체수가 가장 많은 가축, 닭

너네도 닭 좋아하는구나?

UN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식용을 위해 도축된 닭은 약 660억 마리라고 한다. 그다음으로 도축 수가 많은 오리가 약 26억 마리인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다. 또한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조류 중 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정도라고 하니, 월클로 두루두루 사랑받는 닭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복날에는 왜 닭을 먹을까?

맛있으니까!

예로부터 복날은 여름이 한창일 때인지라, 외부 활동이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농번기에 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체력 보충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힘과 수분 보충에 좋은 삼계탕이 복날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닭은 맛도 있지만 지방 함량이 적고 그이 비해 단백질이 많아 영양적인 측면에서 좋다. 값이 저렴한 것도 큰 장점.

다른 나라 친구들도 복날엔 닭다리 뜯나?

마 K-삼계탕 무봤나!

인도에서는 보양식으로 탄두리 치킨을 즐겨 먹는다. 닭고기에 향신료와 커리 등을 발라 숙성시킨 후, 진흙 오븐에서 구워내는데 기름기가 적어 담백하고 건강에도 좋다. 미국, 유럽 등 서양 문화권에서는 칠면조도 많이 먹는다. 육류 중 유일한 슈퍼푸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지방 고단백이다. 필리핀에서는 닭 친구인 오리... 말고 오리알을 먹는데, 그것도 수정된 오리알을 부화 직전에 삶아 먹는다. 그게 참 정력에 좋다는데, 한국 사람이 김치를 먹는 것처럼 필리핀에서는 무척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라고.

'닭대가리'의 진실

닭이 얼마나 똑똑한데!

주로 기억력이 나쁘거나 멍청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닭대가리. 하지만 닭은 간단한 연산은 물론 자기인지능력이 있어 감정도 느낄 수 있다. 20가지 남짓의 다양한 울음소리로 구애, 경고 등 의사 표현도 한다. 미국 동물보호단체인 팜 생추어리의 수석과학자 로로 마리노 박사는 "닭은 매우 복잡한 행동 양식을 보이며 상호 작용을 하며, 대략 7살 아이 정도의 추론 및 유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려닭이라고 들어봤니?

똥을 좀 많이 싸긴 하지만... 생각보다 귀엽거든요

몇 년 전,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이들과 마당에서 닭을 키우고 달걀을 얻는 게 유행이었다. 닭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당이 필요했으므로, 닭을 키우는 게 곧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반려닭은 꽤 인기가 있는 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있더라고? 똑똑해서 주인도 잘 알아보고, 달걀까지 꼬박꼬박 낳아주니 이만한 애완동물이 없다. 다만 대부분의 조류 특성상 괄약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똥을 아무 데나 뿌직뿌직 많이 싸고, 특히 수탉의 경우 무지 시끄럽다는 단점도 있다.

복날에 보자
새끼들아...

LAYOUT 진수진

꽤 쓸모있는 장마템

이번 여름 역대급 장마라던데… 얘네 없이 괜찮겠어? BY **배주영**

짱구는 못 말려도 신발은 말려

신발 건조기

장마철 축축하게 젖은 신발을 보송보송하게 말려줄 샤오미의 '제로원 신발 건조기'다. 바람이 아닌 열로 순환기류를 형성해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제품이라는데… 문과라서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다만, 아무튼 장마철에 필요한 물건이라는 건 알겠다! 미생물 뒤지기 딱 좋은 온도라는 70도로 말리기 때문에 살균 효과까지 있다고. 올 장마철에는 신발 속에 세균덩어리 데리고 다닐 일 없겠구먼! 가격은 18,900원.

볼륨에서 나오는 빵빵 자신감

USB 충전식 헤어롤

머리빨로 먹고 사는 녀석이라면 하나 장만해라. 언제 어디서든 방금 고데기 하고 온 머리로 만들어 주는 유닉스의 '테이크아웃 슈가 USB 헤어롤'. USB 충전 방식의 열 헤어롤로, 장마철에 습기 머금고 개같이 주저앉은 머리털도 이 녀석만 있으면 1분 만에 볼륨감을 되찾을 수 있단다. 충전부터 스타일링까지 5분도 안 걸리는 데다가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좋다. 맨날 앞머리 그루프 말고 돌아다니는 여친한테 사줘도 좋아할 듯! 11,900원.

카페인 중독자를 위한 우산

컵홀더 우산

장대비 쏟아져도 모닝커피는 포기 못 하는 직장인을 위한 머스트 해브 아이템! 나 대신 커피잔 들어줄 EK Design의 '컵홀더 우산'이다. 손잡이 끝에 컵을 끼워둘 수 있게 구멍을 하나 달아놨다. 비 오는 날 양손에 짐이 한가득이어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단 말씀!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한 제품이라 보기보다 사용감도 좋단다. 2010년 미국에서 굿디자인상까지 받았는데, 심사위원도 커피 없인 못 사는 양반이었나보다. 가격은 25,000원으로 우산 받쳐줄 노예보다 싸다.

생긴 건 좀 그렇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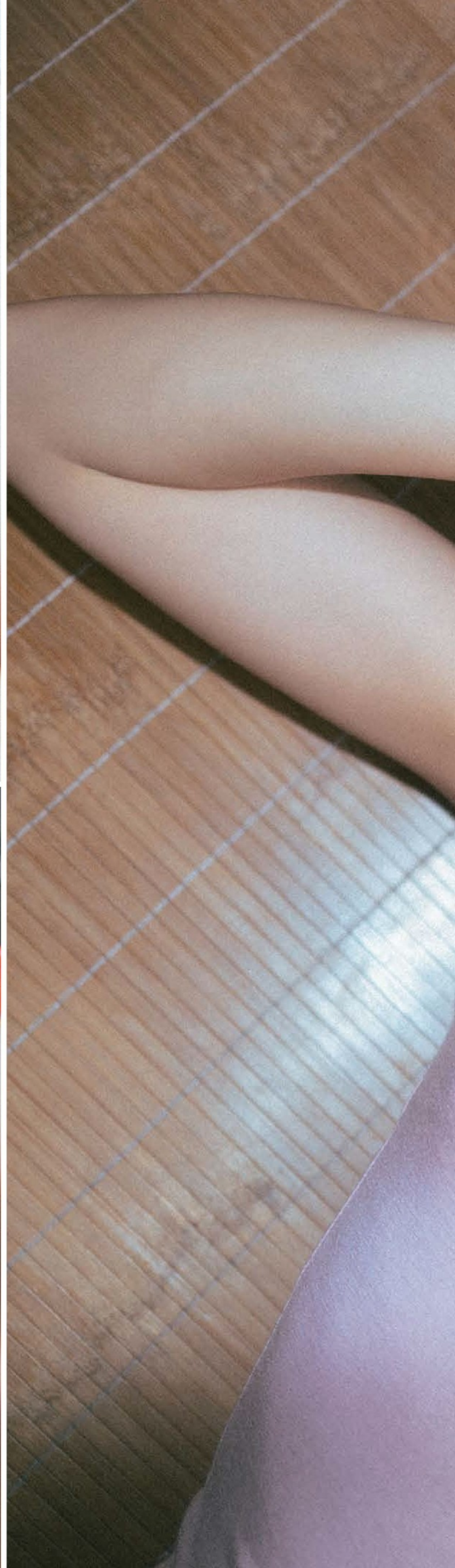
신발 방수 커버

비싼 신발 빗물에 젖을까 봐 걱정된다면 신발 방수용 커버는 어떨까? 두껍고 유연한 PVC 소재로 만들어 방수성이 뛰어난 건 물론이고, 돌돌 말아 휴대하기도 편하다. 생긴 게 비닐 봉다리처럼 하찮은 이유는 'PVC=비닐'이라 그렇다. 그래도 이 녀석은 두껍고 튼튼해서 찢어질 일 없고 발목에 지퍼와 끈 조이개까지 있어서 빗물을 완벽 차단한다고! 가격은 판매처별로 상이.

IMAGE 각 판매처 공식 홈페이지

SUMMER DIARY

꽃보다 예쁜 **미스맥심 은유화**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법! 꽃밭에 물을 준다. 미모에 물이 오른다. 예… 예쁘다!

BY **배주영** PHOTOGRAPH BY **1984ILGUPALSA**
MODEL **미스맥심 은유화**

미스맥심 은유화

데뷔: 2020 미맥콘 준우승
키: 166cm
인스타그램: uuuh_a

얼마 전 '맥심 1층 카페'에 일일 알바로 와서 굴욕을 당했다고?
흐엉…! 제가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가서 그런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올 줄은 몰랐어요.

파리 날리는 바람에 오히려 개고생했다는 소문이…
일하러 온 건데 손님도 안 오고 카운터에 앉아만 있으니까, 맥심 대표님이 온 김에 청소나 하고 가라시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나에게도 할 일이!' 하면서 밀린 설거지도 하고, 바닥도 쓸다가, 화장실 청소…까지 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해요!

카페 사장(=맥심 사장)이 잘못했네! 한 마디 해줘라!
왜 나만 화장실 청소시켰냐!!!(버럭) 장난인 거 아시죠? 암튼 사장님! 다음엔 홍보 열심히 하고 올 테니까 저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어쨌든 수고했으니 우리가 소원 하나 들어주기로 했다!
휴~ 이제야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 것 같네요! 그동안 맥심에서 다양한 콘셉트로 화보를 많이 찍었잖아요? 뮤직비디오도 찍고, 세차도 하고, 얼마 전엔 교복 입고 일진녀 콘셉트로도 찍었는데.(웃음) 드디어 제가 원하던 예쁜 화보를 찍습니다!

유화 씨 소원이 '얼굴 예쁘게 찍어달라'는 거... 그게 다야?
맥심 나올 땐 대부분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잖아요. 물론 그것도 예쁘지만! 한 번쯤은 몸매 말고 얼굴이 예쁘게 나오는 화보를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비해 꽁꽁 싸맸군.
낯설죠? 그래도 오늘 뭔가 저 은유화 자체가 주인공이 된 느낌이라 너무 좋습니다!

은유화를 꽃에 비유해보자.
제 이름 뜻이 '은유적인 꽃'이에요.
그래서 저를 꽃으로 말하자면
색과 향이 진하지 않고
은은한 꽃...?

그냥 은유화 자체가 꽃 아님?
사실 제가 꽃은 〈동물의 숲〉
에서만 키우고 있는데...(웃음)
식물 키우기에 소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꽃은
좋아합니다!

애인한테 꽃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 은유화는 어때?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꽃은 금방 시들기도 하고,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닌데도 받으면 일단 기분은 너무 좋죠.

(미래 남친에게 보내는 메시지) 꽃 선물할 거면 이렇게 해줘라!

너무 큰 꽃다발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무겁기만 하니까, 의미 있는 꽃 한 송이나 작고 귀여운 꽃다발이 좋을 것 같아~♥ (어딘가에서 듣고 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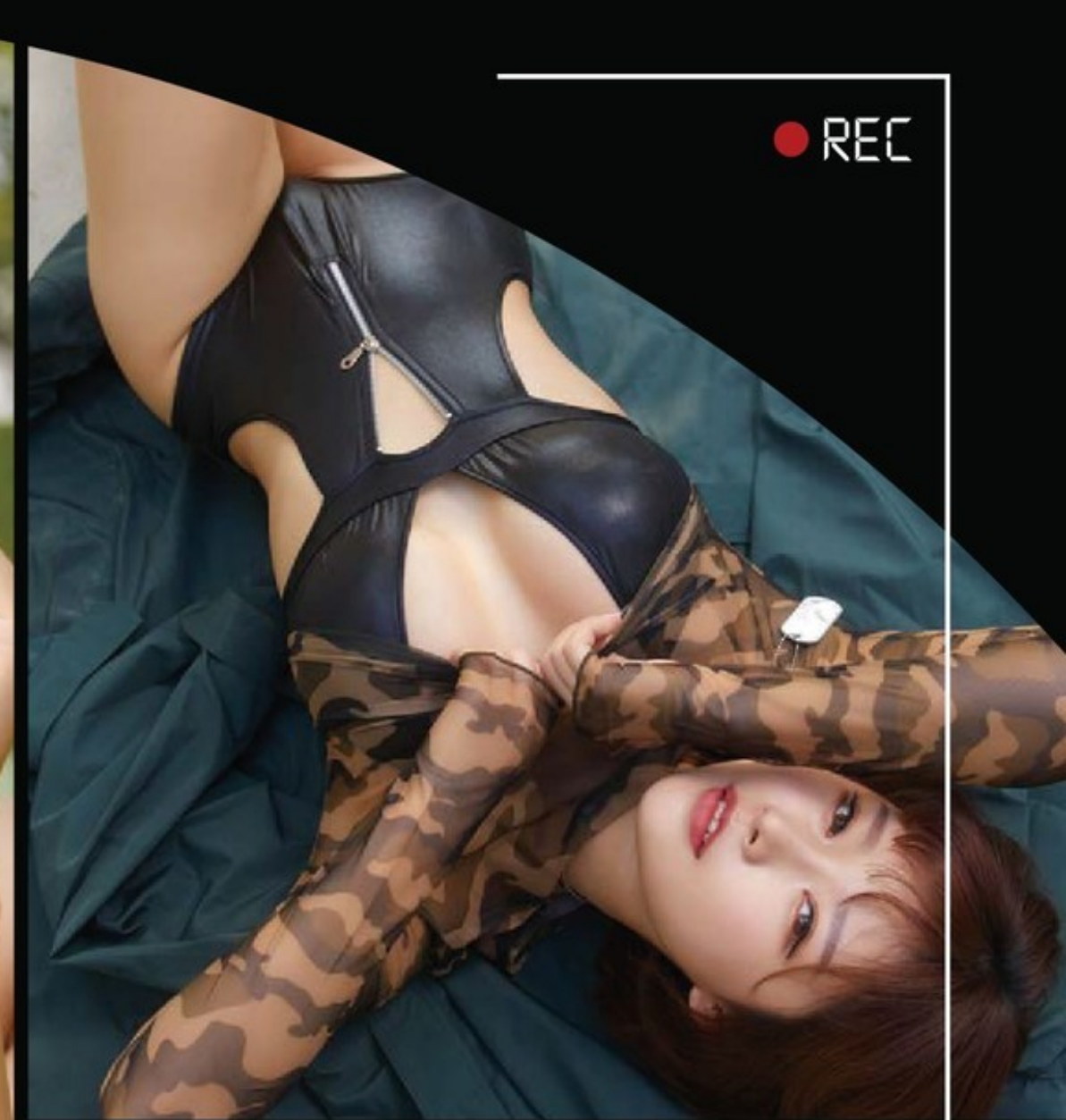
은유화가 현실 도피 하는 방법은?
저에게 현실 도피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방 침대에 혼자 누워서 유튜브 보기!?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는 걸 보니 열심히 현생을 살고 있구먼...
진짜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어요. 분명 저번 겨울에는 반백수처럼 놀고 있었는데!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것...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현실적인' 현실 도피는 어떤 게 있을까?
일단 SNS부터 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서 아무와도 연락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 쉬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걸 하세요. 때때로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HAIR&MAKE-UP 해진 VIDEO 1984ilgupalsa 이원재

HD 4K 25 FPS 99%

REC

미스맥심 은유화 영상

무삭제판

Member Me & Likey

맥심 채널에서 대공개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 서비스 '멤버미' 또는 '라이키'로 오면 돼!

맥심 빨간맛 엑기스가 궁금해?

맥심의 무삭제판 영상을 볼 수 있는 구독 플랫폼 라이키와 멤버미. 유튜브의 탄압에 늘 시달리는 맥심이 진정한 엑기스를 여기로 피신시켰다. 우리 PD들이 무삭제 원본까지 미친듯이 올리고 있으니, 멤버미 또는 라이키에서 맥심 채널을 찾아오라!

<미맥콘> 무삭제판 아직 안 봤어?

맥심의 새 간판스타를 발굴하는 리얼 투표 서바이벌 <미맥콘> 시리즈! 올해도 시작부터 뜨겁다. 하지만 유튜브엔 사정없이 가위질을 한 순한 맛만 허락된다. 그녀들을 더 가까이서 오~래 찍은 클로즈업 롱테이크 무편집본이나, 아찔한 댄스 장기자랑 등의 엑기스는 오직 <미맥콘> 무삭제판에만 있다! 빨리 들어와서 구독해!

어디서 보냐

스마트폰 앱 '멤버미'나 '라이키' 깔고 '맥심' 검색해 가입! 구독 시작!

00 : 01 : 23 : 06

MENU

맥씸 육체미 구락부 정.력.강.화 홈트레이닝

이달은 하체 운동! 여자가 남자 허벅지 좋아하는 거,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니까?

BY 이린

트레이너 이린

- 일본 그라비아 아이돌
- 무술 종합 17단
-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학사
- 용인대학교 체육교육 대학원 석사
- 체육 교원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보디빌딩 자격증 보유

이달의 운동

스쿼트

남자는 허벅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허벅지를 흔히 '엔진'이라고 표현해요. 걷고 뛰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물론 전신을 지탱하는 근육이거든요! 덕분에 엉덩이와 허벅지가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거대한 부위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체는 상체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근육량을 늘릴 수 있고, 근 성장과 유지를 위해 몸에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엄청나게 늘리거든요. 덕분에 이것저것 왕성(?)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자가 허벅지 근육을 과하게 키우면 생리 불순이 오기도 하니까 주의할 것! 남자가 허벅지 근육이 없으면 남성 호르몬 부족... 정력 감퇴, 전립선 질환, 배뇨장애, 무기력증... 독자님! 당장 하체 부시러 가야겠는데요?

Step 1

양발을 골반 넓이로 벌려주세요. 이때 복부에 가볍게 힘을 주면서 가슴을 넓게 벌린다는 느낌으로 활짝 열어주시면 좋아요.

Step 2

상체 자세를 최대한 바르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앉아주세요. 이때 몸의 무게중심을 발뒤꿈치 쪽으로 집중! 그래야 엉덩이 아래, 허벅지 뒤쪽 근육에 자극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Step 3

일어날 때도 자세가 중요해요. 엉덩이부터 천천히 들어볼게요. 누가 뒤에서 허리춤을 잡고 들어 올리는 느낌!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기립근으로 자극이 이동하는 것을 느껴봅시다♥

Step 4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왔다면 1회 클리어예요. 같은 동작을 15~20회를 한 세트로, 3~5세트 반복합니다. 애플힙 딱 올라붙어서 길어 보이는 다리! 펄떡이는 스태미나! 가보자고!(웃음)

현실 도피라는 **판타지**

현실 도피란 무엇일까... 여행을 떠나는 것? 불가능한 일을 꿈꾸는 것? 틀렸다! 만약 진정한 사나이가 되고 싶다면 현실 도피에 대한 환상부터 깨고 와라.

BY **근신 김성모 화백**

현실 도피는 판타지가 아니다!

여름철만 되면 휴가다 뭐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말처럼 "휴가 다녀오셨어요?" 라고 묻는다. 그들이 말하는 휴가가 여행지에 놀러 가서 경치를 보고 뛰어노는 것이라면, 나는 휴가를 안 간 지 20년도 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들 놀라면서 내가 쉬지 않고 작업만 하느라 휴가를 못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틀렸다! 단지 어딘가로 떠나는 행위가 나의 몸과 마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휴가 기간에 집에만 있는 것보다 어딜 다녀온다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다. 집이나 집 근처에서도 휴가를 알차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밀린 잠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여유롭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보고 싶었던 영화나 드라마 TV로 실컷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일정 기간 일을 쉬는 기간, '휴가' 아니겠는가?

사나이라면 물러서지 않는 법

그런데도 기필코 새로운 이성을 찾아 휴가를 떠나야겠다고 외치는 녀석들이 있을 것이다! 사나이로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또 불타는 청춘들의 뜨밤을 위해 휴가지에서 여자 꼬시는 스킬을 알려주겠다.

여자라는 동물은 방어적이다. 물리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따라서 여자들은 낯선 남자를 마주치면 본능적으로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휴가가 무엇인가? 현실도피 아니겠는가! 그렇다.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춘 여자들도 멀리 바캉스를 떠나면 현실로부터 도피해 있다는 짜릿한 해방감과 함께 몸과 마음이 릴랙스 될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다. 여자가 낯선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사라졌다는 소리는 아니니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휴가지에서 처음 만난 그녀에게 '낯선 남자' 타이틀을 가지고 접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참고로 불량스러워 보이지 않는 깔끔한 복장과 구리거나 천박하지 않은 단어 선택은 기본이다!)

처음에는 몇 번 거절당할 수 있다. 하지만 첫인상이 좋게 보였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휴가지에 놀러 온 그녀의 마음이 바다 한 가운데 홀로 솟아나 있는 바위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 바위 주위에는 계속해서 파도가 몰려와 치고 있다. 그 파도가 남자, 바로 너다! 알겠나? 쉽게 포기하지 말란 소리다!

무엇보다 처음 본 여성을 가장 쉽게 꼬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바로 닥치고 '무칭'이다! 무칭, 무조건 칭찬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일단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과업을 수행하고 나면 어느새 그녀는 너의 품속에 있을 것이다!

김성모식 판타지 〈마계대전〉

인간 김성모가 아닌 작가 김성모로서의 진정한 현실 도피가 뭐냐고 묻는다면, 판타지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데뷔할 당시 만화계는 전 세계적으로 소년 판타지 장르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드래곤볼〉이나 〈원피스〉 같은 일본 대작들이 할거하는 시기였다. 당시 그 영향을 받았던 나도 판타지 세계관에 흠뻑 빠져 있었다!

판타지 세계관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날 일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흔하게 발생한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세계관을 휘어잡는 강력한 주인공, 그리고 "이 새끼를 어떻게 이겨?"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고 무시무시한 빌런이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에 굴하지 않으며 빌런의 꼬봉(?)부터 차례차례 박살 내고 올라온다. 그리고 최종 빌런을 만나 강력한 필살기들이 난무하는 격전을 선보이며 피날레를 장식한다!

판타지 장르에서만 가능한 비현실적이고 극적인 스토리에 재미를 느끼는 순간, 정신없이 빠져들 것이다! 간접적으로 현실 세계를 벗어나 판타지, 즉 현실도피의 짜릿함과 후련함, 통쾌함까지 느낄 테니 말이다. 김성모표 만화에도 판타지물이 여럿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만화가 나의 팬들도 잘 아는 〈마계대전〉이다! 김성모표 판타지 만화에는 다른 판타지 만화들과 비교되는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러브 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현실 도피에 웬 사랑 타령...?

남들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집어넣는 러브 라인을 '일부러' 뺀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이유다. 당시 내가 그림 실력이 무르익지 않은 20대 초반의 작가였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여자를 못 그렸다. 지금 여캐들이 누가 봐도 손색없을 정도의 미인이란 소리는 아니다! 하지만 내가 초창기 시절에 그린 여캐들을 본 녀석이 있다면 아마 공감할 것이다...

사실 러브 라인을 뺀 진짜 이유는 두 번째다. 판타지물이라도 뼈가 부러지고 피가 튈 정도로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많이 등장한다. 이런 와중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 라는 그 당시 김성모의 절대적인 마초 기질 때문에 러브 라인을 과감히 빼버렸다.

나는 〈마계대전〉에서 진정한 남자! 특히 남자들의 우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번 마음을 주고 우정을 맹세한 사나이라면,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절대적인 우정! 그리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사나이들의 진한 눈물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따라서 나는 장르를 불문하고 내 모든 작품 중에 〈마계대전〉을 으뜸으로 친다! 그러기에 오늘도 독자 제위들에게 다시금 울부짖는다! 사나이의 판타지 만화! 〈마계대전〉을 강력 추천한다고!!!

진정한 현실 도피를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현실 도피를 꿈꾸는 젊은 혈맹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바로 SNS에 남들이 멋진 휴가를 보내면서 올리는 사진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걸 보고 배가 아파서 남들 따라 똑같이 놀러 간다고 한들, 막상 가보면 실제로는 별거 없을뿐더러 오히려 허무해지기만 할 것이다.

현실 도피, 즉 휴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 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 너 빼고 다들 비싸고 좋은 데 놀러 다닌다고 휩쓸리지 말아라! 만약 휴가 때 정 할 게 없다면 집에서 〈마계대전〉을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럼 혈맹들아! 오늘도 각자 마음속에 판타지를 간직한 채 거칠고 험난한 현실 세계를 근성으로 잘 이겨내보자! 근성!!!

궁금한 법률 이야기 M

의문의 실종자, 그의 죽음과 부활

현실도피 끝판왕, '실종자'에 관한 법률 상식.

BY **박상오 변호사**

누구나 한 번쯤 현실도피를 꿈꾼다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는 취업에 번번이 실패한 여주인공(아라가키 유이)이 남주인공(호시노 겐)과 계약 결혼, 속된 말로는 '취집(취직 대신 시집의 줄임말)'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참고로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들이 실제로도 결혼하여 크게 화제가 됐다). 드라마라는 장르는 대중이 원하는 판타지를 그린다. 예시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 다시 말하자면, '취집'이라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취집'도 일종의 현실도피 아니겠나. 이처럼 현실도피는 때때로 수많은 사람이 바라고 열광하는 훌륭한 판타지가 되기도 한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도전'과 '용기'를 강조했다. 위기와 역경에 맞서 싸우는 사람을 존경해 왔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가 써지고 문명이 발전해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견딜 수 없는 위기와 역경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 가령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끝까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로사로 죽게 된다면, 이는 결코 칭송받을 일이 될 수 없지 않겠는가. 무모한 도전의 결말은 오히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때에는 적당히 업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회사라면 그 회사로부터 도망치는 것(퇴사)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다.

'현실도피'는 아주 크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무리 작고 소소한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 위험을 겪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견딜만한 현실의 범위를 결정하는 건 결국 필자를 포함한 독자들 개개인의 몫이다. 필자는 소소한 위기로부터의 도망 역시 열렬히 응원한다.

도망의 끝, 자기 의지에 따른 '실종'

그러나 뭐든지 '적당'해야 한다. 때때로 현실에서 도피하는 건 좋지만, 계속 도피하는 건 이미 현실도피가 아니라 그냥 도피가 습관이 된 것에 불과하다. 답답한 일상을 떠나 1년간 훌쩍 세계 일주를 떠나는 정도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실도피지만, 산속으로 들어가 몇십 년 칩거하며 은둔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 등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긍정적인 현실도피로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극도의 현실도피(예컨대 '자연인의 삶')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과도한 빚(채무)이나 현실에 대한 환멸,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친 경우 등 그 이유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주소를 숨기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거나 아예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래의 자신을 버리기도 한다. 부재자, 즉 종래의 주소

등을 떠난 자가 장기간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를 보통 '실종' 상태라고 하는데, 위에서 말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에 따른 실종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실종'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부재자(실종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가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사람을 언제까지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자기 의지에 따른 실종이든 타의에 의한 실종(감금 상태 혹은 이미 사망했으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이든 마찬가지다. 예컨대 실종자가 계속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될 경우 그 배우자는 재혼도 할 수 없다. 우리 법률은 중혼(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의 상속 또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실종자의 재산 등을 처분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실종자는 자신의 신분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없기에, 실종자의 신분 등이 범죄 같은 데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은 실종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자에게 사망자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실종자는 이러한 실종선고를 통해 법률적인 '실종자'로 확정된다. 반대로 말하면, 법률적으로 실종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실종자'가 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부재자'에 불과하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실종자가 실종선고를 받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것.
둘째, 실종기간(보통실종의 경우 5년, 특별실종의 경우 1년)이 경과할 것.
셋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을 것.

앞서 본 요건들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에서 해당 실종선고의 청구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하게 되고, 공시최고의 절차(쉽게 말하면 특정인에 대해서 실종선고를 예정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절차다. 만약 실종자가 자신의 생사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실종되지 않았음을 신고하여 실종선고를 중단시킬 수 있다)를 거쳐 최종적으로 실종선고를 하게 된다.

> "극도의 현실 도피를 선택한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거나, 아예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본래의 자신을 버리기도 한다.**"

실종선고의 효과

그럼 이러한 지루한 과정을 거쳐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보통실종의 경우 5년, 특별실종의 경우 1년)이 만료한 시점부터 그 사람은 법률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보통실종'은 특별실종이 아닌 경우를 말하고, '특별실종'은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웬만하면 죽었을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경우) 즉, 전지(전쟁 등)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그 원인이 종료한 후 1년간 불분명한 것을 말한다.

물론 정확히는 실종자의 '사법적' 법률관계만 종료될 뿐(상속 등도 이루어지게 된다) 실종자의 '공법적' 법률관계까지 종료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실종자는 아무리 실종선고 이후라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피고인이 될 수 있고, 범죄의 피해자도 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권리도 가질 수 있다. 즉, 실종선고가 있었다고 하여 유령이 저지른 범죄가 되어 수사를 종결하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실종자가 계속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일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는 공법적인 법률관계에서도 사실상 사망자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죽었는데요, 살았습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처럼 살고 싶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진짜로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건 참기 어려운 모양이다. 놀랍게도 실종자가 부활하는 기적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실종자를 법적으로 사망한 것처럼 취급한 것뿐이지 실제로 사망한 건 아니니 당연한 말이다. 실종자가 살아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를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룩한 기적으로 볼 것까지는 없다. 대부분 그냥 실종자의 변덕이다. 다만 실종선고가 내려진 이상 실종자가 "사실은 나 여기 살아있소!" 외친다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 실종자가 다시 법률적으로 부활하려면 생존 사실을 증명하고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필자도 최근 실종으로부터의 '부활자'를 만난 적 있다. 이런 경우 사람을 법적으로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게 되므로, 이미 실종자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꼬여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건 덤이다(예컨대, 실종선고 후 재혼했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되어 갑자기 누가 남편인지가 헷갈리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맥심 독자들은 부디 너무 극단적인 현실도피로 실종되지는 말고, 소소한 현실도피 정도는 항상 진심으로 응원 중이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

IMAGE 영화 〈나를 찾아줘〉, 〈The Girl on the Train〉 스틸컷

생각을 읽어내는 독심술 AI 등장

관심법을 해보겠습니다, 휴먼. BY **채널 에스오디(SOD)**

“당시니 차꼬 있눈 증거눈 책에소 차즐 수 업습니다.”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뭔가 어눌하게 말하는 컴퓨터의 음성을 공개했다. 이어지는 그들의 설명은 충격적이었고, 학계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연구진이 들려준 음성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인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인식한 내용을 음성화한 것이다. 인간의 생각을 읽는 인공지능,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연구진은 간질 환자 4명의 뇌에 전극을 연결한 뒤 30~50개 정도의 문장을 떠올리고 말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은 이들이 각각의 문장을 말할 때 활동하는 뇌의 패턴을 학습했고, 그 이후부터 환자들의 뇌 활동만으로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맥심 에디터의 뇌 활동 패턴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뒤 그의 뇌에 전극을 붙여두기만 하면, 인공지능은 그의 뇌의 활동을 분석해서 ‘오늘은 이거다!’, ‘착한 생각!’ 등 그가 실시간으로 떠올리는 생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결과의 정확성이다. 실제 인간의 생각과 인공지능이 인식한 내용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 이에 관해 학계에선 어떤 컴퓨터가 인간 뇌의 활동을 예측할 때 오답률이 0%라면 완벽, 5%라면 전문적인 수준, 20~25%일 경우엔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위의 간질환자 4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연구진은 공개한 오답률을 보면, 인공지능이 한 사람의 뇌 활동 패턴을 여러번 반복해서 학습할수록 오답률이 크게 향상했다. 대략 15회의 학습을 진행했을 때 모든 환자의 오답률이 25% 이하, 즉 상용화 가능한 수준을 달성했고,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시간은 단 40분 불과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아직 기술적인 성숙이 되지 않았다는 당연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살아있는 인간의 뇌에 전극을 붙여야 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해당 기술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모종의 이유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환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경우, 가령 피자가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SOD님? 콰트로 포르마지오 피자를 현재 계신 위치 반경 1km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집에서, 혹은 지난번에 주문한 적이 있던 피자집에서 주문해드릴까요?" 물어보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음성인식 AI로도 충분히 가능한 기능을, '생각'만으로 해결하겠다며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뇌를 열어서 뭔가를 붙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정치인들이 나의 뇌를 들여다보고 있다!' 같은 음모론적인 이슈도 발생하게 될테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비침형 방식, 두개골 외부에서 뇌파를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현업의 연구자들은 뇌에 직접 삽입하는 침습형 인공지능이 미래의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무리 그래도 일반 대중들은 다소 정확하지 않더라도 몸에 삽입할 필요가 없는 형태를 훨씬 선호할 것이다.

이것 말씀이신가요, 휴먼?

2023년 5월, 텍사스 오스틴의 연구진들은 뇌의 혈류 변화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이를 3명의 실험 참가자의 머리에 연결했고, 그들이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었을 때 뇌의 혈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유추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인공지능, 쉽게 말해 Chat GPT 같은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인공지능 모델은 인간의 뇌 혈류 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확하게 읽어내 텍스트로 표현했다. 아까 소개한 기술이 단순히 내가 생각하고 말하려는 내용을 번역해서 전달했다면, 이 기술은 내가 생각한 내용을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의도한 바에 맞게 텍스트를 생성했다는 점이다. 가령 '그녀는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인식한 인공지능이 '그녀는 아직 운전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거다. 즉, 단순히 운전면허증(카드)이 없다는 문장 그대로의 상황에서 더 나아가 '운전을 못 한다'라는 추론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는 모든 내용에서 핵심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의미를 정확하게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것들이 굳이 뇌를 꺼내 칩을 박아넣지 않고서도 가능해진 거다.

인간의 생각을 읽는 인공지능을 쉽게 믿기 어렵지만, 해당 연구들은 이미 수많은 과학자를 통해 거짓 연구가 아니라고 검증을 마친 연구들이다. 물론 이 기술의 문제점과 부작용은 있다. 말을 못 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 국가나 조직에서는 인간을 통제하는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또한 이런 기술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관련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기술들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고, 끝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말로 글을 맺는다.

**"과학은 완벽하지 않다.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과학은 단지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일 뿐이다."**

내용출처:

1. 박정연, "뇌활동 분석해 사람 생각 읽고 문장으로 옮기는 AI 등장", 동아사이언스, 2023
2.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Brain Activity Decoder Can Reveal Stories in People's Minds", 2023
3. Jerry Tang et al, "Semantic reconstruction of continuous language from non-invasive brain recordings", nature neuroscience, 2023
4. NBC News, "Artificial intelligence study decodes brain activity into diaglogue", 2023
5. Nicola Davis, "Scientists develop AI that can turn brain activity into text", The Guardian, 2020
6. Joseph G. Makin, "Machine translation of cortical activity to text with an encoder-decoder framework", nature neuroscience, 2020
7. Nitish Srivastava et al, "Dropout: a simple way to prevent neural network from overfitting",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2014
8. Wayne Xiong et al, "Toward Human Parity in Conversational Speech Recognition", IEEE/ACM Trans. Audio Speech Lang. Process., 2017

LAYOUT 전수진 IMAGE PIXABAY PIXEL

게임 속 비키니 열전

물 반 사람 반 피서지 부담스럽다면 게임 속 바다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BY **테크M 편집부**(contact@techm.kr)

'블루 아카이브'의 '여름 하늘의 위시스토리' 여름 이벤트. 트리니티 종합학원 학생들이 전차를 타고 바캉스를 떠난다는 내용. 전차, 소녀, 그리고 비키니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넣어놓았네!

현실에서 벗어나 게임 속에서 여름을 즐겨보자

코로나가 종식 국면에 들어서면서 어느 곳이든 놀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욕구가 폭발하면서 '보복 여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바다에 물보다 사람이 많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구름 인파 피서지가 부담스럽다면, 게임을 통해 시원한 집안에서 여름휴가 분위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 매년 여름이면 게임 세상 속 캐릭터들이 화려한 수영복으로 자신들의 매력을 뽐낸다. 올해도 여지없이 여름 비키니 열전이 시작될 터, 지난해 여름 이벤트를 되돌아보며 올해 어떤 캐릭터들이 멋진 몸매를 뽐낼지 예상해 보자.

수영복이 한정판? 이건 못 참지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은 여름 비키니 뽐내기에도 진심이다. 넥슨은 지난해 〈블루 아카이브〉에서 이벤트 스토리 '여름 하늘의 위시스토리'를 진행하고 한정판 수영복 캐릭터들을 공개했다. 여름 하늘의 위시리스트는 '트리니티 종합학원'의 학생들과 선생님이 해변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내용으로, 이색적인 이야기는 물론 한정판 수영복 캐릭터들을 함께 선보여 인기였다.

또 〈블루 아카이브〉는 '히나 선도부장님의 여름방학'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는 '수영복 히나', '수영복 이오리', '수영복 이즈미'로, '게헨나 학원'의 선도부원들이 휴가를 떠나는 신규 이벤트 스토리 '히나 선도부장님의 여름방학'에 등장한다.

'카페'에 설치 가능한 23종의 신규 가구 '여름 리조트 풀파티 세트'도 추가했다. '컬러풀 대형 풀장', '여름 물결 장식 벽', '파란색 여름 도트 배경' 등을 사용하여 유저의 취향에 맞는 해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했다.

각양각색 여름 이벤트들! 피서 갈 필요가 없겠는데?

넷마블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 '서번트 서머캠프!' 이벤트를 열고 수영복 복장의 이벤트 서번트 '4성 우미인(랜서)'과 각종 성장 아이템을 제공했다. 또 넷마블은 이벤트 개최를 기념해 올해 신규 수영복 서번트 '5성 셋쇼인 키아라', '4성 이리야스필 폰 아인츠베른', '4성 브륀힐드'를 획득할 수 있는 픽업 소환을 진행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서번트 서머캠프!' 이벤트. '여름 이벤트는 꼭 바다에서만 열리지 않는다!'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바비큐 보트에서 낚시를 하고 산을 즐기는 것 등으로 구성됐다.

몬스터도 잡고, 수영복도 받고. 일석이조 그 자체였던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여름의 섬 OPEN 이벤트'

카카오게임즈도 지난해 〈오딘: 발할라 라이징〉, 〈이터널 리턴〉, 〈엘리온〉 등 주요 게임들에서 여름맞이 이벤트를 열었다. 특히 〈오딘〉에선 '썸머 파티 주문서'를 모아 외형 획득권으로 교환한 뒤, 기간제 수영복 외형 아바타인 '썸머 파티'를 얻을 수 있게 했다.

기간 내 접속 유저들에게 수영복 코스튬을 증정했던 '언디셈버'의 'SUMMER 이벤트'

라인게임즈는 〈언디셈버〉에 한여름 무더위 날려버릴 'SUMMER 이벤트' 개최한 바 있다. 이벤트 기간 중 게임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에게 기간 한정 '수영복 코스튬'을 제공했고, 획득한 이벤트 아이템을 통해 확률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했다.

또 〈엘리온〉에선 '2022 수영복' 관련 상품에 특정 루비 이상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귀여운 해변 러버덕' 탈 것을 지급하는 2022 수영복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

'엘리온'의 '수영복 특별 이벤트' 수영복을 사면 러버덕 탈 것을 줍니다!

특별 스토리도 좋지만, 주요 캐릭터들의 예쁜 코스튬으로 더욱 인기를 끌었던 '그랑사가'의 수영복 코스튬

엔픽셀도 〈그랑사가〉에서 여름맞이 수영복 코스튬을 공개한 바 있다. 보물을 찾아 섬으로 떠나는 '여름과 모험의 앙상블'을 테마로, 특별 스토리와 함께 '라스' 및 '세리아드', '유나' 등 게임 내 주요 캐릭터들의 다채로운 수영복 코스튬을 선보였다.

컴투스홀딩스도 지난해 〈빛의 계승자〉에서 여름 시즌을 맞아 시원한 수영복 아바타 2종을 선보였다. 백설 공주 수영복 아바타를 착용하면 강렬한 배구 스파이크 모션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파이크' 스킬을, 신데렐라 수영복 아바타는 거대한 물풍선으로 적을 공격하는 '물풍선 강타'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시원한 아바타는 물론이고, 여름 느낌 물씬 나는 스킬 이펙트로 호평이었던 '빛의 계승자'의 수영복 아바타

낚시, 수영, 곤충 채집, 산택 등은 물론이고 새로운 어종과 거북펫 추가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플레이투게더의 휴양지 맵

해긴도 소셜 네트워크 게임 〈플레이투게더〉에 신규 맵 '휴양지'와 함께 새로운 낚시 콘텐츠를 추가했다. 드넓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이국적인 건물로 꾸며진 신규 맵 '휴양지'는 바쁜 일상 속 여유와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휴양지'는 광장 선착장에 위치한 신규 NPC 매버릭에게 말을 걸어 이동할 수 있으며, 모던한 스탠다드룸과 럭셔리한 스위트룸, 낚시와 수영이 가능한 수영장, 자연을 느끼며 곤충도 채집할 수 있는 산책로 등 여러가지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벌써부터 무더운 여름, 게임 세상 속 시원한 풍경과 비키니로 피서에 성공하길 바란다.

'혁신가들의 놀이터' 테크M
테크M(https://techm.kr)은 게임과 e스포츠, 블록체인, 통신, 기업 이슈, 제품 리뷰, 라이프 콘텐츠, 성장주 등 돈 쓰고 버는 분야를 두드리는 테크 전문 미디어다.

LAYOUT 전수진

가상 섹스

현실의 섹스와는 조금 다른 경험과 흥분을 선사해 주었던 우리의 가상 섹스 이야기. BY **채희진**

'누나가 시키는 거 해봐, 좋지?'

초등학생 무렵 유니텔이 등장했다. 요즘 세대에게는 다소 낯선 유니텔은 지금의 네이버, 다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천리안, 하이텔과 같은 PC 통신 서비스다. 그 시대에 PC 통신 서비스의 주 용도는 채팅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행운장군'이란 이름으로 유니텔 채팅 세계에 첫 접속을 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버추어 캅이나 삼국지와 같은 게임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했던 나이였으니까. 그러던 중 어느 누나와의 대화를 계기로 채팅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만다.

누나는 친절했다. 엄마에게 혼난 날은 위로를 해줬다. 항상 맛있는 거를 사주고 싶다며, 내가 사는 동네에 오면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도 했었다. 누나는 아는 게 많았다. 내게 재밌는 걸 알려줄 테니 따라 해 보라고 했다. '고추 만져봐', '잡고서 위아래로 흔들어봐', '이번엔 비벼봐' 내 손은 바빠졌다. 타자를 치면서 누나의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 채팅창에서 나는 누나가 되고, 누나는 내가 되기도 했다. 채팅창이 '아', '하', '앗' 따위의 의성어로 가득 찰수록 키보드에 닿은 나의 손은 어느새 누나의 가슴과 엉덩이의 촉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야채팅의 재미는 명령과 복종 같은 섹스 판타지를 간접적으로, 가볍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로를 흥분시키는 말과 묘사는 오직 텍스트로만 전달된다. 그것을 읊조리며 나는 상대의 흥분 상태를 상상한다. 동시에 나 또한 흥분한다. 정말 누나도 나처럼 쾌감을 느꼈을지 확답을 내릴 순 없다. 그 누나가 진짜 누나는 맞았는지 알 길도 없다. 여자가 맞기는 했을까? 다만 분명한 것은 야채팅은 첫 가상 섹스였다. 우리는 서로 호흡을 나누고, 교감을 했으니까 말이다.

"나 미칠 것 같아. 신음 더 크게 내줘!"

중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채팅을 즐기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 PC 통신에서 버디버디, 네이트온과 같은 메신저나 채팅 전용 커뮤니티 사이트로 이어졌을 뿐. 야채팅도 여전했다. 하지만 반복된 자극은 무뎌지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현실에서의 섹스를 실천하기에는 아직 모자란 나이였다. 더 자극이 필요한, 그리고 더 과감해지기 시작한 내게 그때 다가온 것이 음성 채팅이었다. 타자를 치던 손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순간이었다.

첫 음성 채팅은 헤드셋을 낀 상태로 시작됐다. 목소리가 들리자 나이까지는 정확히 맞출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내 상대의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채팅창을 바삐 훑던 눈은 감을 수 있게 됐다. 그 덕에 귀는 예민해졌다. 상대의 목소리, 숨소리 등 모든 것을 느끼기 위해 집중했고, 그럴수록 상상 속 상대는 더욱 구체화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해 모든 모습과 상황을 감긴 눈 안에서 그려나갔다. 우리의 섹스가 시작된 순간 타자를 치기 위해 멈칫해야 하는 따위의 끊김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곧 우리의 섹스가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상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설명한 모습과 차이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내 상대는 목소리에서 비롯된 상상 속의 존재일 뿐이니까.

완벽할 것만 같았던 음성 섹스도 한계는 분명했다. 상대가 경험이 적다면 이미 자극에 적응된 귓바퀴에는 어떠한 간지럼도 전달되지 않았다. 교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의 가상 섹스는 단순한 상상 자위와 다를 바 없었다. 방해 요소도 더 많아졌다. 음질이라거나 주변 환경의 상황에 따라 집중도가 떨어졌다. 귀를 막아버린 탓에 누군가 방문을 열지 않을까란 불안감도 증가했다. 상대가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상황이 주는 야릇함이 나쁘진 않았지만.

"보여? 어때? 너 꺼도 보여줘"

2000년대 초반 무렵, 성인 영상 채팅 서비스가 범람했다. 하두리 덕분에 이미 전국 가정에는 웬만해선 캠이 하나씩 마련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자연스럽게 가상 섹스는 음성에서 영상이 더해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요즘은 다양한 앱과 사이트를 통해 일대일 만남 위주로 진행되지만, 이 시절에는 우선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상 채팅방에 접속했다. 그 탓에 온라인 난교 플레이조차 자연스러웠다. 그중에 마음에 드는 남녀는 자연스럽게 일대일 비밀 대화방으로 이동해 관계를 이어 나갔다. 기존 채팅 시스템이 전성기가 끝나진 않았던 때이기에, 텍스트로 친해진 이들이 음성, 영상의 단계로 넘어가기도 했다.

영상 채팅 섹스는 감았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은 홀로 야동을 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경험이었다. 마주한 상대의 동작과 음성에서 흥분점을 찾으며 교감을 나눴다. 경험이 쌓일수록 섹스 방식도 다양해졌다. 줌인, 줌아웃 등으로 서로의 귓바퀴에 흐르는 이야기를 따라서 캠의 위치가 바뀔 때는 마치 직접 보고 있는 것 같은 유희를 즐길 수 있었다.

자극이 극에 달하자,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캠을 꺼버리거나 채팅방을 나가버리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이들이 대표적이었다. 몸캠 피싱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 것도, 일방적인 알몸 채팅으로 상대를 괴롭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이번엔 후배위처럼 해보자"

영상 섹스 이후, 가상 섹스 시장은 정체기가 찾아왔다. 문자, 음성, 영상으로는 여전히 섹스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다음 자극을 줄 대체재는 정착하지 못했다. 되려 변종이 된 양상이 속속들이 출현했다. 대표적으로 게임이 그러했다. 게임 속 캐릭터에 서로를 이입한 뒤 텍스트나 음성으로 섹스를 하는 방식이었다. <3DXCHAT>과 같은 섹스 체위까지 구현한 게임까지 등장했지만 흥미를 끌진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VR 기기를 활용한 콘텐츠 등장에 한때 기대감이 쏠렸지만, 이 또한 결과론적으로는 실패였다. 이미 인간 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가상 섹스를 경험한 이에겐 그저 실감 나는 야동에 불과했다.

그러던 와중에 팬데믹이 발발한다. 동시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생태계에 이목이 쏠렸다. 직접적인 왕래가 끊긴 이들은 다시 음성과 영상 섹스에 몰입했다. 사람들은 영상이 아바타로 대체된 혼종 가상 섹스에 신선해하기도, 환멸을 느끼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가상 섹스 세계에 흥미를 느껴 갔다. VR 기기와 자위 기구를 결합한 후 상대를 매칭해 가상 섹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 중에 있다. 예나 지금이나 가상 섹스는 현실과 다르면서도 같다. 가상 섹스는 현실에서 도피한 이들의 섹스가 아닌 또 다른 재미가 있는 섹스일 뿐이다.

LAYOUT 전수진 IMAGE PIXABAY

사랑을 위한 운동은 없다

외로운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헬린이를 위한 고언.

BY 국민의 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필자의 친구 중에는 평생 쇳덩이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고, 근육이라곤 겨우 생존 용도로만 조금 붙어있는 녀석이 있다. 모쏠은 아니지만, 그의 마지막 연애는 대통령을 두번 쯤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연애하자니 기력이 달리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느다란 팔다리에 배만 불뚝 나온 전형적인 ET 스타일 몸매를 선보이기에 여성에게 영 인기가 없다.

그 친구가 몇 달 전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100〉이라는 예능을 보고 왔다. 거기에 등장하는 짐승남들의 막강한 육체미를 맛본 이 친구는 그들의 멋진 몸을 동경하기에 이른다. 멋진 몸을 만들면 지긋지긋한 독신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던 모양이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흥분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재섭아, 나도 운동하면 저런 몸을 만들 수 있을까? 6개월 정도면 될까?"

헬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자, 헬스부 장관인 필자가 가장 분노하는 질문이다. 아직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현실 도피성 질문이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였던지라 버럭 짜증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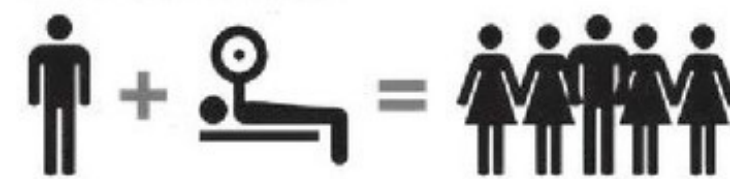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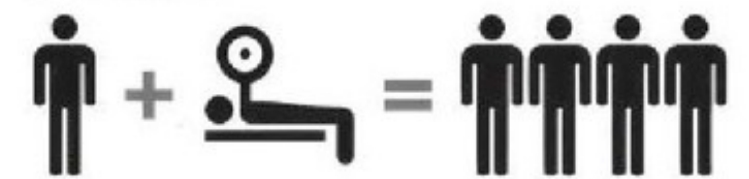
"야 인마. 〈피지컬 100〉 나오는 사람들 직업이 뭐냐? 대부분 운동선수잖아.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운동했을 거 같냐? 평생 했겠지. 근데 고작 6개월 만에 그런 몸을 가질 수 있으면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 현실 파악 다 했으면 일단 헬스장부터 등록해!"

그렇게 현실을 마주한 친구는 곧장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다. 학창 시절, 친구들이 축구공 하나로 대동단결하던 때에도 언제나 벤치에 느긋하게 앉아 먼 산을 바라보던 녀석이 드디어, 올챙이 배와 함께하는 일상을 관두고 장기적 계획에 따라서 '몸만들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헬창의 현실을 직시하라!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번엔 내가 그 친구를 다른 현실로 도피시켜야 할 일이 생겼다. 친구는 매일같이 열심히 운동하며 멋진 몸을 가진 자신에게 엄청난 미녀들이 마구 달려드는 장면을 떠올린다고 했다. 잔뜩 부푼 마음으로 단백질 보충제도 사고, 닭가슴살도 사고, 헬스장 회원권도 12달이나 결제할 만큼 의지를 활활 불태웠다. 그래서 나도 그의 기대에 부응하여 꼭 그렇게 될 것이라 응원했다. 할 수 있다고. 몸짱만 되면 연애는 식은 죽 먹기가 될 거라고.

양심이 아려왔다. 친구가 마주할 혹독한 현실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 오랜 시간 헬창으로 살아오면서 직접 겪어온, 수많은 헬창의 임상실험을 관찰해 온 바에 따르면,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많이 좋아진다고 해도 곧장 연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희망 고문에 가깝다. 셔츠를 뚫고 나와 존재감을 방출하는 대흉근, 태평양처럼 광활한 어깨, 질긴 청바지를 찢고 꿈틀거리는 대퇴사두근이 진짜 개쩔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우리 헬창들만의 기준이다.

여러분이 〈피지컬 100〉에 나올 정도로 좋은 몸을 가졌다고 가정해 보자. 장담컨대 당신의 육체미에 반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99%가 남자일 것이다. 만약 1%의 여성이 당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면 그건 당신이 몸짱이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눈에 당신이 잘생겼기 때문에, 혹은 사회적으로 잘나가기 때문에, 아니면 그녀의 취향이 독특해서 그렇다. 다시 말해 오직 '좋은 몸' 하나에 뿅가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하는 여성은 없을 것이라는 소리다.

그렇다고 필자가 '전우여. 어차피 이번 인생은 틀린 것 같으니, 운동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 따위 나약한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다. 필자의 친구가 아무리 몸짱이 된다고 한들 아름다운 미녀와 연애할 가능성은 1% 정도로 희박하겠지만,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하고 다시 이족보행 하는 꼴뚜기의 형태로 살아간다면 그가 연애할 확률이 0%에 수렴할 테니.

몸짱이 된 당신이 얻게 되는 것

아름다운 몸을 가꾸기 위해 성실하게 운동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당신의 외형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몸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은 마음이다. 자신감과 성실함, 인내심과 정직함을 얻는다. 그리고 남자에게 이런 내적 요소, 마음의 힘은 여성과의 연애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성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헬린이 여러분이 꿈꾸는 '몸짱의 삶'은 판타지, 혹은 현실 도피에 가깝다는 것이 필자의 냉정한 결론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 매력적인 이성의 마음을 얻진 못하더라도, 운동을 통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를 이룰 것을 장담하기 때문이다.

MODEL 미스맥심 안소영 PHOTOGRAPH BY 박율 LAYOUT 전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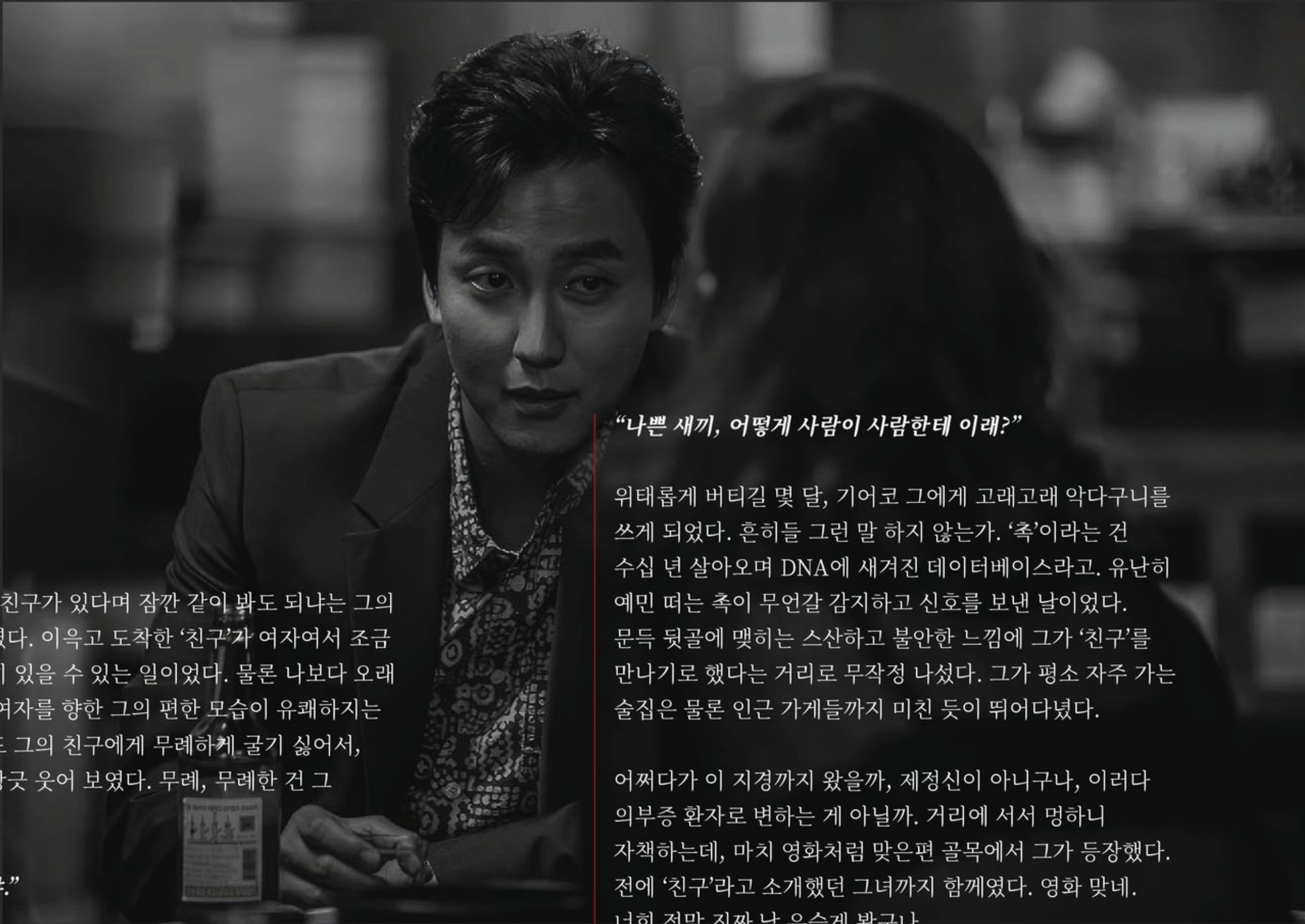
멜로, 신파, 무뢰한

미친놈과 미쳐버린 년의 일희일비(一喜一悲) 로맨스.

BY **김지은**

그의 목에 팔을 두른 채 숨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좋았다. 말랑한 귓바퀴에 소곤대면 이내 따라오는 낮은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그의 포근한 온기와 살냄새가 마음을 간질였다. 그럴 때마다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어 그리도 좋았다. 사랑받는 기분이란 게 사실 별거 없다. 너 있고 나 있고. 나만 보고, 너만 보고. 아무리 풍진 세상이어도 이 사람만 있어 주면 다 될 듯, 거하지 않은 충만함이 느껴지면 되는 거였다. 물론 이런 평화가 영원하진 않겠지, 한낮 꿈인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한껏 불안했다. 변덕스러운 감정 탓도 아니었다.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와 있지 않았다. 2년이란 시간 동안, 그는 나를 서서히 망가트렸다.

나와 함께 있는 순간에도 수많은 그녀들에게 연락이 왔다. 그녀의 차례가 지나고 조금 뒤에 또 다른 그녀가, 건너 건너 안다는 이름 모를 누나가, 설명조차 해주지 않는 학교 후배 그녀가 그의 곁을 위성처럼 맴돌았다.

나 하나로는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럿에게 손을 뻗쳤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옆 테이블 남자의 여자에게 눈빛을 흘려 싸움이 된 일도 있을 지경이었다. 아는 모두에게서 제발 벗어나라는 조언을 들어야 했다. 그럴 때마다 피폐해지는 가슴을, 현실을 애써 외면했다. 이별의 타이밍은 진즉부터 몇 번이고 있었다. 도망치라는 사이렌이 귀청을 때리는 아픔까지 참아가며 차마 놓질 못했다. 제발 어서 정신 차리고 내게 온전한 사랑을 쏟길 바랐다. 그의 예쁜 눈, 따뜻한 손, 부드러운 살냄새 모두 나에게만 머물기를 그리도 간절히 빌었다.

연애 초기, 근처에 친구가 있다며 잠깐 같이 봐도 되냐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도착한 '친구'가 여자여서 조금 의아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물론 나보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그 여자를 향한 그의 편한 모습이 유쾌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의 친구에게 무례하게 굴기 싫어서, 최선을 다해 방긋방긋 웃어 보였다. 무례, 무례한 건 그 연놈이었다.

"아, 전 여자친구야."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앉아 있는 자리에 전 여자친구를 불러내는 남자는 어떤가? 정상적인 머리로 가능한 사고가 아니지 않는가. 부른다고 냉큼 달려온 그 여자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너네 뭐하냐?' 이런 말을 남겼던 거 같다. 시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기분이 이거구나 싶었다. 그러고 나가면 어떡하냐는 연락에 좆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 더 쏘았다. 그게 다였다. 말문이 턱 막혀서 도무지 헤어지자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았다. 그렇게 나를 또 속였다. 누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더라. 그때의 난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났기에 그걸 몰랐을까. 아니지. 모른 척했을까.

그는 '표현'에 서툴렀다. 사회성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감정을 주고받는 것, 정확히는 주는 것에 서툴렀다. 그러면서 화려하고 다양한 꼴의 애정을 원했다. 진득하고 든든한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랬을까, 얕은 호감과 깊은 애정을 구분하지 못했다. 덕분에 그는 언제나 여자들의 얕은 관심에 목말라했다.

결핍 많은 아이가 몸만 자라 어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다. 어른의 사랑을 잘못 배운 사람이었다. 그 미성숙함에, 안팎의 부조화에 이리저리 치이는 게 나였다. 나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얼렁뚱땅 품에 안기는 그를 애처럼 토닥여야 했다. 거참 이상하지 않은가. 상처 입는 쪽은 늘 나였으면서. 내 주제에 그를 성숙하게 빚어낼 수 없다는 것도 진즉 알았다. 그저 눈이 멀어서, 아니, 눈을 꼭 감고서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없는 시늉을 했다. 그래, 다음부터는 안 그런다니까. 그저 오늘만 잘 넘기면, 눈을 꾹 감았다 뜨면 그가 새로워지길 바랐다.

"나쁜 새끼,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래?"

위태롭게 버티길 몇 달, 기어코 그에게 고래고래 악다구니를 쓰게 되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는가. '촉'이라는 건 수십 년 살아오며 DNA에 새겨진 데이터베이스라고. 유난히 예민 떠는 촉이 무언갈 감지하고 신호를 보낸 날이었다. 문득 뒷골에 맺히는 스산하고 불안한 느낌에 그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리로 무작정 나섰다. 그가 평소 자주 가는 술집은 물론 인근 가게들까지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러다 의부증 환자로 변하는 게 아닐까. 거리에 서서 멍하니 자책하는데, 마치 영화처럼 맞은편 골목에서 그가 등장했다. 전에 '친구'라고 소개했던 그녀까지 함께였다. 영화 맞네. 너희 정말 진짜 날 우습게 봤구나.

"너 진짜 미친 새끼야?"

나락이 어딘지 모르지만, 지척일 듯싶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애써 감고 있던 눈을 떴더니, 이젠 기가 차서 눈이 돌아버렸다. 뵈는 것이 없었다고. 아무래도 그녀에게 여자친구랑 잘 안 풀린다, 안 맞는다는 말본새로 약을 쳐둔 모양이었다. 전 남자친구가 자신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활짝 열어줬으니, 그녀가 마치 자기 남자의 일인 양, 내게 날을 세웠다.

"저기요, 이제 오빠한테서 좀 떨어져요."

자정이 넘은 거리에서 남자 하나를 두고 여자 둘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사람들은 삼류드라마 보듯 구경했다. 악을 쓰며 다투다가 번뜩 이런 생각도 했다. 과연 이 여자 하나일까. 내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뭘 하려고 했을까. 악다구니 한 발이 남았는데,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진짜 웃기고 어이없는 게 뭔지 아는가? 그 손길 한 번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두 여자 중에 진짜 미친년은 다름 아닌 나였다. 오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며 떨리는 그의 입술을 보니 더 화낼 수가 없었다. 아아, 쌤쌤이었다. 나를 갉아먹는 나, 상처 주는 그. 둘 다 똑같았다. 그 상황에 누가 누구 탓을 하려고.

한때는 진심으로 그를 이해하려 했다. 어째서 나 하나로는 안 될까?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주고 사랑하는데. 그의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되려고 시작한 연애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빠른 속도로 지치고 닳아갔다.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이 불안했을까. 희한하게도 그가 알아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가 안 만났으면 하던 빌어먹을 '친구'들, 정체불명의 그녀들 또한 모두 그의 곁에서 사라졌다. 조각난 믿음, 사라진 신뢰의 공백을 채우려 애쓰는 그의 모습이 좋았는데, 싫었다.

누가 그랬다. 최선을 다한 쪽은 후회가 없다고. 진짜 그랬다. 그토록 원하던 그의 사랑과 관심이 내게 와르르 쏟아지는데, 막상 받아보니 별 게 아니었다. 오히려 숨이 막혔다. 왼종일 나 하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나만 기다리는 남자가 전처럼 매력 있지 않았다. 애태우고 동동거리던 내가 비로소 마주한 인간은 참으로 별거 없었다. 나만 붙들고 있는 그가 성가시기까지 했다.

너와 나로 마주하기까지 이토록 힘들고 고단했단다, 라면서 권태라는 허무를 맞이했다. 내가 바란 '사랑'이 뭐더라. 이렇게 애 달래듯이 감정을 소모하겠다고 시작한 건 확실히 아니다. 자유롭되 안정적인, 평화로운 연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가 나를 바라보니 되려 자유가 사라졌다. 그를 향한 나의 존중, 혹은 존경까지 덩달아 무너졌다. 이 지경이 되니까 내가 어디서 커피를 마시고, 술 한잔하는 것조차 그에겐 또 다른 걱정이 되었다. 불안한 그가 갈구하는 사랑은 곧장 내 괴로움이 되었다. 남은 정까지 조금씩 털려 나갔다. 아아, 쌤쌤이구나. 그를 갉아먹는 그, 상처 주는 나. 너와 나의 자리만 바뀌었다. 나아진 건 없었다. 힘들여서 이 연애를 지키는 게 과연 맞을까. 둘 다 행복해지려 시작했는데, 대체 누가 행복한 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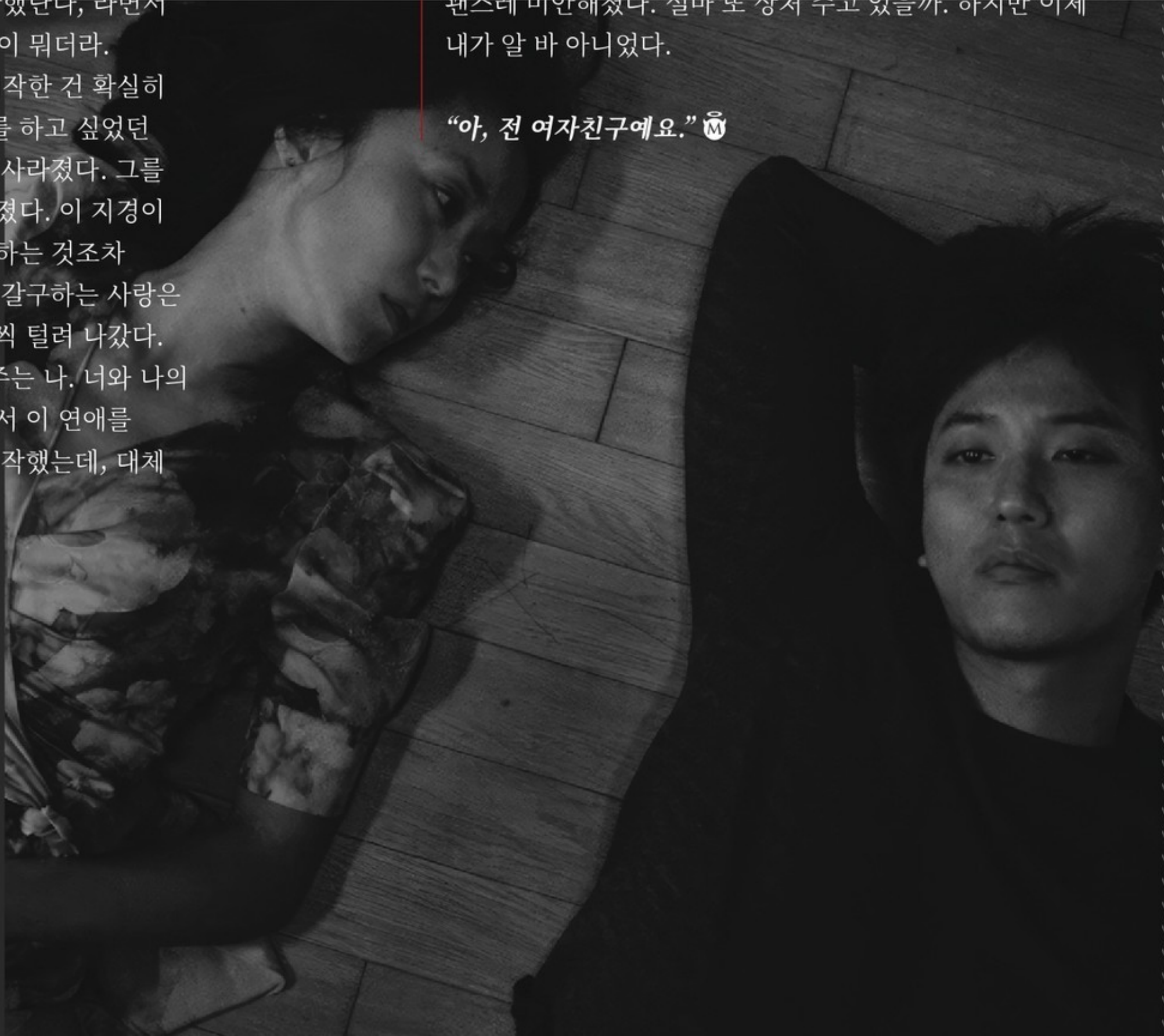
이별해 본 사람들은 안다.
헤어짐은 늘, 받아들일 때보다 알아버릴 때 가장 아프다. 그와 이별한 직후에는 제법 슬펐고, 그걸로 끝이었다. 매도 미리 맞는다지 않는가. 우리가 이별할 것을 진즉부터 예감하며 미리 몸져누운 나와는 달리, 그는 우리가 헤어진 뒤로도 몇 달을 매달리며 끔찍하게 괴로워했다. 본인의 일상까지 내던져가며 아침저녁으로 집 앞으로 찾아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내 손목을 붙들고선 울고불고 화내다가, 금세 풀이 죽어서 용서를 구하기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던 지 말던 지. 질질거리는 동안 신세 지고 민폐 끼친 친구들에게 술도 한잔씩 사면서 천천히 내 삶을 되찾았다. 혼자가 이리도 홀가분히 편할 거면 진즉 안녕할 것을. 그가 새긴 기억이 언뜻언뜻 지워지고 다시 떠오르길 반복할 무렵. 운명의 장난처럼 그를 마주쳤다.

어떻게 지나야 할까.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찰나의 고민조차 할 틈이 없었다. 날 발견한 그가 달려와 와락 껴안았기 때문이다. 익숙한 품, 좋아하던 냄새와 온기까지 참 여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품을 벗어나기 그리도 힘들었다니. 새삼스러움에 가슴 한구석이 간지럽기까지 했다.

우리가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사이였나. 설마 지금도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걸까. 씁쓸하게 퍼지는 감정이 도무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 그의 어깨 너머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선 여자를 보니 더 그랬다. 여전히 무례한 그의 모습에 아무런 감정도 회한도 들지 않았다. 소회가 참으로 간단명료해서 개운했다. 사랑하는 동안 늘 어중간한 거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내 모습과 그녀가 겹쳐 보여서 괜스레 미안해졌다. 설마 또 상처 주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 내가 알 바 아니었다.

"아, 전 여자친구예요."

LAYOUT 전수진 IMAGE 영화 〈무뢰한〉 스틸컷

LOVELY SUMMER JINA

여름 화보를 찍는데 **미스맥심 한지나**가 빠질 수 없지! BY **김한솔**

PHOTOGRAPH BY **박율**

MODEL **미스맥심 한지나**

오랜만이야! 맥심 안 나오고 뭐 했어. 독자들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뜨거운 여름마다 나타나는 작고 사랑스러운 지나에요. 총총총♥ 작년 여름에 육덕지나였을 때 촬영했으니 1년 만에 화보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매년 화보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독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육덕의 표본이었던 지나가 이번 여름에는 살을 빼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중인데, 복근을 만들기 전에 부르셔서 약간 아쉬워요. 딱 한 달만 있다가 불러주지. 그래도 오랜만에 슬랜더 지나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많이 바쁜 것 같더라. 섭외 연락이 안 돼서 진짜 한 달 기다릴 뻔 했어.
지금도 핫걸이긴 하지만, 더 핫걸이 되기 위해 운동하고, 방송하고, 여행 다니고, 관리 열심히 하면서 지냈어요. 지나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방송으로 와. 데헷♥

매번 맥심의 여름 화보를 책임지는 만큼, 여름도 좋아한다며.
뜨겁고, 핫하고, 옷차림도 가벼워지는 이 계절을 어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올해 여름엔 바다에서 서핑이나, 해양 스포츠를 잔뜩 즐겨보려고요! 지나와 같이 이 여름을 찐득하게 땀 흘리며 보내보지 않을래요?

미스맥심 한지나

2019 미스맥심 콘테스트 준우승
키: 153cm
인스타그램: a12486

휴가 갈 시간은 있고?
내가 그대들의 휴양지가 되어줄게 지나를 마음껏 즐겨요. 휴가는 역시 자연이 최고잖아? 자연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는 지나 휴양지를 즐길 테니, 지나는 어디 가고 싶어?
예전에 치앙마이를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자전거 타면서 여유롭게 아이스크림 사먹고 작은 사원에 들어가 기도하던 여름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기회가 된다면 다들 치앙마이는 한 번씩 꼭 가보기!

한지나의 여행 스타일은? 계획적? 즉흥적?
혼자 여행할 땐 100% 즉흥적이고, 일행이 있을 땐 완전 계획형이에요. 느긋하게 즐기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 루트를 짜서 같이 가는 사람에게 최상의 여행을 선물하는 것도 잘해요. 어때, 지나랑 여름 여행 떠나볼래?

“지나와 같이 이 여름을 찐득하게
땀 흘리며 보내보지 않을래요?”

이 마음을 꽉 잡아줄래? 네가 곁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

“내가 그대들의 휴양지가 되어줄게 지나를 마음껏 즐겨요. **휴가는 역시 자연이 최고잖아? 자연 속으로 들어와요♥**”

말만 하지 말고 좀 데려가 줘라!
휴가지에서의 로맨스 있던 적은?
당연히 있죠. 그리스에서 친구들이랑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남자들이 헌팅을 해오더라고요.

그게 끝? 잘 되지는 않았나 보구나.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언젠가는 휴양지에서 운명적인 만남, 불꽃 같은 사랑을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을 거 같아요. 당장이라도 훌쩍 떠나고 싶네요.

올해 유독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며.
어딘가로 떠나고, 현실도피 하고 싶고.
지금 안 바쁜 날이 없는데, 어딘가에 몰두하지 못하고 자꾸 도피하고 싶고 회피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을 꽉 독자님들이 잡아줄래? 네가 곁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당장 현실도피를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건?
현실도피는 늘 여행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딘가로 떠난다는 그 자체만으로 도피하는 느낌이라 그때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만약 지금 떠난다면 프랑스에서 한 일주일 동안 여유롭게 책 읽고 산책하며 지내고 싶어요. 파리를 갈 때마다 늘 일만 해서 아쉬웠거든요. 다시 가게 된다면 사랑이 넘치는 도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어요. 하지만 당장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청소만 하면서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동굴에 들어가기도 해요.

동굴로 들어가기 전에, 한지나를 기다린 맥심 독자들에게 한마디!
이번 여름에도 쏘 핫한 화보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지나에요. 그대들도 다가오는 여름 지나 보면서 더 뜨겁게 타오르길 바라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미친 듯이 파이팅 하세요! 이상 그대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우유빛깔 지나였습니다♥

B cut
coming soon

LAYOUT 이동림 VIDEO 조아라 HAIR & MAKE-UP 해진

가면 ㅈ되는 여행 불가 국가

코로나도 풀리고, 현실도피도 좋지만 아무데나 갔다간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어! BY 김한솔

* 여행금지 기간은 작성일 기준이며, 추후 연장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UKRAINE
유럽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곳

여행금지 기간: 2022년 2월 13일~2023년 7월 31일
수도: 키이우(Kyiv)
면적: 603,500㎢
언어: 우크라이나어(공용어), 러시아어(상용어)

2013년 11월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시작으로, 주재국 정세 악화로 인해 불법 무기가 유통되고 있어 치안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공장소에서 테러 위협이 많아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시내에서 총격 사건 및 차량 폭파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은 여행이 아예 불가능하게 됐다. 러시아의 타격으로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있는 와중에 여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시리아 SYRIA
중동·북아프리카

한국과 미수교국이라 외교부 도움조차 힘든 곳

여행금지 기간: 2011년 8월 20일~2023년 7월 31일
수도: 다마스커스(Damascus)
면적: 186,475㎢
언어: 아랍어(영어, 불어 통용), 쿠르드어, 아르메니아어 등

2011년 이전에는 한국과 미수교국이었지만 여행이 가능했던 나라였다. 소매치기나 절도 같은 범죄가 발생했으나, 사회 일반 범죄율도 낮은 편. 하지만 2011년부터 시리아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내전이 일어나면서 정세가 혼란스러워졌다. 거기에 시리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엇갈리며 내전 양상도 심화됐다. 최근에는 이라크 전쟁 이후 난민 및 테러단체까지 유입되며 더 불안해진 상태라고.

리비아 LIBYA
중동·북아프리카

리비아 서부,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했던 곳

여행금지 기간: 2014년 8월 4일~2023년 7월 31일
수도: 트리폴리(Tripoli)
면적: 1,760,000㎢
언어: 아랍어

2020년 기준, 살인 400여 건, 납치 300여 건, 강도 1,000여 건 등이 발생한 리비아. 정부의 기능 및 공권력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외국민을 막론한 강도, 납치, 살인, 차량강탈, 총기 사고가 빈번하다. 최근에는 마약과 주류 밀매 등 사건도 많아졌다고 한다. IS를 비롯한 지역 범죄조직, 민간인도 총기를 가지고 다녀 전 지역에서 안전에 극히 유의해야한다. 2018년에는 리비아 무장괴한이 60대 한국인을 납치했는데, 이 남성은 무려 315일 만에 석방되었다.

수단 SUDAN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단 내 군별 무력 충돌 상태로 최근 여행금지가 발령된 곳

여행금지 기간: 2023년 4월 29일~2023년 7월 31일
수도: 카르툼(Khartoum)
면적: 1,880,000㎢
언어: 아랍어

수도인 카르툼 지역 같은 경우 상황이 비교적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끽해봐야 여행객들의 물품 도난이 많은 정도였는데, 2023년 수단 내전의 발생으로 치안이 불안정해 방문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내전으로 인해 공습 및 포격과 총격전 등이 발생했고, 국가 주요 건물 및 기관이 공격받아 수단 정부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분쟁 지역 내 재외국민 구출 작전에서는 대한민국 공군 공정통제사와 육군 제707특수임무단이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라크 IRAQ
중동·북아프리카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 론리플래닛에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한 곳

여행금지 기간:
2007년 8월 7일~2023년 7월 31일
수도: 바그다드(Baghdad)
면적: 437,072㎢
언어: 아랍어(공용어), 쿠르드어(쿠르드 지역)

2015년 ISIL과의 교전, 빈번한 자살 폭탄 테러 등으로 치안이 열악한 이라크. 모든 지역에서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하지만, IS 잔당들의 테러가 많은 지역은 절대 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생활 여건은 무척 열악하고 이로 인한 강력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발급의 필수 요건 중 하나가 '철저한 경호 대책 및 신변안전 대책 마련'이다.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서남아시아

9.11테러의 여파로 영영 여행금지가 안 풀릴지도 모르는 곳

여행금지 기간:
2007년 8월 7일~2023년 7월 31일
수도: 카불(Kabul)
면적: 652,000㎢
언어: 다리어, 파슈토어

9.11 테러 이후 20년 내전을 종결하기 위한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나,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무력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불안을 틈타 무장 범죄 조직들이 몸값을 노려 외국인을 납치, 살해하는 등의 범죄도 많다. 또한 아프간은 빈곤국 중 하나로 절도, 강도, 소매치기 등 생계형 범죄도 많으며 사회 분위기 자체가 폐쇄적이다 보니 여성을 상대로한 강간, 성추행 등도 빈번한 편이다.

예멘 YEMEN
중동·북아프리카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폭력적인 사회 중의 하나

여행금지 기간:
2011년 6월 28일~2023년 7월 31일
수도: 사나(Sana'a)
면적: 527,968㎢
언어: 아랍어

1990년 예멘이 통일되며 여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범죄가 끊이지 않아서 2009년 다시 여행이 제한됐다. 후에는 아랍권 민주화 운동 영향으로 여행금지국가로 바뀌었다. 무장세력으로부터 테러 및 납치 등 위협이 많은데, 실제로 사나에서 폭탄테러로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도 있다. 예멘 국민들 같은 경우 자기방어 목적으로 총기 소유가 합법이므로, 성인 1인당 3정 정도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 당연히 이로 인한 인명피해, 총격전도 많은 편이다.

소말리아 SOMALI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육지는 배틀그라운드, 바다는 원피스 실사판

여행금지 기간:
2007년 8월 7일~2023년 7월 31일
수도: 모가디슈(Mogadishu)
면적: 637,661㎢
언어: 소말리아어, 아랍어, 이탈리아어(남부), 영어(소말리랜드 지역)

무정부 상태가 길어지면서 치안은 없고, 외국인 납치가 빈번하다. 후원 단체들조차 소말리아는 꺼리는데, NGO 단체나 의료지원을 위한 사람들을 괴한들이 납치해 석방금을 요구하는 사건도 많았다. 최근에 줄어들기는 했지만, 해상에는 소말리아 해적의 선박 피랍 사건까지 있었다고. 월드컵 예선 같은 국제 경기도 자국에서 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에서 할 정도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말도 많다.

그래서 여행금지 제도가 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다.

➲ 여행금지 제도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여행경보 4단계(흑색 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받는다.

➲ 어떤 처벌을 받나?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래도 꼭 가고 싶다면?
긴급 취재, 보도, 기타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접수, 관계부처 검토, 허가 여부 심의, 결과 통보, 여권 사용 등 허가서 발급, 여행금지국 방문자 교육 열람의 절차를 걸쳐야 한다. 허가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철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독자들은 위의 해당하는 일이 웬간해서는 없을 테니까, 가지 말라면 가지 말자. 징역이나 벌금 문제가 아니라 살아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LAYOUT 전수진

DOUBLE SHOT

미스맥심 양혜원, 청아에게
물총 한 자루씩 쥐어줬다.
가슴에 한 발, 엉덩이에
한 발… 서로를 적시며 점점
대담해지는 그녀들의 물놀이,
같이 하시렵니까?

BY **채희진** PHOTOGRAPH BY **박율**
MODEL **미스맥심 양혜원, 청아**

SPLASH!

여름! 맥심! 비키니! 소리 질러!
청아: 꺄아! 맥심하면 역시 여름이죠. 기다렸던 첫 번째 촬영이 핫한 7월호가 돼서 영광이에요.
양혜원: 제 생일도 있는 7월에 여름 화보 촬영까지 하니까 설렜어요. 작년 미맥콘으로 친해진 청아랑 같이 촬영해서 더 재미있었고요!

휴가 계획은 세웠나요?
양혜원: 청아랑 7~8월에 동남아 여행 가기로 했어요. 오늘 잠깐 얘기했는데 베트남이나 라오스, 태국 중에 한 곳을 가려고요.
청아: 제가 대문자 P라서 즉흥적으로 땡기면 바로 가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언제 어디로 갑자기 사라질지 몰라요.(웃음)

미스맥심 양혜원

데뷔: 2022 미맥콘
인스타그램: h.xon_y

휴가지에 두 미녀가 함께라... 남자가 어떻게 어필해야 할까요?

청아: 일단 몸 좋은 분에게 눈이 갈 것 같은...(웃음) 원래 그렇진 않은데 휴가지니까! 아무리 몸 좋아도 양말에 샌들 신는 건 절대 안 돼!

양혜원: 전 흡연하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바다, 수영장 가리지 않고 멋있는 척하면서 담배 피우기는 제 앞에서 금지입니다.

혹시 먼저 어필한 경험도 있어요? 저에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양혜원: 셀카봉으로 영상 찍고 다니면 남녀노소 모두의 관심을 받더라고요. 눈에 띄는 메이크업이랑 헤어 액세서리 했을 때 특히! "메이크업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청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웃음) 농담이고 별다른 노하우가 없어요!

휴가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더위로부터 도망치면 좋을까요?
양혜원: 수영장이라도 가야죠! 전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도 못하는데, 수영장 가는 거랑 비키니 입는 건 좋아하거든요.
청아: 전 반대로 동네 숯가마 가서 푹 지지면서 땀 빼고 삼겹살 먹어요. 이열치열이 최고예요.

이번 달 주제가 '현실 도피'입니다. 다들 한번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잖아요?
청아: 매일 드는 생각이지만 실천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스마트폰 끄고 온종일 잠자기?
양혜원: 전 미맥콘 나오기 전까지 평범한 K-직장인이었는데,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낀 적 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집 밖에 안 나가고 게임만 하거나 몇 달 동안 일본에 있던 적이 있어요.

미스맥심 청아

데뷔: 2022 미맥콘
인스타그램: s2_six

무더위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면
숯가마 가서
푹 지지고
삼겹살 드세요.
이열치열 최고!

최고의 현실 도피처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청아: 사랑하는 사람의 품? 저 너무 감성적인가요?(웃음) 내 도피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양혜원: 전 집이요! 지금은 혼자 살지만, 가끔 본가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 학창 시절로 돌아간 느낌도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잠수 이별은 현명한 도피 방법이다! vs. 최악의 이별 방법이다!
양혜원: 최악이죠! 성격상 시작이면 시작! 끝이면 끝! 해야 하거든요. 한 번 당한 적 있는데 친구들은 아직도 헤어지자고 안 했으니까 안 헤어진 거래요.(웃음)
청아: 그 남자 진짜 최악의 이별이네. 차라리 환승 이별이 낫지!

두 사람이 직접 맥심의 월 테마를 정한다면 뭘 고를 건가요?

양혜원: 여행이나 자유를 다룬 기사가 많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장소에서 색다른 모습이라든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자유분방한 화보 촬영을 하고요!

청아: 전 홈트를 즐기니까 운동 관련 주제가 좋을 것 같아요. 저랑도 잘 어울리고요.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 벌써 섹시하죠?

자, 이제 독자들에게 인사 남기고 행복 찾아 휴가지로 떠나세요!

청아: SNS 메시지로 대체 맥심엔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 많이 받았는데, 다들 보고 계시죠? 소중한 독자 오라버니들, 7월 무더위 저희 보면서 이겨내세요!

양혜원: 작년까지 카메라 앞에서 우물쭈물했는데, 이번 화보는 칭찬 잔뜩 받으면서 촬영했어요! 앞으로도 활동 많이 기대하세요. 사랑합니다!

HAIR&MAKE UP 지현 VIDEO 1984ilgupalsa

B cut
coming soon

잠수 이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친구들은 아직도
헤어지지 않은
거래요.(웃음)

도피 여행 가서 섹스를 했다고?

무작정 떠나게 된 여행지에서 남자와 섹스를?
2030 여자들의 현실 도피 여행 뒷이야기들.
다 들었으면 뭐해? 빨리 여행 갈 준비해야지.

BY **채희진**(feat. 가명의 여사친들)

"사회 초년생 때 일에 치여 살다가 지쳐서 퇴사하고 무작정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었어요. 그 나이 때는 그렇게 행동해도 될까 싶은 걱정도 많았지만, 막상 한인 게스트하우스는 예약하기 어려울 만큼 한국 사람이 많았었죠. 그러다 한 남자랑 동행을 하게 됐어요. 남들 잘 때 밤늦게까지 얘기 나누고, 산책도 하고. 낮에는 또 같이 걷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2인실을 따로 예약하게 될 만큼 가까워졌어요. 당연히 섹스도 하게 되더라고요.(웃음) 타지에서는 꼭 이상형이 아니라도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면 자연스레 연결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T들은 이해할 수 없는 F들의 사랑 공식일 수도."

정재은(32), 패키지 디자이너

"남자 친구랑 별 이유 없이 허구한 날 싸우던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기분 전환하자고 부산 여행 데려가 주더라고요. 요즘에는 수변 공원에서 술도 못 마시게 한다던데. 그때는 진짜 주말 한강 공원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남자들이 쉬지 않고 와서 말 걸더라고요. 서울말 쓰니까, 공주처럼 대해주는 기분도 느꼈는데. 그날 받은 회만 세 접시였으니까 말 다 했죠. 철저히 외모만 보고 이틀 동안 자유 부인 놀이하면서 놀았어요. 물론 다 공짜로.(웃음) 돌아오는 KTX에서 현타가 세게 왔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마음에 평화가 많이 찾아왔어요."

이가온(29), 회사원

"스트레스 쌓이면 혼자서라도 캠핑을 가요. 처음에는 유튜브로 접했고, 직접 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1~2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혼캠러가 많은 거 있죠? 처음에 우왕좌왕할 때 옆 사이트에 있던 남자 혼캠러가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약간 연예인 이장우 느낌의 잘생긴 연하였는데. 정보도 얻고, 이야기 나누고, 술도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눈 떠보니까 같은 침낭에 누워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왜 또 없는지 아쉬울 때도 있고… 가끔씩 그때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나와요."

장혜민(26), 대학원생

"난 재수할 때부터 도피성 여행 많이 다녔어. 처음엔 찜질방에서 잤어. 모텔은 눈치 보이고 무섭잖아.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진 후에야 자주 가게 됐지. 만났던 남자 중 절반 이상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이야. 그렇게 만나면 일단 나에 대해 편견을 갖고 대하는 사람이 적어.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내가 혼자 여행 온 이유와 심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많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마음이 가면 한 번 하는 거지."

박서영(35), 개인 사업

"급 연차 쓰고 냅다 사무실에서 도망쳐서 여행 가보면 막상 심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데이팅 앱을 돌렸어요. 생활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모르는 사람이랑도 가볍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괜찮으면 섹스까지 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남자를 꼬셔보겠다는 생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얼굴이나 몸 사진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작품 이미지나 물건, 음식, 장소 같은 거 올려놓고 매칭되면 제 취향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만 대화하니까 힐링이 되거든요.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거나 몸 사진 보내면 차단하고, 제 관심사 주제로 꾸준히 대화하는 사람은 만나는 식이죠."

최란(28), 큐레이터

"뭐, 혼자 여행 가는 여자들의 절반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 아닐까. 인간관계에 지치고, 일에도 지치고, 그러다가 뭐라도 안 하면 인생줄 놓아버릴 것 같으니까 여행이라도 떠나보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곳, 대화도 안 통하는 곳에 간 거면 100%지. 나나 친구들도 그렇게 여행 다니는 애들 있거든. 서로 까놓고 얘기해 보면 진짜 별일 다 있었더라. 나는 외국인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 정확히는 많이 했지.(웃음) 어찌나 다들 위로를 잘 해주는지. 생각하는 기준도 우리나라랑 달랐고. 물론 개중에 우리나라 애들도 있었지만. 결국 도피하려는 마음은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지만, 한편으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아닐까?"

이희주(37), IT 개발자

"일본 출장 갔을 때 회사에 거짓말하고 이틀 더 뺐어. 원래 다 그렇지 않나?(웃음) 이참에 온천도 가고, 한적하게 쉬면서 리프레시 하면 일도 더 잘할 수 있으니 서로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 직장인은 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 그때 같이 출장을 갔던 기자 중에 한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던 것처럼! 우연히 같은 온천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금세 친해졌어. 일정 중에는 한 마디도 안 나눴었는데 꽤 괜찮은 사람이었더라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차까지 렌트를 해서 덕분에 나도 잘 돌아다닐 수 있었지. 그렇게 낯선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랑 친해지니까 너무 가까워지는 거야. 그날 혼욕도 하고, 차에서도 하고, 성진국 간 김에 판타지란 판타지는 다 실천했어.(웃음) 그리곤 진짜 깔끔하게 끝! 다른 행사 갔을 때 마주쳤는데, 서로 진짜 친한 척 안한 게 웃음 포인트긴 해."

김희선(39), 기자

"작년 여름에는 출근해서 친구랑 카톡 하다가 둘 다 스트레스 폭발 직전이라 급 연차를 쓰고 양양으로 떠났어. 주말에는 가는 데만 대여섯 시간 걸리는데, 평일에 가니까 금방 도착하더라.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서핑도 하고, 바닷가에서 맥주도 마시는데 동선이 계속 겹치는 남자 둘이 있었어. 처음에는 우리끼리만 놀 생각이라 통성명 정도만 했는데, 어느새 자연스럽게 술도 한잔 하게 됐어. 근데 친구가 한 남자랑 사라진 사이에 이 남자애가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얼굴도 괜찮고, 몸도 좋고, 연하라서 일단 뭐 키스까지는 했지. 그 후에 친구 찾으러 같이 돌아다녔는데, 친구가 해변 구석에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웃음) 서로 그날 혼자 왔다고 생각하고 실컷 즐겼어."

박혜란(34), 회사원

PHOTOGRAPH BY 박율 MODEL 미스백심 양혜원, 청아 LAYOUT 전수진

원더우먼은 가부장제를 꿈꾼다?

페미의 우상이 된 그녀, 정말 행복할까? BY **박중우**

원더우먼의 탄생 비화

1941년 12월, 세계 2차대전이 한창이던 해에 '원더우먼'이라는 여성 히어로 캐릭터가 세상에 등장했다. 당시 박터지게 전쟁하던 미국의 골머리를 썩이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팔다리 멀쩡한 남자라면 모조리 빨아들여 전쟁터에 내보내는 바람에 국가를 지탱하는 주요 도시에 남자들이 부족했던 거다. 그 무렵 대부분의 선진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계를 구축했다. 남자들이 없다는 것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소리였고, 산업 경쟁력의 약화는 국력의 약화, 나아가 전쟁 이후의 패권 다툼에서 패배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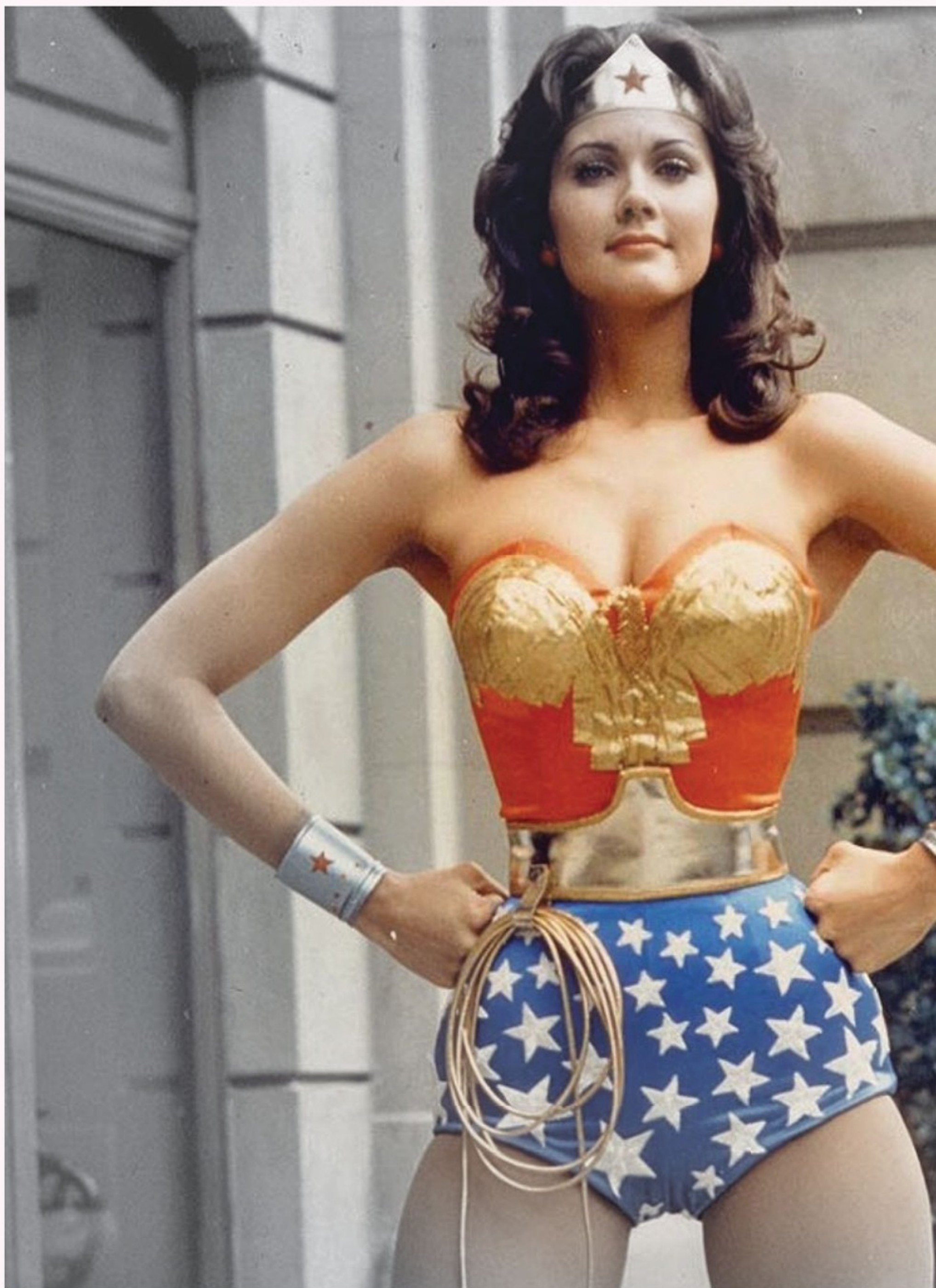
나라를 운영하는 윗대가리들은 짱구를 열심히 굴려 훌륭한 해결책을 내놨다. 사회적 여성성의 강화, 이른바 '여성의 애국화' 정책이다.

주먹 대신 사랑으로!

이때 말하는 사회적 여성성의 강화란, 국가 노동력의 부재를 여자의 노동력으로 채우자는 것이다. 여자들은 가정을 벗어나 공장으로 향했고, 용접, 비행기 시공, 군용 차량 조립 등 손에 기름때를 묻히는 위험한 일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노동 전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 정부에선 각종 선전을 펼쳤다. 이 시대 흐름에 맞춰 "미국, 민주주의와 여성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요새"라는 슬로건으로 응답하며, 원더우먼이 탄생한다.

그녀는 만화가나 작가가 아닌, 거짓말탐지기의 발명가이자 심리학자인 몰턴 마스턴 박사의 손에 창조된 캐릭터다. 국가 존립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지에서 날아온 공주. 주먹 대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강하고 아름답고 독립적인 원더우먼이 능력 있는 여성의 대명사로 자리 잡는 것이 당연했다.

그녀가 탄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여권신장운동의 불길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원더우먼은 강한 여성의 상징에서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2세대, 3세대로 나아가는 동안 페미니즘은 조금씩 운동에서 사상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원더우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

IMAGE CBS 〈Wonder Womans, 1975~1979〉 스틸컷

사랑하지 못하는 원더우먼

그녀가 속한 DC코믹스 평행 세계관에는 최강자 슈퍼맨의 여친이 죽고 그가 솔로 상태인 몇몇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에피소드에서는 종종 원더우먼은 '슈퍼맨(강한 남자)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포지션을 메꾸는 존재이자, 슈퍼맨의 연인이 되어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여자로 묘사된다.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우상이 남자에게 종속되는 이 모습을 견딜 수 없었고,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강인한 슈퍼히어로지만 사랑 앞에서는 한낱 여자에 불과하다'라는 설정은 구시대적인 캐릭터 설정으로 치부되었고, 오늘날 원더우먼은 사랑과 인류애를 강조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결코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비극적인 캐릭터가 된다.

원더우먼이 탄생하던 시절, 다시 말해 페미니즘이 여권을 위한 '운동'으로 남아있던 시절에는 그녀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에 다들 거부감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사상화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볼 때, 원더우먼에겐 사랑할 권리와 자유가 없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낙원에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본능적인 행위는 죄악시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목표,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본능을 통제하는 사상을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열이다. 즉, 그녀들의 사상적 방향은 여성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여성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죄악시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흐른다.

이 맥락에서 다시 물어보자. 원더우먼(여자)이 슈퍼맨(강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보호받고, 그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왜 그리 거북했을까? 그녀가 자신의 본능 욕구에 충실하고 개인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단지 배 아파서는 아닐 테고. 답이 좀 보이나?

가부장제 원더우먼

기사 사진 속 원더우먼은 1975년 TV 시리즈 버전의 원더우먼이다. 주먹보단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이때의 그녀는 매력적이고, 허리띠를 빼앗기면 연약한 여자가 되기도 한다. 슈퍼맨과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2017년 영화로 리뉴얼한 원더우먼은 어떤가? 갑옷으로 몸을 빈틈없이 가리고, 말로는 여전히 사랑을 위한다지만 문제는 주먹으로 해결한다. 칼 한 자루 들고 적진을 누비며 닥치는대로 썰고 다니는 무위가 굉장하다.

여자가 남자의 세상에 들어와 몸을 의탁하고 보호받는 동시에 자신은 정서적으로 헌신하는 형태를 '가부장제'라고 한다. 가끔 슈퍼맨에게 의지하고 그와 연애도 하는 가부장제 세상 속 원더우먼과, 홀로 적진을 누비는 영웅 원더우먼 중, 누가 더 여자로서 행복할지는 뭐, 여자들의 본능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MISS MAXIM CONTEST
2 ROUND START!

당신이 뽑은 미스맥심 후보 TOP 28의
비키니 화보를 감상하시라!

BY **배주영** PHOTOGRAPH BY **ZINHO**

1 ROUND **3위**

토리

직업: 프리랜서 모델
이상형: 마스터 성향
남자가 섹시한 순간: 마음이 넓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일 때, 맛있는 거 사줄 때
인스타그램: toriis_me

다들 토리 예쁘다고 난리다!
제가 원래는 미맥콘 나와서 가늘고 길게 가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요. 상상 이상의 표를 받게 되면서 최종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다 독자님들 덕분이에요♥

그 사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많이 늘었다면서?

토리

키: 160cm
어필 포인트:
눈, 보조개

미맥콘 나오기 전에는 팔로워가 2.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6.5만 명이에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웹소설 작업도 잠시 중단했습니다.(웃음)

노 계속 젓게 생겼다. 2라운드도 보나 마나 찢었으니까...
이번에는 하늘색 비키니랑 젖은 머리칼로 청량하고 귀여운 느낌을 연출해봤어요! 처음 벗는 거라서 전체적인 실루엣도 신경 썼고요. 오늘 독자님들한테 저의 이런 안쪽(?) 피부들을 처음 보여드렸는데요. 흥미로우셨길 바라요~♥

몰랐는데 나 이런 거 흥미로워하네!
여러분~ 앞으로도 제 본연의 매력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요. 독자님들께선 제가 똥을 싸더라도 박수쳐 주시고요!(웃음) 항상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1 ROUND **11위**

순수

직업: 대학생
이상형: 다정하고 섹시한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반전 매력이 보일 때
인스타그램: korewa_i_de_aru

순수한 비키니에 그렇지 못한 몸매!
비키니가 튀면 몸매가 덜 튈까 봐 최대한 심플한 걸로 입었어요. 제가 또 피부가 하얀 편이니까... 어때요? 속살이 예뻐 보이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슴이 커서 웬만한 비키니는 다 가리개(?)가 돼버려요. 이것도 면적이 꽤 넓은데도 간신히 얹어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여러 번 사고 날 뻔했습니다.(웃음)

와우... 여러모로 아찔하네.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몸매 가진 사람 찾기 힘들거든요. 이제 마른

것보단 육감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은 제대로 취향 저격당하지 않았을까요? 허리는 25인치인데 골반이 40인치니까...

'표정은 1등'이란 칭찬까지 들었다.
전 단지 원하는 듯한 눈빛을 쐈을 뿐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세요~" 하는 느낌?(웃음)

얼마면 돼!? 내가 가진 거 (뭐 없긴 하지만) 다 주고 싶다...
독자님들의 한 표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1라운드 때 저를 응원해 주고 투표해 주신 분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많이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음에 또 봐요~ 꼭!

순수
키: 168cm
어필 포인트:
몸 라인

1 ROUND **23위**

담보

직업: 건축 기사
이상형: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격렬하게 키스한 다음에 숨 몰아쉬면서 눈 풀린 채로 나를 봤을 때
인스타그램: ro_bbin123

1라운드 통과한 줄도 몰랐다면서?
맞아요! 연락받고 알았어요.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기대 안 한 사람치곤 칼 제대로 갈고 온 것 같은데...
제대로 즐기기 위해 정열적인 레드로 골랐어요. 가장 눈에 띄는 색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겹쳐서 비교당하기 싫었거든요. 한마디로 독보적으로 가고 싶었다!?

담보

키: 164cm
어필 포인트:
가슴, 눈 밑 점, 입술 라인과 자연 입꼬리

뭘 입어도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다.
최근에 허리 근육 염증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느라 몸이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제 몸매 장점이 잘 드러나면서 라인이 최대한 예뻐 보이는 옷으로 골랐습니다! 포즈도 신경 많이 썼고요.

당신의 장점이라면, 당연히 내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겠지?
그렇죠. 옆에서 봤을 때 더 자연스럽고 예쁜 가슴 라인!(웃음)

그럼 독자들에게 가슴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맥심 구독자분들! 솔직히 이런 캐릭터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투표도 꼭 해주시고요. DM으로 응원 메시지 한 번씩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ROUND **2위**

송리나

직업: 런던대 교수
이상형: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엉뚱한 매력이 있는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열심히 사랑할 때
인스타그램: lina_song_bird

송 교수님의 비키니 화보를 드디어...!
작년에는 하차하는 바람에 비키니 화보를 못 찍고 갔는데요. 다행히 올해도 1라운드를 통과해서 이렇게 비키니를 입게 되었네요!

일 년간 존버한 독자들을 위해 준비한 비키니는 무엇인가요?(두둥)
다른 참가자분들과 차별화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노출이 과하거나 귀여운 느낌보단 지적인 분위기로 어필해야겠다 싶어서 블랙 비키니를 골라봤어요.

이미 지적인 분께서 어필까지... 촬영 전략까지 세우고 왔다면서?
화보라는 게 단순히 예쁘고 몸매 좋게 찍히는 게 다가 아니고, 사진 한 장에서 많은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자연스러운데, 지적이고 또 은근히 섹시한 느낌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송 교수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더라.
제가 올해 미맥콘 나와서 개인적인 이슈로 힘든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공감이나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마음이 복잡하지만, 여러분께 응원받는 만큼 열심히 하려고요! 좋게 봐주시고요, 투표도 많이 해주세요!

송리나

키: 164cm
어필 포인트: 가늘고 곧게 뻗은 다리, 섹시한 골반 라인

1 ROUND **22위**

차유리

직업: 방과 후 교사
이상형: 어깨 넓은 남자
남자가 섹시한 순간:
깨끗하게 씻고 나왔을 때
인스타그램: glamswan2022

길쭉한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기럭지가 장난 아니다!
오늘 저의 신체적 장점을 제대로 어필하기 위해서 하이레그 비키니를 준비했답니다. 다리가 평소보다 더 길어 보이지 않나요?

원래는 이 비키니가 아니었다고?
막판에 블랙으로 바꾸려 했는데 배송이 늦어져서 못 가져왔어요.

차유리

키: 169cm
어필 포인트:
쭉 뻗은 다리

다행히 오늘 입은 게 여수의 푸른빛이랑 잘 어울려서 결과적으론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 독자들 안달 나게 할 예정이라면서?
제가 키가 큰 것도 있지만, 유부녀라서 다가가기에 더 어려운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걸 보면 오히려 소유욕이 불타는 법이거든요.(웃음) 그래서 일부러 더 업신여기는 듯한 표정을 지어봤죠. “너, 나 갖고 싶지? 근데 난 이미 팔렸어!”

평생 업신여겨 주세요!!!
앞으로 계속 나쁜 여자 콘셉트로 밀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웃음) 3라운드 올라가면 더 색기 넘치고 농염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꼭 뽑아주세요!

1 ROUND **7위**

새하

직업: 프리랜서 모델
이상형: 무쌍, 손 예쁜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일 집중해서 할 때
인스타그램: h2_seayyyy

머리 스타일이 바뀐 건가?
1라운드 땐 앞머리 숱이 많았는데 지금은 살짝 걷었습니다. 날도 더우니까요! 3라운드 가게 되면 그때쯤엔 앞머리가 다 자라서 없을 수도 있겠네요.

여수 온다고 신경 좀 썼나 보다.
투표 끝나고 여기 오기까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몸매 관리부터 의상 준비까지 다 완벽하게 하기엔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고요.

새하

키: 160cm
어필 포인트: 기립근

얼마나 촉박했길래... 오늘 다른 참가자 비키니를 빌려 입었다고?
옷을 주문한 게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담보랑은 원래 친하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했죠. 마침 자기한테 작은 비키니가 있다면서 빌려줬습니다! 담보한텐 작은 게 저한텐 딱 맞아서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웃음)

좋은 친구 덕에 사진이 잘 나왔군!
내 친구 담보야. 고마워~♥ 덕분에 촬영하면서 포토 실장님한테 칭찬도 많이 들었다!

두 사람의 우정 3라운드에서도 꼭 볼 수 있길 바란다!
다들 여수까지 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예쁜 추억도 만든 것 같아요. 독자님들! 저희 오래 보고 싶지 않나요? 그럼 잊지 말고 투표 부탁드려요!

1 ROUND 8위

윤진

직업: 대기업 인사팀
이상형: 나만 봐주는 착한 남자
남자가 섹시한 순간: 정장이 잘 어울릴 때
인스타그램: gimy2849

투표 기간 내내 일을 못 했다고?
회사에 있는데도 긴장이 안 멈추더라고요. 물론 일하기 싫은 마음도 아주 살짝 있었지만?(웃음)

다행히 여수로 휴가 아닌 휴가를 왔다.
여수 처음 와본 건데 너무 좋네요! 맨날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보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까 힐링됩니다.

촬영 순서 일빠로 고른 이유가... 설마 빨리 찍고 놀러 가려고?

윤진

키: 165cm
어필 포인트: 눈웃음, 쇄골, 개미허리

1라운드 때 제 바로 앞이 E다연 님이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하려니까 부담돼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스타트 끊고 당당하게 하고픈 거 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기선제압을 위해 빨간 비키니까지 준비했구나.

제가 회사에서 HRD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자님들을 꼬시기 위해 '빨간 맛'으로 특별한 교육을...(웃음)

꺄~ 얼른 독자들 참교육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빨간 맛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허리랑 엉덩이가 예쁘니까 이쪽을 좀 더 자세히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응원이랑 투표 많이 해주세요!

1등

1 ROUND 1위

김갑주

직업: 트위치 스트리머
이상형: 밥 잘 먹는 남자
남자가 섹시한 순간: 내가 남긴 밥 먹어줄 때
인스타그램: kimgapju

어일갑!(짝) 어일갑!(짝)
계속해 주세요!!!(웃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덕분에 진짜 1등으로 올라온 김갑주입니다! 살짝 얼떨떨하네요.

상금 백만 원은 어디에 쓸 거야?
다음 라운드 준비할 때 더 과감하게 투자해볼 예정이고요. 비키니 촬영도 끝났으니까 맛있는 고기도 사 먹고 해야죠.

다이어트 빡세게 했다면서. 뺄 데가 어딨다고!
제가 비키니를 처음 입어봐요.

진짜로. 그래서 살을 엄청 많이 빼니까 팬들도 막 걱정했죠. 우리 갑주는 안 된다, 국보다, 지켜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웃음) 다행히 가슴은 유전이라 안 빠지더라고요! 다들 안심하세요♥

진정 축복받은 유전자다! 부럽...
저희 외할머니부터 대대로 물려온 바스트고요. 확인까지 다 마쳤습니다.(찡긋) 제가 몸매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오늘도 저 자신을 믿고 열심히만 했어요.

이번 라운드에서도 1등 가나요!!!
그동안 '어일갑'이라고 계속 가스라이팅 해왔기 때문에 1등 못 하면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어일갑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가봅시다!

김갑주

키: 166cm
어필 포인트: 가슴, 눈, 허벅지

투표 기간 어떻게 지냈어?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매일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몇 등인지 확인해보고. 예선 면접 볼 때보다 투표 기간이 더 쫄리던데요!

어렵게 여수까지 왔는데, 비키니를 안 챙겨오다니!
흐엉! 마음에 드는 비키니가 없어서 이것저것 다 샀는데도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키니 느낌이

1 ROUND **21위**

이희나

직업: 미대생
이상형: 다정하고 대화를 좋아하고 잘 웃는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줄 때
인스타그램: holly.__ju

나는 란제리를 가져왔는데, 이건 물에 들어가면 비쳐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맥심에서 준비해 준 비키니를 입었습니다.

원래 본인 것처럼 잘 어울린다. 소화력 뭐냐고!
마침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더라고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계획했던 대로 발랄하고 청량한 느낌을 살려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못 보여준 란제리는 다음 라운드에서 보여주는 걸로!
란제리가 몇 라운드였죠? 일단 2라운드는 꼭 통과해야겠네요. 독자님들, 들으셨죠?(웃음) 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고 싶으시면 저 이희나한테 투표해 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강요예요! 부탁드려요!

이희나

키: 160cm
어필 포인트: 눈

1 ROUND **6위**

박서이

직업: 치과위생사
이상형: 재밌고 웃을 때 예쁜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자기 일에 집중할 때
인스타그램: qt_seoe

일반인이라고 걱정하더니 1라운드 6위로 올라왔다!
저 진짜 완전 생 일반인이라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 성적으로 여수까지 오게 되었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에 자랑 많이 하고 왔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자랑했는데, 엄마는 제가 6등 할 정도로 예쁜 줄은 모르겠다면서 일단 2라운드 갔다 오라고 하셨어요.(웃음) 그때부터가 찐일 것 같다고!

인정! 미맥콘은 비키니 화보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숨겨놨던 저의 사방으로 뻗은 자연 바스트를 보여드리기 위해 위아래가 뚫린 비키니를 입었습니다. 이걸 막 가지고 놀면서 자연의 맛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카메라랑 덜 친해졌나 봐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아니야… 충분히 친해진 것 같아.

으음~ 아직 보여줄 게 많이 남았다고요!(웃음) 여기까지 올 줄 모르고 있다가, 준비를 허겁지겁하고 온 게 후회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3라운드 때 한 번만 더 봅시다! 칼 제대로 갈고 돌아올 테니까 꼭 뽑아주세요!

박서이

키: 163cm

어필 포인트: 바스트

1 ROUND **10위**

진다율

직업: 프리랜서 모델
이상형: 소신 있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씻고 나오자마자 샴푸 향이 날 때
인스타그램: jin_da.yul

이것이야말로 시스루의 정석!
1라운드 때 상의 탈의 포즈
하려다가 제지당한 거 아시죠? 그
한을 풀기 위해 오늘 '보일랑 말랑'
콘셉트로 준비해왔어요.

남들 다 벗을 때, 진다율은 입는다?
정답! 입은 게 더 섹시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원래는 맥심
수위에서 한참 벗어난 마이크로
비키니를 입으려고 주문했는데
배송이 안 왔어요. 또 나머지 후보는

진다율

키: 160cm
어필 포인트: 도톰한 입술, 엉덩이

손바닥만 한 비키니였는데 주위에서 하도 말려서 못 입었어요.(웃음)

하마터면 맥심 유튜브 채널 정지 먹고 영영 사요나라 할 뻔했다... 그나저나 왜 이렇게 젖었어?
아까 러브젤이랑 물로 범벅을 했거든요. 사실 콘셉트가 하나 더 있는데, 흠뻑 젖어버린 콘셉트예요. 여기 막 끈적끈적하게 점액 나오는 거 보이나요? 이게 젤을 들이부어서...

아직 2라운드밖에 안 됐는데...
제가 비키니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콘셉트를 준비했는데, 절 보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신선함을 느끼셨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물론 남아있는 코스튬이랑 란제리는 완전 자신 있으니까 꼭 뽑아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아니, 김지원 씨는 어디 가고...
안녕하세요! 1라운드 겨우 통과한 구 김지원 현 유안입니다. 개명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직 친구들도 몰라요.(웃음) 독자님들, 이제 유안으로 기억해 주세요!

왜 하필 젖소 비키니를 고른 거야?
흔하지 않고 저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는 걸 입고 싶었어요.

1 ROUND **24위**

유안

직업: 프리랜서 모델
이상형: 자기 관리 잘하고 나랑 잘 놀아주는 남자
남자가 섹시한 순간: 근육 있을 때,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 설명할 때
인스타그램: yuahnme

왠지 젖소는 아무도 안 입을 것 같고, 시선이 확 쏠릴 것 같더라고요. 제 머리 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약간 우윳빛에... 청순+섹시 젖소랄까요?(웃음)

신선하다 신선해! 오늘의 주요 감상 포인트는?

오늘 헤어랑 메이크업을 제가 직접 하고 왔거든요. 평소에 하던 것처럼. 현실에 있는 여자친구 모습처럼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움에서 묻어나오는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독자들의 (상상 속) 여친이 되어주시겠다~?

여자친구랑 호캉스 왔다고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꾸밀 줄 모르는 여친이 갑자기 도발하는 모습도 궁금하지 않나요? 독자님들께서 다음 라운드로 보내만 주시면 제대로 도발해 보겠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세요!

유안

키: 167cm
어필 포인트: 뒤태, 허리라인

1 ROUND **24위**

권수진

직업: 회사원
이상형: 섹시한 남자
남자가 섹시한 순간: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날 때
인스타그램: nothing_betttter

사진 찍을 때 자신만의 좌우명이 있다고?
'이 구역의 섹시 대마왕은 나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계속 주문을 겁니다.(웃음) 그럼 자연스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구역의 섹시 대마왕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 골반과 복근이 잘 드러나는 끈으로 된 비키니를 골랐거든요. 섹시하죠?(웃음) 머리도 빨갛게 염색해서, 빨간 머리에 파란 비키니! 마치 태극기 같은 대비를 줬습니다.

촬영하면서 칭찬이 끊이질 않더라.

권수진

키: 165cm
어필 포인트: 운동으로
다져진 복근과 타고난 골반

실장님이 골반이 예쁘게 나온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걸로 일단 이 비키니를 입은 목적을 달성했고요. 포즈도 알아서 잘한다고, 촬영 많이 해본 사람 같다고 하셨어요.

화보 경험은 없어도 바디 프로필은 누구보다 많이 찍어봤잖아!

지난번엔 30번 정도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라운드 촬영 끝나고 여수 오기 전까지 또 10번 가까이 찍었어요. 이 정도면 바프 공장이라고 해도 되겠어요!(웃음)

열심히 칼 갈고 왔으니 이번엔 상위권 노려보자!

3라운드 올라가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오늘은 섹시 대마왕으로 주문을 걸었는데, 아직 큐티랑 청순이 남았거든요. 꼭 올라가서 독자님들께 다른 매력들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 ROUND **9위**

연화

직업: 놀이 선생님
이상형: 자기 일을 사랑하고 말이 잘 통하는 남자
남자가 섹시한 순간: 평소에 안 쓰던 안경을 쓰고 노트북으로 일할 때
인스타그램: flower.ye0n

헤엑... 아무것도 안 입은 줄 알았잖아요!
오늘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헷갈리는, 일명 '긴가민가' 비키니를 준비했는데 어떤가요?(웃음) 아마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게 될 거예요! 살색만큼 야하고 섹시한 색깔도 없다는 거 아시죠~?

연화

키: 170cm
어필 포인트:
각선미, 작은 얼굴,
비율, 직각 어깨

아니 선생님, 유교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유교걸이라 비키니를 입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촬영하는 것도 가뜩이나 떨리는데 비키니까지 입으니까 더 긴장됐어요.

유교걸의 첫 비키니 촬영 소감은?
긴장 안 한 척하려고 최선을 다했고요!(웃음) 한 번 더 찍으라고 하면 고민 없이 또 찍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경험이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로 삼행시 가겠습니다.

저번엔 '미스맥심'으로 사행시 하시더니... 구!!!
'구'독자야~ '독'하게 준비 많이 했으니까 '자'주 보자 우리! 잊지 말고 날 꼭 뽑아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VIDEO 백스페이스 이원재 LAYOUT 전수진
COOPERATION 블루망고풀빌라앤리조트

2023 MISS MAXIM CONTEST ~~TOP 28~~ → TOP 14

비키니는 맥심! 2라운드 1위의 영광은 누구에게로?!

2라운드에 진출한 28명의 참가자들이 벌인 비키니 대전! 여수의 〈블루망고 풀빌라&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비키니 화보는 그야말로 눈을 뗄 수 없는 장면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어김없이 잔인한 시간이 돌아왔다. 2라운드 진출자 중 14명은 여기서 탈락하게 된다. 매력적인 나만의 그녀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투표 기간과 투표 방법을 꼭 확인하자. 누구를 고를지 고민이 된다면 역대급 호평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맥콘2023〉 꼭 보시라!

2라운드 투표 기간 6월 29일(목) 10AM ~7월 4일(화) 3PM

아프리카BJ **그린**

필라테스 강사 **민e**

전직 치어리더 **E다연**

대학생 **이연우**

중국어 번역가 **양서윤**

아프리카BJ **김마요**

치과위생사 **래현**

웹디자이너 **옐랑**

간호조무사 **첼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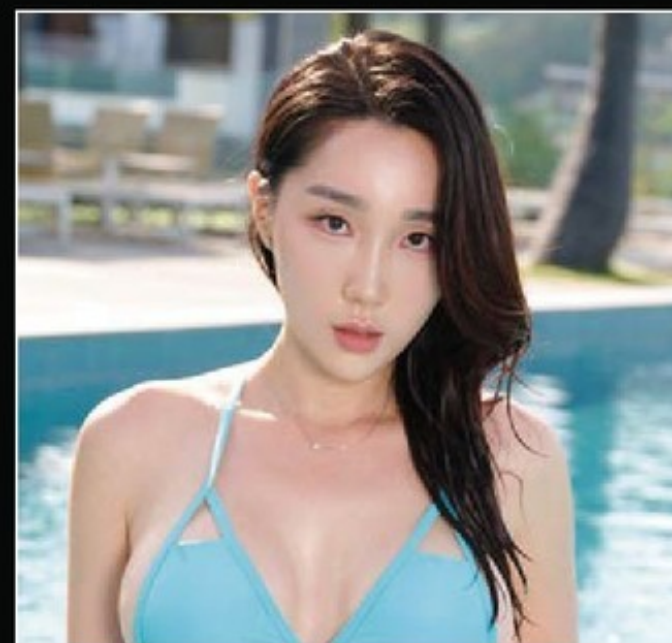
회사원 **해나**

DJ **쮸**

헬스 트레이너 **희야**

아프리카BJ **려니**

환경연구원 **정은이**

프리랜서 모델 **토리**

방과 후 교사 **차유리**

건축기사 **담보**

치과위생사 **박서이**

프리랜서 모델 **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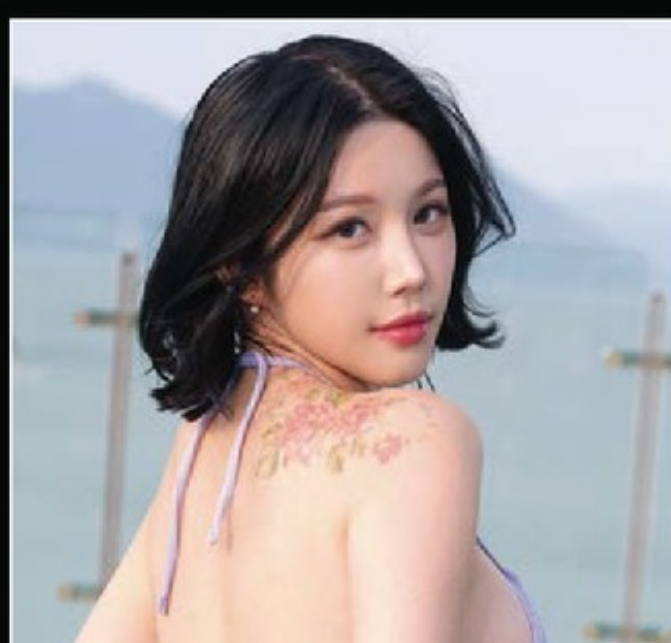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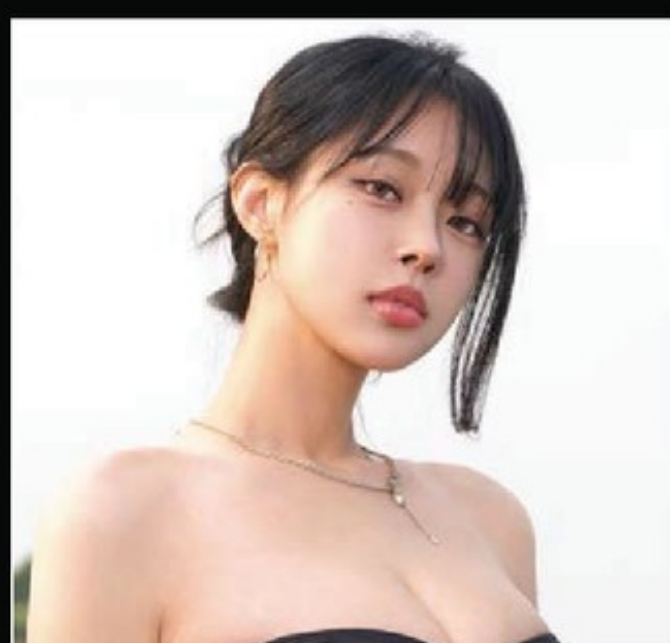
대기업 인사팀 **윤진**

런던대 교수 **송리나**

회사원 **권수진**

프리랜서 모델 **유안**

대학생 **순수**

프리랜서 모델 **진다율**

미대생 **이희나**

트위치 스트리머 **김갑주**

놀이 선생님 **연화**

2라운드 화보 공개

6월호~7월호

(미공개화보: bcut.maximkorea.net)

2라운드 투표 방법

1. 맥심 홈페이지(maximkorea.net) 접속 후 로그인을 한다.
2. 로그인 후 메인메뉴에서 [MISS MAXIM]→[콘테스트 투표하기] 클릭!
3. 2라운드 진출자 28명의 섬네일 클릭 후, 2라운드 화보 확인!
4. 당신의 마음에 드는 예비 미스맥심 **14인**에게 투표(1일 1회)

다시, 로맨스

연애 프로 보면서 대리만족이나 하고 있었는데… 나에게도 로맨스가 찾아왔다.

BY **지애작가**

보고 싶은 연애 프로는 차고 넘치는데, 정작 보고 싶은 애인은 없다.

예능 속 러브 라인을 보면서 요동치는 심장이 현실에서는 뛰고 있나 싶을 만큼 고요하다. 대리 설렘, 대리 연애, 대리 이별… 모두 느낄 수는 있지만, '진짜'가 아니다.
순간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러브를 한단 말인가? 큰일이다. 로맨스가 사라졌다.

불황의 속설이 있지 않나? 경기가 나빠지면 립스틱, 복권, 콘돔, 소주가 많이 팔린다고. 마지막으로 콘돔을 산 게 언제였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설마, 나만 빼고 다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불길함에 기사를 뒤져보니 불황은 맞는데, 이상하게 콘돔 매출이 줄었단다. 우리 모두 콘돔도 안 사고, 섹스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연애 프로로 대리만족하고 있는 걸까?

> 내 마음속 씨앗이 싹 틔우지 못하고 영영 잠들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 로맨스는 정말로 사라져버린 걸까?**

사라진 로맨스를 찾습니다

경기침체기 속 프리랜서의 삶은 유난히 더 하찮고, 불안하다. 몸은 '프리'하지만 마음은 괴로운 프리랜서의 삶… 이걸 더는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어찌어찌하다 보니 내가 40대에 직장인이 되었다.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자연스레 이 세상 모든 직장인을 존경하게 된다. 전쟁 같은 출근길을 뚫고 사무실 의자에 앉고 나면 내 안에서 인류애가 점점 사라지는 게 느껴지거든. 회사생활을 시작하면 돈도 벌고 새로운 남자도 탐색할 수 있겠거니 싶었는데(물론 그 바람은 출근 첫날 깨졌지만).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이렇게 정신없는데 감히 로맨스를 꿈꾸다니… 그럴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직장인으로 살만해진 건지, 내가 직장인 익명 앱을 깔고 있더라. 그게 뭔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프리랜서는 가입할 수 없는 게 'B' 앱이거든. 여하튼 전부터 꼭 한번 가입해보고 싶었던 그 앱에 가입하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셀소, 미팅, 썸, 연애, 19금 등등. 신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그러다 어느 늦은 밤 술기운에 글을 남기고 잠이 드는데… 세상에!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하니 대화 메시지가 엄청나게 와 있는 거다. 내가 수십 명의 남자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있던가? 그래, 지애야!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는 개뿔. 하나같이 목적이 뻔한 메시지들이었다.

씨앗이 싹을 트려면 적당한 온도와 물, 산소, 공기, 그리고 빛(또는 어둠)이 필요하다. 씨앗마다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에서 발아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영원히 싹을 못 틔우기도 한다. 모두의 마음속에 로맨스는 있다. 우리의 로맨스는 씨앗을 닮아서, 모두가 사랑의 씨앗을 품고 있지만 싹을 틔우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내 마음속 로맨스 씨앗이 더 이상 싹을 틔우지 못하고 영영 잠들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 로맨스는 정말로 사라져버린 걸까? 상상만 해도 슬프고 외로워진다.

부재중 전화

얼마 전 행사 참석차 부산 출장을 다녀왔다. 여러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던 행사장은 그야말로 사람으로 차고 넘쳤다. 그런 와중에, 앞줄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있는 저 낯익은 옆모습. 누구더라? 분명 아는 남자인 것 같은데... 그 뒤로 남자는 좀처럼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후 행사가 끝나고, 직원들과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서니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행사장을 이동하면서 열심히 둘러보아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행사장을 빠져나가려는 찰나에 누군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지애야."

돌아보니 아까 그 낯익은 옆모습의 주인공, 대학 동기 H가 서 있었다. 연기과였던 H는 동기 중에서도 멋진 편이었고, 연기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은 그런 아이였다(대략 내 스타일이었다, 뭐 그런 얘기). 아무튼 H가 연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 행사장에는 왜? 이런 생각을 한 건 그도 마찬가지였겠지. 내가 그에게 먼저 명함을 건넸더니, 자기는 명함이 없다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다. 서로 일행이 기다리고 있어서 길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채 그대로 헤어졌다. 정말 짧은 마주침이었다. 나는 방금 전 H의 전화하겠다는 말이 '언제 밥 한번 먹자'와 같은 인사치레라고 생각했다.

숙소에 들어와서 짐을 풀고 쉬려 하는데 전화가 울렸다. 설마...? 는 무슨, 대표였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미포의 한 조개구이집에서 미친 듯이 소맥을 마시고 있었다. 바람에 휘몰아치는 밤바다가 꼭 내 마음 같아 보였다. 그래, 비록 로맨스는 없지만 부산 밤바다에 시원소주도 나쁘지 않지! 그렇게 나 자신을 다독이며 마저 남은 술을 들이켰다. 그렇게 밤 9시가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있었다.

"바람에 휘몰아치는 밤바다가 내 마음 같아 보였다. 그렇게 밤 9시가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있었다.**"

설마, 이번엔 '진짜'인가?

처음에는 전화가 온 줄 몰랐고, 한 번 더 전화가 왔을 때는 이사님 말씀을 듣느라 받을 수가 없었다. 내 몸은 계속해서 시원소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고 달맞이길 모 술집에 다다랐을 땐 이미 만취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H였다.

"어제 너랑 술 한잔하고 싶어서 전화했었는데, 일부러 안 받는 줄 알았어."

나는 어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안하니 커피를 사겠다고 했다. 역시, 나의 로맨스는 사라진 게 맞아.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나를 안 도와준다고? 그는 이미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란다. 몰려오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통화를 끝내려는데, H가 물었다.

"서울에서 볼 수 있어?"

서울에서 볼 수 있어?, 서울에서 볼 수 있어?, 서울에서 볼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래. 연락할게."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하고는 후딱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 동기들의 근황을 묻는 척, 은근슬쩍 H의 근황을 확인했다. 결혼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지금은 연애 휴지기란다. 꺄!!! 좋다, 좋아...

자, 그럼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확인해볼 차례다. 내 로맨스, 아직 남아있는지. 그리고 싹 틔울 수 있는지. 물론 내가 맥심에 썰 풀려고 연애하고 싶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녀석과 잘 돼서 썰을 풀고 싶은 작고 귀여운 소망은 있다! 로맨스, 못 잃어!

정치인의 현실 도피 지금 그럴 때인가?

누구보다도 현실을 직시해야 할 그들이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 BY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대변인 하헌기**

돈 봉투 선거 의혹에도 여전히 안으로만 굽는 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돈 봉투가 돌았단다. 돈 봉투를 돌린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생생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스무 명 정도가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 녹음파일에서 실명이 언급된 사람들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비리 의혹으로 당에 부담을 주지 말고, 의혹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복당하라는 취지였다.

나는 생각이 좀 달랐다. 몇 사람 탈당하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임을 유권자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에 수사권도 없고, 증거를 비롯한 자료도 없어서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래서 혐의 일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수사기관에 맡겼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권한을 남용하고 편향된 수사를 일삼는 정치검찰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 정당이었는데 말이다.

이후 돈 봉투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검찰로부터 국회로 넘어왔다. 가부에 대한 캐스팅보트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었다. 민주당 혹은 민주당 의원들만 결단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황당했다. 앞뒤가 전혀 안 맞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되거나 불구속이 되거나 할 것이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애초에 법원의 판단 자체를 안 받아도 된다. 이상하지 않은가? 민주당이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나? 스스로 조사할 역량이 없으니 기관의 판단에 맡기자며. 그럼 사건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관들에 맡겨야 앞뒤가 맞지. 자기들이 못 믿을 검찰한테 맡기자고 해놓고, 막상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지적하며 법원에 판단 받는 걸 거부하는 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나?

보도를 보니, 민주당 출신 두 의원이 혹시라도 구속되면 수사가 탄력을 받아 총선 때까지 민주당이 검찰과 여당의 사냥터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장은 정치적 부담을 지더라도 일단은 검찰권 남용을 선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일리는 있는데, 나는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고 검찰 수사가 멈추지는 않는다. 어차피 총선 때까지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사정 정국을 이어갈 것이다. 그럴 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자정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야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도 지적할 명분이 생길 것이다. 스스로 문제 조사하는 걸 포기하고 검찰에 넘겼으면서, 막상 사법의 판단을 전부 부정한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즉, '총선 때까지 야당을 검찰의 사냥터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자체조사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소속 정당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차피 검찰 수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현실로 보나 본인들 스스로 뱉어놨던 명분으로 보나 민주당은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현실과 명분을 다 고려해 보자면 국민 신뢰를 받을 행동을 하는 게 맞다. 당장은 괴로울지라도 결국에는 이기는 길이다.

나는 정덕(정치덕후)으로서, 실제 국회와 정당의 실무자로서, 직접 정치 행위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정치권이 돌아가는 것을 오래 들여다봤다. 정치권이야말로 '현실도피'인 집단이다. 현실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기보다 자기들끼리 구성한 서사로 도피한다. 앞서 언급한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가 그런 사례 중 하나다.

팩트 없이 선동만 가득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의힘이라고 다를 건 없다.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현실은 뭔가?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굳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옹호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는 비용 문제다. 30년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 일본에서 보관하고 보다 보수적으로 안전을 고려해 처리하는 것보다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해 버리는 게 비용이 덜 든다. 그런데 그건 일본 입장이고. 대한민국이 왜 일본이 핵폐기물 오염수 처리하는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국민의힘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염려하는 목소리들을 '비과학적 괴담'이고 '선동'이라고 힐난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동의했었는데 야당되니 입장을 바꾼다는 '상대 정당 탓으로 물타기'하는 것도 빼먹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어떨까? 오염수가 '안전' 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 학자들 간에 최소한의 합의가 끝난 상태가 아니다. 여러 다른 의견이 충돌한다. 이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결론 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논쟁적인 문제' 라고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국민 안전이 결부되어 있다면 논쟁적인 문제에 있어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

'선동'이라는 부분도 사실 황당한 이야기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엔 본인들도 거품 물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난리를 쳤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질 때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 '선동'했다는 자백을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고,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없다.

팩트체크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합동 TF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없다는 내용이 실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당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이다. 이와 더불어 여당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국민이 처한 현실이나 국민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현실을 종종 외면한다. **내가 보기엔 현실 민심의 불벼락이 머지않았다.**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도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누락하고 있는 게 있다. 정 전 장관은 세 가지 조건을 달았다. 첫째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둘째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급한 두 사례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정치권이 곧잘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국민이 처해있는 현실이나 국민이 본인들을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외면하려 든다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걸핏하면 본인들의 '서사'로 도망가려 든다.
사례를 들자면 끝도 없다. 국민 누구도 관심 없는데 자기들끼리만 진지한 의제로 같은 당내에서도 권력투쟁을 하고, 정당간에도 정쟁을 하는 사례가 한 두 가지던가? 그 극단에 가면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지경에 이른다. 여기서 더 나가면 투표가 조작되었다며 부정선거론까지 들이댄다. 국민의 평가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조사가 잘못된 거라고 데이터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사는 평행우주의 서사로는 그런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는 조작일 수밖에 없는 거겠지.

하지만 어쩌나. 국민은 열성 지지층의 커뮤니티나 정치 유튜브 채널에 살지 않는다. 현실에 산다. 그리고 그 현실은 팍팍하다. 그 현실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이 처한 현실에서 자기들 정파적 서사로 도피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파적 서사라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열성 지지층 커뮤니티에선 환영받고, 그 콘텐츠를 재가공, 생산하는 정치 유튜브 조회수는 올라가겠지. 그러나 그 바깥에 있는 현실에선 민심의 불벼락을 맞을 뿐이다. 내가 볼 땐 머지않았다.

PHOTOGRAPH BY 박율 MODEL 미스맥심 이하나 한지나

에디터의 마감 도피

마감을 이틀 앞둔 맥심 에디터의 대가리를 활짝 오픈한다. BY **윤정도**

1

“잡지를 만드는 에디터의 현실 도피 행각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오냐, 그리 하거라.”

7월호 기획은 평소보다 쉽게 통과되었다. 편집장도 잡지사 내부의 스토리를 까는 메타드라마식 기사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지. 대충 기사 쓰기 존나 싫을 때 즐겨하는 쓸데없는 취미나, 자료 찾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이트 같은 거 몇 개 모아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2주 전이다. 7월호 제작 마감 6월 19일, 그리고 오늘은 6월 17일.

“네 편집장님, 거의 다 썼고요. 정리만 하면 됩니다!”

슬슬 정리해야겠다. 에디터로서의 삶을.

2

정신 차리자. 대출 원금 갚으려면 아직 멀었다. 일단 이렇게 의식이 흐르는 대로 끄적이다 보면 주제랑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에피소드가 생각나겠지. 마침 주제도 현실도피니까 현실을 부정하며 살았던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자. 사춘기 시절엔 게임만 했고, 재수했을 땐 오히려 즐거웠다. 여친한테 차였을 때? 그건 너무 많이 써먹었는데... 그렇다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거나 MSG를 들이붓자니 그건 에세이가 아니잖아. 아니,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다른 에디터나 칼럼니스트들은 정말 자기 얘기를 쓰는 걸까? 혹시 다들 뚝딱뚝딱 소설 찍어내는데 나만 븅신처럼 내 흑역사 다 까발리는 거 아니야?

동기나 후배 에디터 놈들은 에세이를 거의 안 쓰고 미스맥심만 쫓아다니니 알 턱이 없고, 칼럼니스트 필진과는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 대놓고 “이 사연 실화인가요? 이런 섹스를 진짜 해보셨어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 관계까진 아니다. 기사고 뭐고 일단, 수년 전 맥심을 떠난 뒤 서로의 생일에만 안부를 주고받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형, 예전에 섹스 칼럼이나 에세이 썼던 거, 그거 다 경험담이야?”
“음... 반반? 왜?”

그럴 줄 알았다 시발. 나는 영창 간 거, 바지에 똥 싼 거까지 다 깠는데.

3

제발 정신 차리자. 요즘 편집장 쇠질 하던데 이대로 기사 펑크 냈다간 내 명치도 뚫릴 수 있다. 아무튼 반드시 내가 경험한 얘기를 안 써도 된다 이거지? 그래 하긴, 내가 여자 수백 명을 만나봤다고 쓴다 한들 독자들은 믿어야지 뭐 어쩔 거야. 언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사실은 열 명도 안 사귀었고 차인 적이 더 많으며 술담배도 안 하는 털보 돼지가 나라는 걸 대부분의 독자는 모를 테니까. 좋아, 그럼 일단 현실 도피를 꿈꾸는 과거의 내가 주인공인 거고. 여주는 누구로 하지? 외모는? 이름은? 이런 식이면 웹소설이랑 다를 게 뭐지? 고도로 발달한 수필은 소설과 구분할 수 없는 건가?

그러고 보니 에디터 선배 중 웹소설 작가로 성공한 사람이 두어 명 있다고 들었다. 다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창작 능력을 키웠구나. 마침 이번에 장르 소설 추천하는 기사 쓰면서 봤더니, 그쪽 시장도 어마어마하던데. 나도 그냥 회사 때려치우고 웹소설이나 써볼까. 장르는 어떤 쪽으로 하지? 무협지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중세 지식도 전무하고, 역시 현실 판타지물로 가야 하나. 일단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맛만 좀 봐야겠어.

4

...6월 18일이 되었다.
안 그래도 심각한 상황인데 자빠져서 웹소설 읽느라 8시간을 낭비했다. 아니, 사실 완전 낭비는 아니지, 겁나 재미있었으니까. 독자를 몰입시키는 스토리텔링에 대해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자. 일단 내가 언젠가 웹소설을 쓴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 가야 좋을지도 명확해졌다. 짧은 호흡으로 수백 수천 편을 쓰려면 특정 분야 및 업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내가 경험을 해본 잡지사나 광고 대행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야겠지. 7년 차 남성 월간지 에디터가 맨홀에 빠졌는데 나와 보니 10년 전으로 회귀한 건에 대하여, 같은 느낌으로다가... 어? 괜찮은데?

근데 어떤 작품을 읽어도 맞춤법 오류나 비문이 너무 많더라. 웹소설 작가는 교열을 따로 받지 않는 건가? 편집장이 지랄 안 하나? 하긴 우린 마감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쪽은 매주일 테니. 매주 마감이라니 존나 불쌍해. 마감 치자마자 며칠 뒤면 또 마감인 거잖아. 우리는 내일 마감이지만 다음 달까지는... 아, 시발 내일이네. 좆됐다 진짜. 일단 쓰자. 써 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5

때는 2013년 여름, 잠은 오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만 야단법석을 떠는 밤이 있다. 그날이 그랬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로 시작된 잡생각은 '다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다'를 거쳐 '섹스하고 싶다'로 이어졌다. 열대야에 축 늘어져 허벅지에 달라붙은 불알을 무심코 건드린 순간, 갑자기 헤어진 여자 친구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졌다. 이별한 지 2년이 넘어 이젠 사진을 보지 않으면 얼굴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생판 남이 된 사람이다. 알콩달콩 연애하던 시절이 생각난 건 아니었다. 그리운 건 오직 그녀의 몸, 특히 후배위 중 내려다보던 그녀의 새하얀 등과 양쪽 옆구리의 말캉말캉한 감촉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처져있던 불알이 쥐며느리처럼 오그라들었다. 나는 뭔가에 홀린 듯 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사무치는 그리움이 무심코 건드려진 불알 때문인지 아닌지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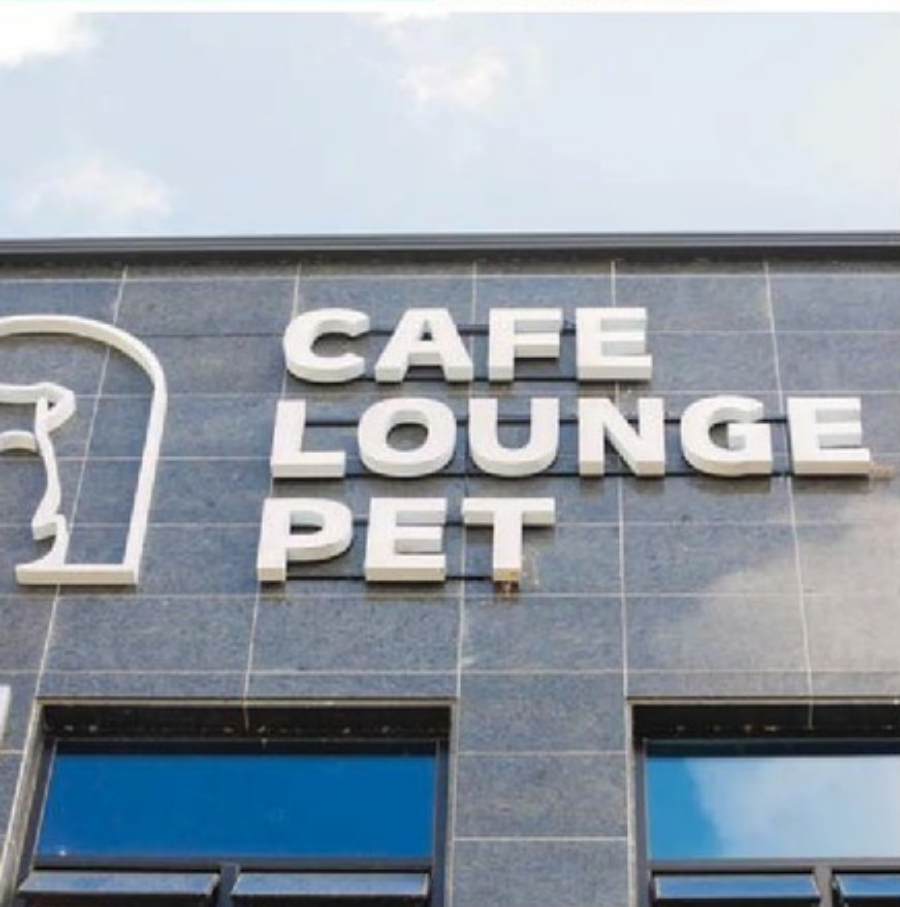
못 쓰겠다. 불알 같은 소리하고 있네. 2012년이면 군대에 있을 땐데 뛰쳐나오긴 뭘 뛰쳐나와. 시작부터 없는 말 지어 내려니 재미있고 말고를 떠나서 쓰는 거 자체가 고역이다. 그냥 이 메모를 기사로 만들련다. 제발 화보에 정신 팔린 편집장이 읽지도 않고 오케이 하기를... 어차피 독자 중에 여기까지 글 읽는 사람 거의 없잖아. 아오, 웹소설인지 뭔지 난 절대 못 써.

LAYOUT 진수진 / 이거 보고 빡친1인 편집장(이 새끼 명치 뚫을 준비 중)

MISS MAXIM Picnic with 댕댕이

미녀와 댕댕이, 이 조합은 못 참지. 개 키우는 미스맥심들 싹 다 모여! PHOTOGRAPH AND WORDS BY 김한솔

2021 미스맥심 우승자 은지와 얼마 전에는 '맥심기상청'에 나와 귀여움을 뽐낸 푸딩이.

멘솔?

#MC딩동 #미스맥심 #댕댕이데이트

얼마 전, 2020년 맥심 5월호에 출연한 사전 MC계의 레전드 'MC딩동'에게 연락이 왔다. 이제 코로나 풀려서 자기 잘나간다고 자랑하려는 건가? 했는데 청담에 있는 반려견 문화복합공간 '펫타리움'이 경기도 하남 미사에도 열렸으니 놀러 오라는 거였다… 는 건 표면상 이유고, 강아지 키우는 미스맥심들이랑 같이 오라는 게 요지였다. 펫타리움은 파인 다이닝 라운지, 애견 케어 센터, 베이커리 카페와 펍까지 완비된 애견인을 위한 프리미엄 라운지다. 귀여운 댕댕이와 미스맥심의 꿀조합에 딩동 햄 혀 드리블이라면 하여튼 즐겁지 않겠나? "편집장님, 제가 비록 댕댕이는 없지만 인간 개X끼라면 가도 되지 않을까요? 왈왈!"

이번 호 커버를 시원하게 장식한 2021 미스맥심 이소윤과 아초(좌), 호빵(우)

나도 그녀 무릎 위에 앉고 싶다

현장엔 이윤미, 채은정, 이하늘 등 많은 방송인, 인플루언서/애견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거기서도 우리 미스맥심 한나나(하비 엄마), 김은지(푸닝이 엄마), 이소윤(아초, 호빵이 엄마)의 미모가 가장 빛났다(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녀들이 모셔온 이날의 VIP, 댕댕이들마저 주인 닮아서 귀여움과 미모가 폭발했다. 개도, 사람도 즐거운 와중에 디제잉과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고, MC 딩동은 멍멍이와 미녀들 사이를 오가며 현란한 혀 드리블을 선보였다. 마침 날씨도 좋고 탁 트인 루프탑 테라스가 있어 댕댕이들 모두 신나 보였다. 물론 회사 째고 온 내가 제일 신났지. 멍멍!

가만있개
촌스럽개

엄마, 나도
맥심 나왔개

오메 개 냄시여~

연예 전문 MC에서 국내 1호 개크레이션 MC로 변신한 MC딩동. 이날 반려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몸소 개가 돼주었다.

2017 미스맥심 한나나와 하비. 명견 하비는 가장 오래 '기다려'를 하며 이벤트에서 상품을 쓸어 갔다. 기특해.

내 새꾸
기특하~

COOPERATION 펫타리움 하남 미사 직영점

MAXIM
BUYER'S EDGE

곧 휴가철! 놀러 갈 때 필수로 챙겨야 할 녀석들만 모았다.

탈모 걱정? COOL하게 날려버리자!

두피도 열 받으면 머리털 뱉어낸다는 사실… 몰랐지? 탈모 원인 중 하나인 두피 열을 해결하기 위해 쿨링 전문 브랜드 멘톨로지가 나섰다. 여름철 뜨겁게 익어가는 두피를 식혀줄 '슈퍼 쿨 샴푸'.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케어해주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으로, 모공 속 가득 찬 노폐물까지 시원하게 씻겨줄 거다. 3중 임상 시험(세정력/피부 열 감소/저자극 테스트)까지 패스한 녀석이니 올여름은 멘톨로지로 쿨하게 나자!

멘톨로지(www.menthology.com)

이게 에센스야? 선크림이야?

그렇다! 이것은 엠도씨에서 나온 '선샤인 UV 솔루션 에센스'다. 자외선 강한 여름에도 맨얼굴로 돌아다니는 수컷들을 위한 제품이다. 야외활동에도 끄떡없는 자외선 차단제와 피부 결을 책임질 에센스를 곁들인 올인원 제품이라고.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어 피지 범벅인 지성 피부도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단다. 외출하기 전 이거 하나만 발라도 수분 공급과 자외선 차단을 한큐에 해결하는 셈!

엠도씨(080-334-3780)

더 진하고 맛있다! 비타수 액상형

담배 대신 비타수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같은 맛만 피우려니까 금연할 맛 싹 사라진다고? 아직 포기하지 마. 비타수에서 액상형 신제품을 출시했거든! 덥고 습한 날씨에 피우기 좋은 슈퍼 멘솔부터 달콤한 블루베리, 새로 나온 상큼한 청포도 맛까지. 골라 피우는 재미도 있겠는데? 액상은 맛과 향이 잘 느껴지는 데다가 타격감도 연초 못지않다고! 종류 번갈아 가며 피우다 보면 자연스레 금연 성공 신화를 이루게 될지도…?

비타수 스토어(www.vitasoo.com)

방구석 왁싱 숍, 블락 쉐이버

3분 만에 털로 뒤엉킨 부위를 민둥산으로 만드는 물건이 있다? YES! 집에서 손쉽게 전신(머리털 제외)에 자라나는 털을 말끔하게 정리해줄 전동 제모기 '블락 쉐이버'만 있으면 왁싱 숍 안 가도 된다. 세라믹 블레이드로 자극 없이 부드럽게 털을 밀 수 있고, 4가지 클리퍼로 구성되어 부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모가 가능하기 때문! 굵고 곱슬곱슬한 겨털부터 소중이 털까지 몽땅 집에서 셀프로 케어할 수 있는 개꿀템이다!

블락(02-505-5036)

뜨밤에 '젤' 필요한 아이템

그녀의 메마른 곳을 젖게 만들 마법의 아이템! 동아제약이 만든 성인용품 브랜드 윙크의 '내추럴 마사지 젤'을 소개한다. 피부 자극 지수가 0.00인 데다가 유칼립투스잎 오일과 8가지 허브 추출물까지 들어 있어 피부에도 참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남녀 관계까지 좋아지겠다…♥ 오랜 시간 사용해도 끈적거리지 않고 촉촉한 사용감을 자랑하며 수용성 포뮬러라 물에도 쉽고 간편하게 씻긴다고. 이제 같이 쓸 사람만 구하면 되나요?

윙크(080-920-3007)

2주면 해결 OK! #어니언겔크림

여드름, 기미, 잡티 때문에 울긋불긋해진 피부가 고민이라면 꼭 챙겨야 할 이즈앤트리 '어니언 뉴페어 겔 크림'. 적양파 추출물이 71%나 함유되어 피부 트러블부터 기미 잡티 흔적까지 싹 지워준다. 붉은 기와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비타민 C 유도체와 수분 공급에 탁월한 3중 히아루론산이 들어있어 얼룩덜룩한 피부를 환하고 깨끗하게 가꿔줄 거다. 안전한 성분으로만 만들었다니까, 한번 믿고 딱 2주만 써 봐!

이즈앤트리(02-541-0555)

MISS MAXIM 인물 퀴즈 **각선미 편**

이번 문제도 쉽지 않네...

다음 맥심 편집부 공채 시험에 이 문제들이 나올 수도? BY **김한솔**

Q. 다음 사진을 보고 어떤 미스맥심의 각선미인지 맞추시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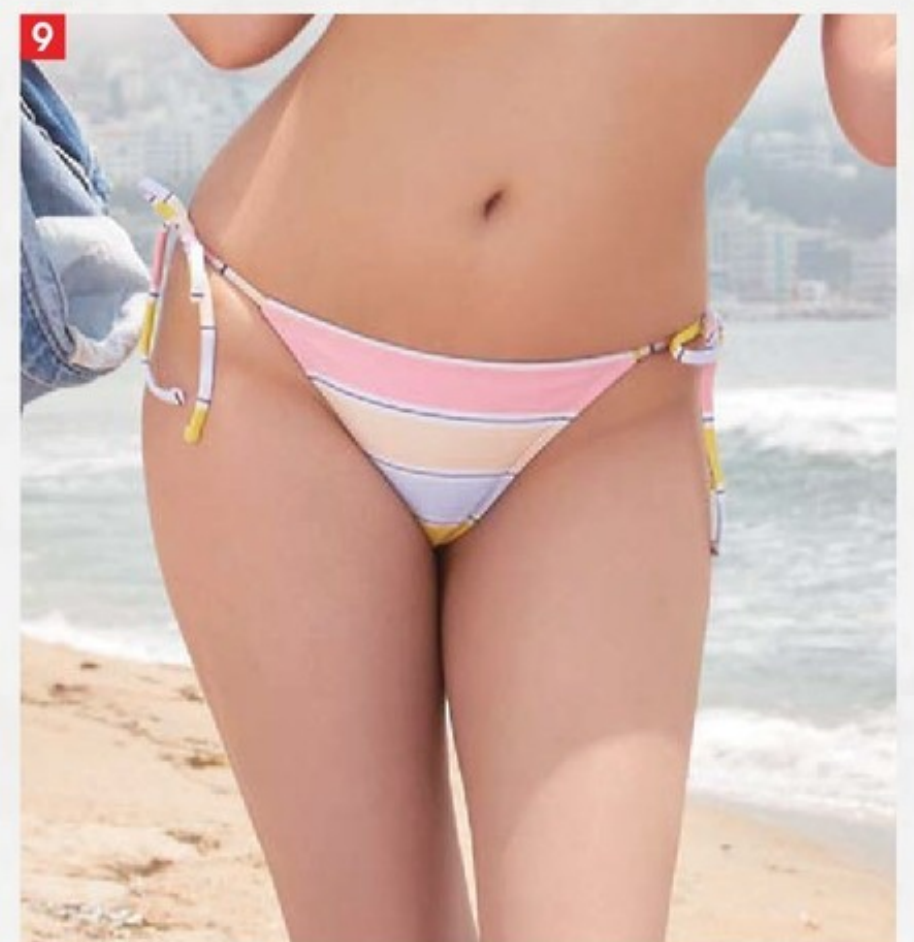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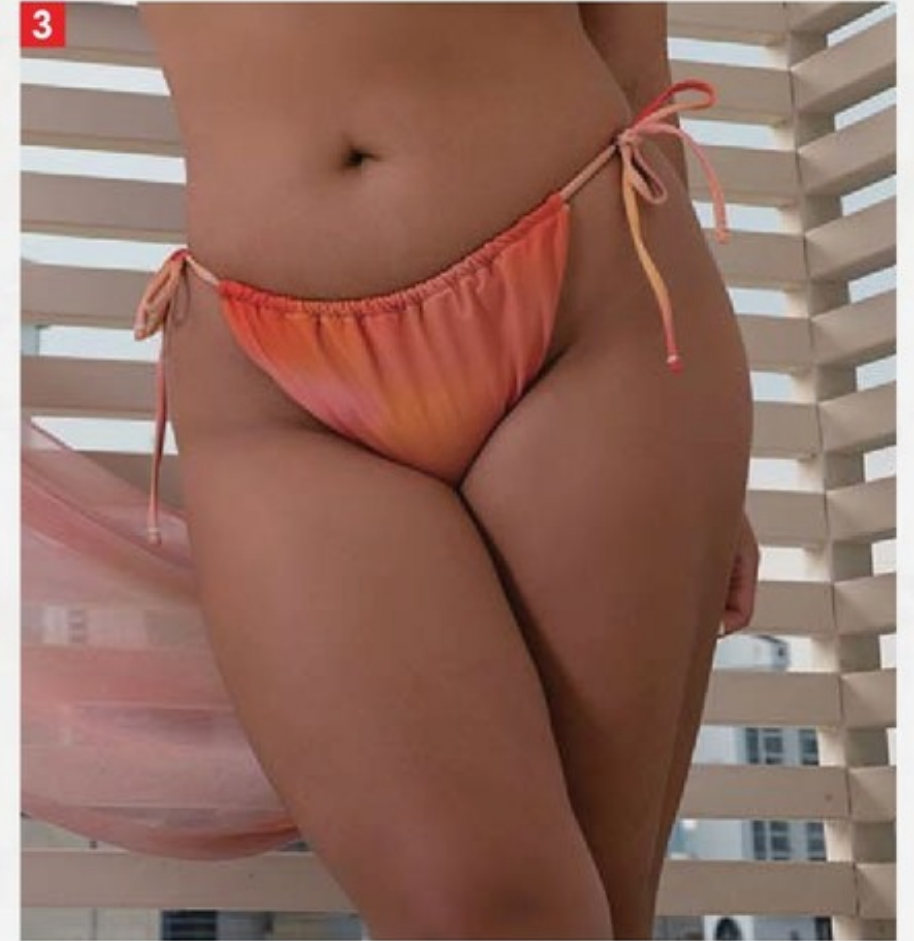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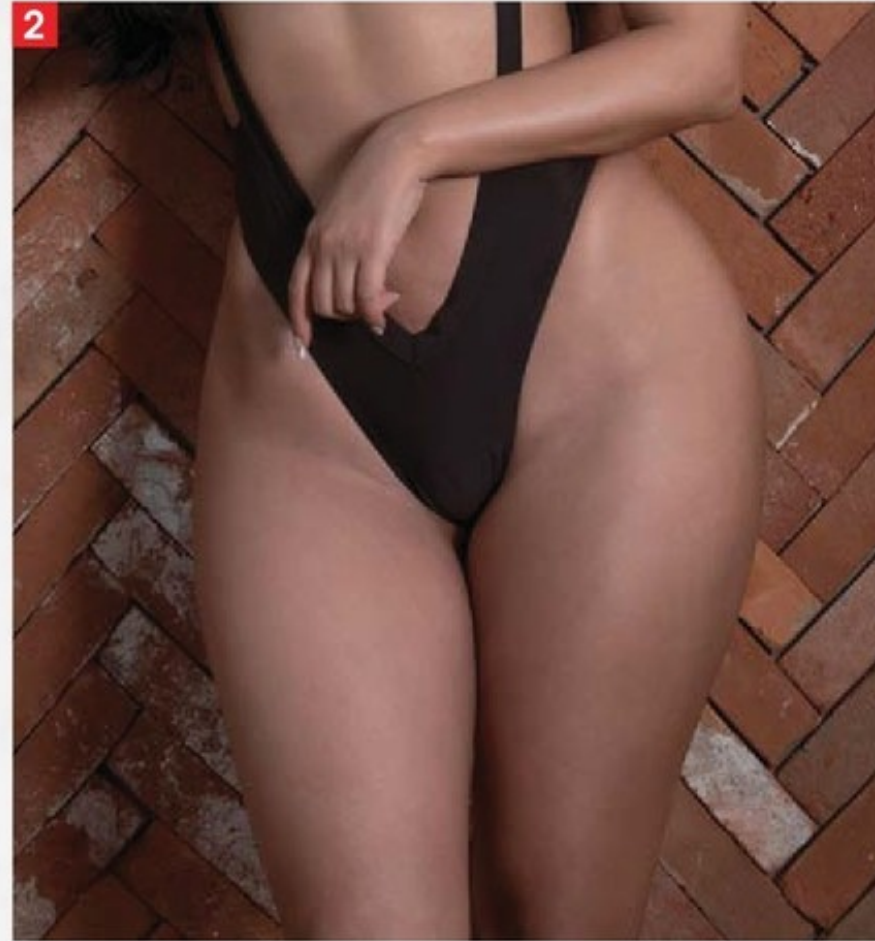
4

5

6

7

8

9

정답이 궁금해? ➔

MISS MAXIM 인물 퀴즈 **각선미 편**

이번 문제도 쉽지 않네...

다음 맥심 편집부 공채 시험에 이 문제들이 나올 수도? BY **김한솔**

A. 정답

1 2017 미스맥심 **김은진**

2 2021 미스맥심 **썬비키**

3 2021 미스맥심 **아승연**

4 2015 미스맥심 **이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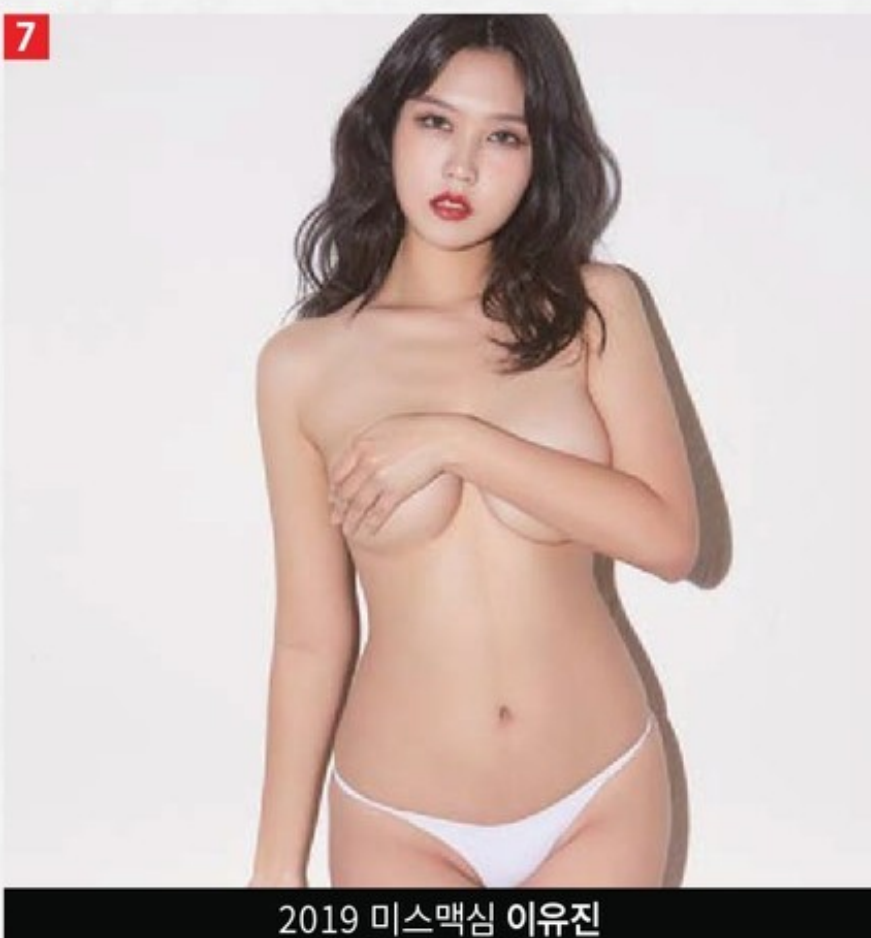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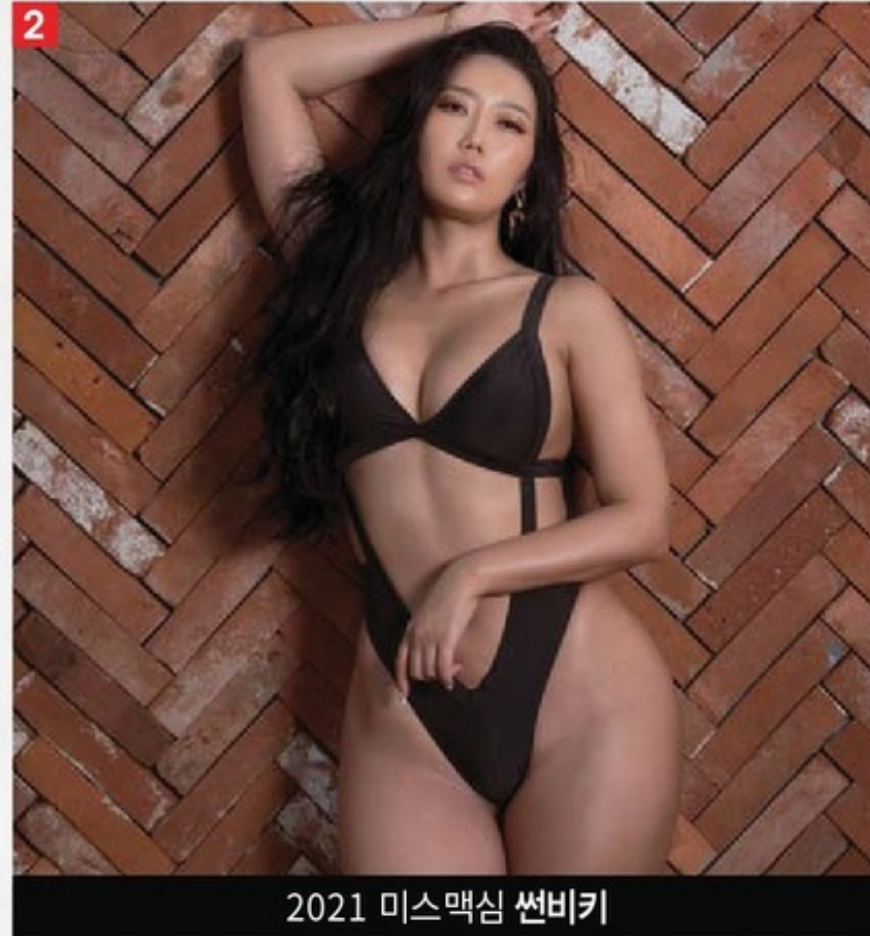
5 2018 미스맥심 **이아윤**

6 2016 미스맥심 **이예린**

7 2019 미스맥심 **이유진**

8 2016 미스맥심 **이하니**

9 2019 미스맥심 **한지나**

맥심사보

JULY 2023

진실에 병맛을 더해 전하는, 맥심 유일의 사내 소식지. 사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바보짓을 온누리에!

미스맥심 콘테스트 14강을 결정할 투표, 6월 29일부터! 투표와 관계없이 통과할 슈퍼 패스 3인방은 누구?

올해부터 도입된 줄넘기, 풍선 터뜨리기 등 각종 비키니 게임을 통해 참가자 민E와 박서이가 투표 순위에 관계없이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다. 나머지 한 명은 6월 29일, 미맥콘2023 제18화에서 공개된다.

최다 추천 A.I 캐릭터는 상금 100만 원과 함께 맥심 9월 호에 실리며, 가상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MAXIM A.I MODEL CONTEST

A.I의 맥심 정복? 당신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미스맥심

맥심 A.I 모델 사생대회가 6월 27일부터 시작된다. 홈페이지 회원에게 가장 많은 추천을 받는 A.I 미녀가 맥심 정규월호 출연과 상금을 받는 만큼 불펌 이미지는 탈락이다. A.I 드로잉 고수들의 많은 도전 바란다.

이달의 암구호:

제3회맥심플사콘7월8일

이달의 암구호는? 홈페이지 회원 등급 올리기

서점이나 앱에서 맥심을 산 독자가 홈페이지 회원 계정을 '독자 등급'으로 올리려면 위 암구호를 입력해 독자임을 인증해야 한다. 독자 등급은 게시글 및 댓글 권한, 미맥콘 투표권 등에서 일반 회원과 다르다. 매월 암구호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두 달. 홈페이지 **BOARD(게시판)** 메뉴나 **'마이 페이지'**에서 **'독자인증 등업'**을 클릭하면 입력란이 나온다.

2023.7.8 Sat

6월 24일 투표 시작! 제3회 맥심 플러스사이즈 모델 콘테스트

100% 투표인 미스맥심 콘테스트와 달리 심사위원에 의해 우승자가 결정되는 플러스사이즈 모델 콘테스트에도 100% 투표로만 결정되는 상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인기상이다. 지금까지 인기상 수상자 모두 미스맥심으로 특별 선발되어 왔기에(미스맥심 전지은, 이유진) 올해도 역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투표는 6/24 맥심 홈페이지에서 시작한다.

2023 CLUB MIXSET

DJ MOCHI A.K.A. 미스맥심 박지연

수요일 밤 맥심 클럽 6월 14일 첫 방송

WNMC

수요일 밤 9시 맥심 클럽

WNMC

2023 여자아이돌 MIXSET

게스트 미스맥심 한지나

DJ MOCHI A.K.A. 미스맥심 박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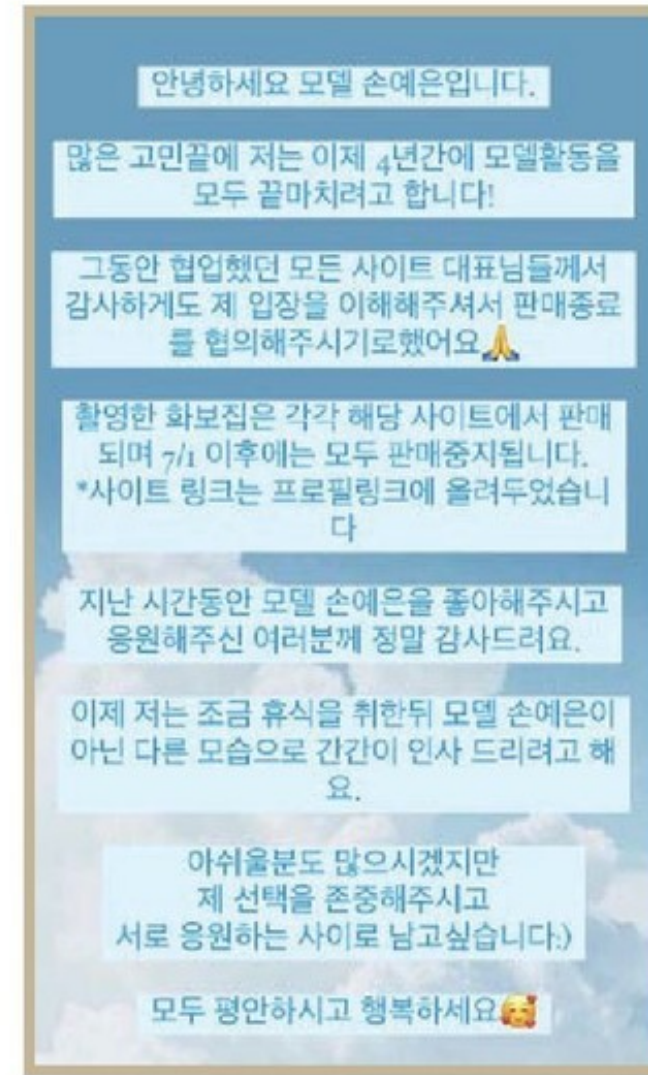
맥심 유튜브 신설 코너! [방구석맥심클럽] 스타트!

클럽 신에서 DJ 모찌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미스맥심 박지연이 매주 수요일 밤 맥심 유튜브 채널에서 음악을 틀어준다. 오디오만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다. 모찌가 당신만의 프라이빗 DJ가 되어 열정적으로 믹싱하는 모습이 담겼으니 큰 모니터에 그녀를 띄우고, 조명 낮추고, 칵테일 한 잔까지 기울인다면 당신 집 소파도 라운지 클럽 VIP석 안 부러울 거다. 첫 회에는 깜짝 게스트로 미스맥심 한지나가 함께했으니 좋아요 눌러야겠지?

VIP와 정기구독자 등급 사이에 'Bcut 멤버십' 회원 등급 신설!

지금까지는 B컷 멤버십이 잡지 정기구독보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급은 정기구독자 등급으로 통합 운영됐었다. 하지만 미스맥심 콘테스트 후보자들의 미공개 B컷까지 꼼꼼히 살피는 독자를 위해 B컷 멤버십을 더 상위 등급으로 분리하여 더 높은 독자 투표권을 부여했다.

맥심 B컷 미공개 화보 평점 1위는 즉시 미스맥심으로 특채?!

종전의 미맥콘 화보는 한두 장의 A컷이 전부였지만 맥심 B컷 서비스를 런칭한 후로 작년부터 잡지에 다 못 실은 미공개 화보를 전량 대방출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미맥콘 제14화에서는 1라운드 B컷 화보에서 최고 평점을 기록한 단 한 명을 미스맥심으로 특채한다는 깜짝 소식을 발표했다. 자연히 이번 수영복 화보 B컷에서도 평점 1위는 미스맥심으로 특채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뜨거운 B컷 평점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웹화보 장인 미스맥심 손예은, 웹화보 모델 전격 은퇴!

웹화보계의 공장장으로 불리던 그녀가 개인 SNS를 통해 갑작스런 은퇴 소식을 알렸다. 모델로서는 오로지 미스맥심 활동만을 지속할 것으로 밝혀 맥심이 손예은의 화보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될 전망이다. 당분간은 해외에서 지낼 거라고 밝힌 그녀가 맥심 지면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미스맥심 손예은의 앞길에 독자들의 많은 응원 바란다.

표지모델 김우현의 미공개 화보 전량이 맥심 B컷에 풀린다!

은퇴 소식이 이어져 섭섭하지만, 지난달 맥심 표지를 끝으로 모든 모델 활동에서 은퇴한다고 밝힌 김우현. 마지막 화보에 워낙 혼신의 힘을 기울인 탓에 잡지에 다 못 실은 주옥같은 B컷이 더욱 많았다고 한다.
이에 맥심 편집부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마지막 화보 그 미공개 컷 전량을 맥심 B컷 플랫폼에 공개할 것을 그녀에게 제안했고, 김우현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는 소식이다. 김우현의 마지막 B컷은 7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호 표지모델 치어리더 김이서 친필 사인 & 키스마크 액자! 맥심 경매에서 150만 원에 낙찰!

현재 최고의 상한가를 올리며 치어리더 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 중인 김이서가 맥심 표지 이후로도 각종 예능 채널에 섭외되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맥심 경매 이벤트에 함께 했다.
유광 아크릴 액자 형태의 대형 표지는 이번에도 역시 딱 두 개만 제작하여 그녀의 친필 사인이 간인 형태로 연결되는데, 김이서 본인과 낙찰자가 하나씩 소장하게 된다. 지난 6월 5일에 시작된 이번 경매 또한 며칠간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지는 듯했으나 결국엔 VIP 회원인 김** 독자가 입찰 가능 최고가를 써내며 경매를 강제 종료시켰다. 날로 뜨거워져 가는 맥심 경매 소식은 맥심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알 수 있다.

맥심1층카페

자정까지 열려있는 독자들의 쉼터, 맥심1층카페 이달 소식.

여름 낮술은 역시
8°C 화이트와인

칠레 명품 와이너리
Vina Morande의 역작
Alameda
Chardonnay 2022
열대과일, 바닐라향
신선한 과일맛
깔끔한 피니시

잔술 9,000
병나발 33,000

Alameda Chardonnay 2022

이 동네 여자들이 중독된 앉은뱅이 와인

여름엔 시원하게 칠링된 화이트 와인! 맥심의 주당들이 가성비 갑 샤르도네를 엄선했다. 너무 달지도 않고 여자들이 환장하는 고급진 맛인데 은근 도수가 있어서 최강의 작업주라는... 오로라 와인잔이 인스타 각이니 데려오기만 해라.

꼴초의 폐엔 맥심 특제 오미자차

별도의 흡연실이 마련되어 끽연가들이 유독 좋아하는 맥심1층카페. 그래서인지 폐에 좋다는 오미자 차와 오미자 에이드가 늘 인기다. 다른 곳엔 흔치 않은 메뉴인 이유는 맥심 사장의 모친이 직접 농사지은 오미자를 따서 청을 담갔기 때문이다. 한 잔 잡숴봐.

깜짝 일일 알바 BJ블리

아프리카TV 광우상사의 은차장인 미스맥심 은유화를 통해 맥심1층카페의 일일 알바를 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미녀 BJ들이 줄을 잇고 있다. 6월 첫째주엔 뉴스 사회면을 뜨겁게(?) 장식했던 BJ블리가 일일 알바로 카페를 찾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친구 영 깜찍하더라고!

일일카페알바생
맥심1층카페
BJ 블리
2023.06.03(토) 15:00 ~ 18:00

주말 알바 고양이 재롱군

그러나 실제로 주말에 인기 최강 알바는 맥심1층카페의 고양이 재롱이다. 이영비 편집장을 집사로 둔 수컷 아비시니안인데, 정확히 여자 손님에게만 아양을 떠는 꼴이 제대로 맥심의 수컷 고양이다. 섭섭해 할 것 없다. 얘가 동네 여자들 다 불러오거든. 됐어. 그걸로 충분해.

깜짝 일일 알바 BJ천이주

6월 셋째주에도 역시나 미스맥심 은유화가 꽂은 아프리카TV BJ 천이주가 맥심1층카페의 일일 알바로 나섰다. 본인은 라떼 색이라고 주장하는 아찔한 살색 원피스를 입고 팬서비스를 듬뿍 선사했다.

맥심1층카페

다른 부분을 찾아라

다른 부분은
총 10개!

PHOTOGRAPH BY 박울 MODEL 미스맥심 김수아

정답은 10개!

PHOTOGRAPH BY 박울 MODEL 미스맥심 김수아

별자리로 보는 7월의 연애 운세

염소자리 12.25~1.19
남: 지금 인생 노잼 시기인 것 같다고? 곧 너한테 대유잼 시기 온다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봐!
여: 만날 사람 없을 때 미리 저축해놔. 다음 달부터 나가서 돈 쓸 일만 생길 거니까!

물병자리 1.20~2.18
남: 남 일에 오지랖 부렸다간 너만 피 본다. 그냥 멀찌감치 서서 구경이나 해.
여: 걔한테 성격 좋다는 소리 듣고 싶니? 그럼 누가 옆에서 정곡 찔러도 발작 버튼 누르지 말고 조용히 도 닦아라.

물고기자리 2.19~3.20
남: 세상에 비밀이 어딨겠냐만, 네가 입 다물고 있는다고 손해 볼 건 없음!(근데 입 열면 손해 봄)
여: 네 밥상에 숟가락 얹을 타이밍 노리는 녀석이 가까이에 있다니까 조심해라.

사수자리 11.23~12.24
남: 있으면 괴롭고, 없으면 외롭다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괴로운 이유도 외로워서라는데?
여: MBTI가 P여서 그렇다고? 넌 즉흥적인 게 아니라 그냥 대책이 없는 거 같은데.

양자리 3.21~4.19
남: 첫인상? 암, 얼굴 예쁘고 몸매 쭉쭉빵빵 중요하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
여: 이때다 싶어 급발진하지 말고 좀만 더 지켜봐라. 그 뒤에 더 '큰'놈 온대.

전갈자리 10.23~11.22
남: 고백받으면 의심부터 박아라. 네 와꾸보단 돈 보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여: 남 탓하긴 싫은데, 걔 때문에 일이 자꾸 꼬이는 것 같지? 전부 다 걔 탓 맞아서 그래.

황소자리 4.20~5.20
남: 이번 달은 발작 버튼 단속 잘해야겠다. 잘못 누르면 일이 몇 배는 더 커질 거거든.
여: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인 줄 아니? 감정이 행동에 드러나는 순간 애새끼 취급받게 될 거야.

천칭자리 9.24~10.22
남: 못하겠으면 도와달라고 해. 붙들고 있어봤자 너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여: 이번 달은 '이게 시발 된다고...?'와 '이게 시발 왜 안 돼!?'의 반복이겠다.

쌍둥이자리 5.21~6.21
남: 솔로 탈출하고 싶다고? 그럼 당장 이불속에서 탈출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닐까?
여: 늘 주제 파악만 잘하고 있는다면 조만간 네 앞에 크고 묵직한 거 하나 떨어질 거야.

처녀자리 8.23~9.23
남: 대박 날 사업 아이템이 떠오른다고? 그럼 일단 네가 전에 싼 똥부터 제대로 치우고 와.
여: 이번 달은 (기프티콘) 뿌린 만큼 (치킨) 거두리라! 당분간 네 돈 주고 치킨 사 먹을 일은 없겠다.

사자자리 7.23~8.22
남: 너만 빼고 다 연애하니까 배 아프지? 괜찮아, 조만간 네 차례 올 거니까.
여: 중요한 일은 좀만 더 미루고 미루다가 두 달 정도 뒤에 하는 게 어때? 그땐 뭘 해도 다 잘 풀릴 거란다.

게자리 6.22~7.22
남: 노 쉬발, 킵 고잉! '시발시발'거릴 시간에 빨리 일어나서 해결할 생각을 해라!
여: 머지않아 "우린 찐 불알친구(남자)야~" 에서의 '불알친구'가 불알을 단 친구로 보일 거야.

여름휴가 떠나기 전에

연애 운세는 꼭 확인하고 가!

2023 신비운
맥심의 연애 운세는 정확하다고 소문난 '2023 신비운' 앱과 함께한다. 연애 말고 다른 운세도 알고 싶다면 다운로드 고고!

Google Play Store
Apple Store

EDIT BY 배주영

MAXIM

MAXIM KOREA / Editor in Chief
편집장 **이영비**

Editorial / **매거진 편집**
에디터 **박중우**
에디터 **김한솔**
에디터 **배주영**
에디터 **채희진**
에디터 **윤정도**
에디터 **성문경**
디자이너 **고복수**
디자이너 **전수진**
디자이너 **이동림**

Video / **영상 제작**
영상 PD **이준예**
영상 PD **이원재**
영상 PD **조아라**
영상 PD **차재환**
영상 PD **홍은택**
영상 PD **김진석**

External cooperation / **대외협력팀**
팀장 / **정권태** 차장

Entertainment / **엔터테인먼트팀**
팀장 / **구경태** 과장
김동환 대리
오동준 사원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팀**
팀장 / **하재인** 차장
방윤경 사원
최준혁 사원

F&B / **맥심1층카페**
매니저 / **황준희** 주임
바리스타 **연선오**
바리스타 **이정훈**

Publisher / **발행인**
CEO **유승민**

MISS MAXIM / **소속 모델**
강선혜 강하빈 고아라 김나정
김서아 김설화 김세화 김소희
김수아 김아람 김은지 김은진
김주연 김지연 김지예 김효연
꾸 뿌 노지혜 도유리 뮤 아
바비앙 박근나 박 별 박수민
박지연 박청아 벨 벳 보 라
손예은 신새롬 썬비키 아승연
안소영 양혜원 엄상미 여나비
연 수 예 리 유 진 은 수
은유화 이규영 이소윤 이수미
이시현 이아영 이아윤 이예린
이유진A 이유진B 이하니 장혜선
전지은 정영현 정 은 정주희
주 은 청 아 채 아 최세희
최혜연 한나나 한수희 한지나
혜 린

Contact

독자 일반 문의
1800-5650
www.maximkorea.net

정기 구독·대량 구매 문의
1800-5650
cs@maximkorea.net

모델·에디터 섭외
070-5173-0998
manager@maximkorea.net

광고·제휴·사업 문의
070-5173-0984
partner@maximkorea.net

섭외·기고·취재·협찬 문의
070-5173-0988
press@maximkorea.net

Contributors
칼럼니스트 **강동란**
스포츠동아 기자 **강산**
게임 전문 미디어 **게임메카**
일러스트레이터 **미스맥심 고아라**
한성대학교 기업경영트랙 교수 **권상집**
만화가 **김성모**
헬스부 장관 **김재섭**
풋볼리스트 기자 **김정용**
칼럼니스트 **김지은**
변호사 **박상오**
팝 칼럼니스트 **배순탁**
영상 제작 **백스페이스**
칼럼니스트 **삼도**
유튜브 채널 **스푸닝**
전 〈레옹〉 편집장 까남 **신동헌**
유튜버 **이순근**
일러스트레이터 **이승훈**
이월뷰티하우스 **이인선**
스타일리스트 **미스맥심 장혜선**
칼럼니스트 **정소담**
대학내일 **조웅재**
시나리오 작가 **지애**
피해의식, 남자훈련소 **크로커다일**
테크 전문 미디어 **테크M**
전 국회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대변인 **하헌기**
과학 유튜버 **SOD**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22 MAXIM 빌딩 TEL. 1800-5650 / FAX. 02-6455-0193
2023년 7월호 통권 제159호 (한국판 242권)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MAXIM

Photography / 촬영
V1 STUDIO
박 율 실장 **이진호** 실장
542 STUDIO 1984 studio
스튜디오 체리픽

Application / 앱 매거진
(주)비욘드테크
디지스토리

Circulation / 유통
승주출판유통 **이응관** 대표
(주)맥심도서유통

Web & Mobile
토웬 / **서정민** 팀장

Printing / 인쇄·원색 분해
벽호 **권준성** 인쇄인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43번지

MAXIM Worldwide
Chairman and CEO, Biglari Holdings Inc.
Mr. Sardar Biglari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Vice President, Operations **Kai Olderog**
Chief Financial Officer **Robert Price**
Chief of Staff **Steven Grover**
International Licensing & Publishing Manager **Dana Lombardi**
Global Advertising **Paolo Cesana**
Senior Paralegal & Rights Manager **Catherine Baxter**

Maxim Inc.
A Biglari Holdings Company

Beverly Hills
The Rolex Building 9420 Wilshire Blvd
Beverly Hills, CA 90212

New York
268 West 44th Street New York, NY 10036

Monte Carlo
5 bis Av. Princesse Alice Monte-Carlo, 98000 Monaco

Media Network: MAXIM / Editor In Chief
AUSTRALIA / **Santi Pintado**
CZECH REPUBLIC / **Jan Štěpánek**
COLOMBIA / **Gabriel Guajardo**
INDONESIA / **Ronald Adrian Hutagalung**
MEXICO / **Gabriel Guajardo**
RUSSIA / **Sasha Malenkov**
SWITZERLAND / **Boris Etter**
SOUTH AFRICA / **Dirk Steenekamp**
SOUTH KOREA / **Young-bee Lee**
THAILAND / **Santhat Phothisa**
UKRAINE / **Sasha Malenkov**
UNITED STATES / **Sardar Biglari**

MAXIM Social / 공식 온라인 채널

맥심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

맥심 B컷 화보 서비스
bcut.maximkorea.net

맥심 유튜브 채널
youtube.com/themaximkorea

미스맥심콘테스트 유튜브 채널
youtube.com/missmaximcontest

맥심 세로 TV 유튜브 채널
youtube.com/맥심세로TV

페이스북
facebook.com/maximkorea

인스타그램
instagram.com/maximmag_kr

라이키 맥심 채널
melikey.co/maximkorea

멤버미 채널
memberme.net/maxim

맥심 매거진 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맥심' 또는 'MAXIM'을 검색하세요.

Very Special Thanks to **VIP**

맥심 242호가 출간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KT&G	태생은한량	wndgus7331	sayurhutan
JTI	paysan	kygbogo09	루딘
Panasonic	PAPK JUNG SOO	qjklwer3341	재희
(주)메디미플러스	jh2her	skky779	혉리
(주)엠도씨	최흥관	sayurhutan	파란@
(주)더페어스	Drision	CheBolu	무색무취무미
(주)이즈앤트리	사랑하세	lswise7	탈퇴한 회원
(주)동아제약	tanhzed	lkjh9975	조반산
(주)원디렉션컴퍼니	Sirtim	lsj4537075	실라리안
(주)준홀딩스	nobaes79	MerSum	Caleb
여수 블루망고 풀빌라&리조트	뒷텔	hihi	PuffyCupcake
	tjdrhs6426	둥산민	Fernando

※ 개인 특별 후원은 구독 서비스 멤버미와 라이키의 맥심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MAXIM KOREA

JULY 2023 issue

Theme of the month

맥심 한국판 242호 **'현실 도피' 편**

On the Cover

표지모델 미스맥심 이소윤

사진 이진호

진행 박중우

서점 판매용

정기 구독 한정판